

■ 2013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남동장애영종합복지관

■ 2013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기획연구

- 13-01 장애자녀와 올바른 의사소통 5

1. 재활치료1팀

- 13-02 감정코칭 기법의 적용을 통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증진 18
- 13-03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치료 24
- 13-04 정상 보행 패턴과 비정상 보행 패턴 31

2. 재활치료2팀

- 13-05 언어치료 가정지도 방법 45
- 13-06 유.아동 발달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89
- 13-07 바르게 걷기 98

3. 사회심리재활팀

- 13-08 가족과의 행복한 의사소통 108

4. 직업재활팀 & 열린일터

- 13-09 2013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규정 교육 121
- 13-10 부모 대상 성(性)교육 138

5.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13-11 2013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141
- 13-12 발달장애 자녀의 행복과 미래설계 147

장애자녀와 올바른 의사소통



팀 명	기획연구팀
일 시	2013년 12월 3일 / 9시30분~12시30분
장 소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3년 부모교육 결과보고서

1) 기획의도

자녀-부모로 구성된 가정에서 부모(보호자)의 역할과 영향은 실로 큼. 그렇기에 점차 가족복지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가치관, 자아개념, 행동양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 부모의 관계, 더 나아가 가족 전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특히 장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모역할을 지원 하고자 함.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지만, 의사소통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고 그 골이 깊어지기도 하여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기획함.

2) 프로그램 홍보

1) 지역 내 유관기관에 공문을 통해 홍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전화연락을 통해 협조요청을 함.

2) 지역 내 언론사에 홍보의뢰를 통해 보도 홍보가 이뤄짐.

3) 관내 게시판에 홍보문구를 게시하여 관내 이용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

4) 각 팀별로 홍보요청을 협조 부탁하여 이용인들의 부모님들께 부모교육에 대해 홍보가 이뤄질 수 있었음.

5) 복지관 내 이용인 부모님들에게 문자홍보 서비스를 통한 홍보 진행.

4) 행사개요

(1) 행 사 명 : 주민교육/ 부모교육 "장애자녀와 의사소통방법"

(2) 장 소 : 복지관 3층 강당

(3) 일 시 : 2013년 12월 03일(화) 오전 09:30 ~ 12:30

(4) 대 상 : 총 32명

(5) 내 용 : 장애자녀와 의사소통방법(행복한 대화)

5) 평가

1) 지역 주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장애인 복지관의 특성을 살려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지원으로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었음.

2)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력이 높았으며 강의 내용이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역기능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대할 때의 태도, 대화의 단계 등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며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하도록 유도함.

- 3) 언어사용에 있어 경청은 중요한 역할이며 듣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고 가족끼리 소통이 가능하게 됨. 특히 건강한 의사소통이 되려면 듣기가 중요함.
- 5)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

6) 참여자 만족도조사

* 부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녀와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 부모교육진행 강사의 강의방식 및 강의내용 만족도

- 강의 주제 만족도 : 매우만족 답변이 65%(21명)이었으며, 만족이 34%(11명)으로 주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음.
-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 : 총 32명 중 매우만족이 68%(22명)였으며, 만족이 12%(4명), 보통이 15%(5명), 불만족 3%(1명)으로 나타났음.
- 강사에 대한 만족도 : 총 32명 중 매우만족이 65%(21명)였으며, 만족이 34%(11명), 보통이 9%(3명), 불만족 3%(1명)으로 나옴.
- 부모일정에 대한 만족도 : 총 32명 중 매우적절이 59%(19명)였으며, 적절이 34%(11명), 보통이 6%(2명)으로 나옴.

*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양육 도움에 대한 만족도

-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방법에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65%(21명)이며, 도움이 15%(5명), 보통이 9%(3명), 도움이되지 않음이 9%(3명)으로 조사 됨.

* 차후 부모교육 참여의향

-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특히 장애자녀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음.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부모교육지원으로 장애자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질 좋은 강의를 무료로 진행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음.
- 영상자료를 볼 때 영상이 매끄럽지 않게 나오는 점이 아쉬움.

■ 부모교육 진행사진



- 별첨 : 교육자료 1부 및 감사이력서 1부.

■ 부모교육 자료

가족과의 행복한 의사소통

채경선 교수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가족은 체제로 이해됩니다. 체제는 요소들과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핵가족 체제를 예로 들면 남편과 부인, 아이들은 요소들이고 남편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가족은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결정됩니다. 건강한 가족을 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르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을 역기능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1. 역기능 가정 이해하기

1) 역기능 가정의 특성

가정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것을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체제이기 때문에 요소들이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치우치거나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모빌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요소가 흔들리면 전체가 요동하게 되어 그 이상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의 부재현상은 가족의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부모의 부재현상은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남편 또는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경우는 물리적 부재현상이고 집에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리적 부재현상입니다. 물리적 부재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부부간의 사별, 이혼, 남편의 장기 출장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경우에 부인이나 아이들 중 누군가는 가족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부인 또는 자녀는 지나치게 많은 책임감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에 지친 부인은 아이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거나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짜증, 신경질,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거나 싫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과 부인은 역기능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부재 현상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부부관계 또는 아이들과 제대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정서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아이들에게 무섭고 엄한 부모로만 인식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적절한

정서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정서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배우자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부모와의 밀착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에 역기능 가정이 되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현재 진행형인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역기능 가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역기능가정은 우선 정서적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폭군아이”로서 역기능가정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의 중독성/강박성은 가족들에게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때 어린이들은 점차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꼭 짚어 말할 수 없습니다.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부모에게서 가족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도박에 중독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습관적 분노 폭발의 부모는 다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격렬한 폭발로 분노가 가족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중독자는 일반적으로 가정과 떨어져 있으면서 직업적인 성공을 하여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결과들이 분명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중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일중독자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지나치게 일에 열중하는 것에 대하여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볼 수 없고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그 일 중독자에게 불평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힘들게 일한 결과인 물질적 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들을 조종한다.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너무 적게 먹거나 은 강박적으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도박을 합니다. 복권, 비디오 게임, 경마, 내기를 건 스포츠 경기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섹스에도 중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음란물 사이트와 음란서적등에 집중하여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 중독자는 강박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 있어서 가정안에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석하고 종교 서적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록 종교 중독자가 겉으로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해도 그는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종교 중독자는 겉으로는 일련의 종교적 지침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낮은 자존감 혹은 분노와 강력한 반감을 느끼고 있으며 감정의 기복이 크고 경건하고 균형잡힌 영적 삶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신앙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정서적으로 결핍된 가족에게서 뚜렷한 중독적, 강박적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오랫동안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가족들의 모든 정서적인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각각의 경우 가족들의 정서적 에너지의 상당량이 중심이 되는 가족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려는 노력에 소모됩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역기능가정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문제를 부인합니다. 역기능 가정은 무엇인가 감출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가 중독증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증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역기능가정은 감정표현을 제한되어 있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가정은 다른 가족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울어도 안되고 싸워도 안되고, 심지어 화를 내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4살된 아이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분노를 내면 아버지는 위험할 정도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애써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고 안 그런 척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이 존재하는 것조차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거짓되고 만들어진 자아가 자기를 지배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은 사라진 채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가족내에서 감정을 제한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곤 합니다. ‘남자는 울지 않아’, ‘너는 아무렇지도 않다.’, ‘너는 슬프지 않아. 행복해’. 말로 하지는 않지만 감정표현을 제한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감정이 표현되었을 때 강한 거부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받아 들이기 어려운 감정표현은 무시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이 가정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번 전달 받은 후에 아이는 다음과 같은 강력하게 파괴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나의 감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고통을 느낄 권리가 없어. 나는 느낄 권리조차도 없어.”

깊은 수준에서 보면 그 역시 자신의 감정과 단절되어 있고 누군가 그의 정서적인 꼭두각시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자신이 정말 기쁘지, 슬프지, 화가 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감정의 센스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더욱 슬픈 것은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에 대한 느낌도 없이 존귀하고 독특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눈치보는 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자신의 감정인 줄 아는 색깔과 독특성을 잃어버린 끌려다니는 아이가 되어 갑니다. 우리 가정안에 억압된 감정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나요?

* (3) 역기능가정은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피하고 한 방향 대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적 환경에서는 갈등에 대해서 서로 말할 수 있으며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사랑의 보살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다고 여겨질 때 행복해 집니다 그리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에는 이런 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봐야하고 가족끼리는 거리감을 두고 친밀감 없이 지내며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대화를 가장한 설교나 잔소리 또는 꾸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동기등 내면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상처를 주는 대화가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에서는 어느 날 밤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울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다음날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같이 시작되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망각과는 다르게 현실을 피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벽들은 자녀들에게 습관화 되면서 소통의 감격이나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면에 불감증 혹은 분노와 미움으로 쌓여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안에 대화와 감정이 교통체증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 (4) 역기능가정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순기능 가정에도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 가정에서는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온 가족이 모여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역기능 가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힘으로 억눌러 버려서 묻어두고 지나갑니다. 결국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녀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자리를 개발하고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를 고사하려 합니다. 그 역할은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들에 의해서 부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여된 파괴적인 자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 대리 배우자: 역기능 가정의 부부들은 친밀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대신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자녀로부터 찾습니다. 또한 문제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하소연하고 불평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이 대리 배우자이거나 대리 상담자입니다.

. 희생양: 그 희생양은 가정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네가 낳기 전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너만 없으면 나와 너의 아버지와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본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갖습니다.

. 영웅: 가족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영웅의 역할을 맡은 아이는 성공을 이름으로써 가정을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가정은 비록 엉망이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러한 영웅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가를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 말없는 아이: 말썽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이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분명히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거야, 나는 결코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을 거야”라고 숨어버립니다.

. 어린 부모, 대리 부모 :

부모가 제대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누군가 자녀 가운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을 상실하고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남에게 주고 희생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코 자신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남편이 그러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여도 대부 부모역을 맡았던 아내는 항상 남편을 부모처럼 철저하게 돌보고 나누어주고 희생합니다.

*(5) 역기능가정에는 재생산의 기능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귀여움을 받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파서 심하게 울었더니 감싸안음을 받아 본 경험, 두려워서 불안했던 마음을 토로했더니 함께 하는 손길의 따스한 경험, 억울해서 크게 소리질러 보았더니 내 옆에 내 편이 누군가가 있었던 경험. 따스함, 사랑, 응석, 신뢰, 든든함을 누리는 경험은 부모에게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채찍을 가할지라도 부모만은 영원한 내편이기를 아는 것은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은 누림보다는 너무 일찍 일을 하도록 강요됩니다. 그들의 일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서가 불안한 성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부모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모에 의해서 정서적인 보살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대단히 놀랍니다. 자신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돌봄, 신뢰, 도움을 주고 받는 부모자녀만이 누려야 되는 특권적인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욕구불만에서 오는 유혹에 쉽게 자신을 내어 줄 가능성이 심히 높게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맺어 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다른 자가 자신과 같은 아이를 재생산해 내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역기능가정에는 기능적 가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대화의 장을 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사람이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세대에서 또 그렇게 역기능 가정이 되물림되지 않기 위해 대화의 기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의사소통의 기술

1) 의사소통의 개념

사전에 의하면 의사소통(意思疏通)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 등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곧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진실하게 공유하면 할수록 친밀감과 소속감이 생겨서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2) 부정적 대화법

1)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비화하는가?

서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말이 점점 더 큰 문제로 악화되는 형상을 비화라고 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평가가 한가지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확대되면 분노와 좌절을 증가시킵니다

2)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는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무효화하는 것은 배우자가 미묘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생각, 감정 혹은 성격을 업신여기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3)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고 철회하는가?

한 사람이 문제를 의논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철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4) 행동의 동기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가?

사귀는 동안이나 혹은 결혼초기의 어떤 오해 때문에 배우자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는 거리, 몸짓, 눈접촉, 얼굴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거리: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친밀할수록 사람들은 상대와 더 가까이 섭니다.

몸짓: 근자에 들어 신체적 언어와 관련된 저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술들에 의하면 우리는 상대의 몸짓이나 자세를 통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아줌, 접촉, 등 두들려주기, 어깨 감싸주기 등 가족간에 스킨쉽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3. 대화의 단계

1) 1단계: 무시하기

소리는 들리지만 내용과 관심은 오가지 않는 단계

2) 2단계 : 경청을 가장하기

눈은 보고 있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인 차원
다분히 형식적이고 상투적입니다

3) 3단계 : 선택적으로 듣기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차원. 앞 뒤 맥락과 전후 사정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고 따로 떼서 부분만 듣습니다. 따라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4) 반영적 경청

‘그렇구나’ 반영하는 단계. 반영적 경청으로 시작될 때 듣기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구나’ 대화를 시작하거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상대가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5) 마음으로 듣기

가장 깊은 관계는 공감적 이해가 자주 일어나는 두 사람 사이입니다. 상대방의 남다른 경험세계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해 주는 단계가 5단계 대화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된 양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4. 바람직한 대화를 위하여

1)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반영하기)

- 판단과 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한 상황으로 표현하기.
너는 너무 고집이 세다 : 말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다시 샀구나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 집에 키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너는 게으르구나 : 9시에 일어났다.
당신은 너무 권위적이야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나를 무시했어 : 내 질문에 대답을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업신여겨 : 그가 나에게 까불지 말라고 했

2) 나 메시지로 요청하기

명령 지시. 급지. 충고, 훈계, 비난 등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상대방을 움직이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 너는 ----해라 ” “ 당신-----가구만”등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대화입니다. 반대로 나 메시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대화입니다.

내가 신문 읽는데 조용히 좀 해봐 : 당신이 곁에서 말을 하니까 내가 신문을 읽을 수가 없군요
저녁밥 빨리 줘 : 약속이 촉박하니 내가 저녁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

5. 나가며

역기능적인 가정은 대화의 장이 막히고 소통이 어려워져서 가족안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언어적 의사소통으로써 반영적 경청 그리고 마음으로 듣기 과정을 통해 가족안에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가족이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 강사 프로필

이 력 서

◎ 인적사항

이름	채경선
주소	부천시 원미구 상3동 라일락 마을 2329동 901호
생년월일	1968. 9. 23
연락처	010-2825-7702
전자우편	chae001@empal.com



◎ 최종학력사항

2006년 8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취득

◎ 경력사항

기 간	
2008. 2- 2009.7	서울신학대학교 상담센터 교수
현재	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코치
현재	인천청소년상담센터자문위원
현재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및 슈퍼바이저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전문가 및 슈퍼바이저
현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주임교수

◎ 방송출연 경력

- 1) EBS 다큐 ‘아이의 밥상’
- 2)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여행’
‘인생 브라보 역전’ 상담자문위원 출연

감정코칭 기법의 적용을 통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증진



팀명	재활치료 1팀
일시	2013.04.24 ~ 2013.05.17
장소	놀이치료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감정코칭기법의 적용을 통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증진>

1. 감정코칭이란?

부모가 자녀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그에 대해 아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코치역할**을 해주는 부모양육태도를 말한다.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오히려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 그것의 교훈을 가르치고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감정코칭기법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도우며 대인관계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 아동의 정서 및 문제행동

감정코칭 기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와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문제행동의 원인과 그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정서와 문제행동

아동의 정서는 두 살이 되면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분화된 정서를 나타내게 되는데 아동의 정서발달은 **정서상태의 지속시간이 짧고 그 반응이 폭발적이며 일시적이어서 기분이 잘 바뀐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짧고 폭발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흔히 이탈과 부적응, 공격성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② 문제행동의 원인과 유형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인 선천적인 기질과 부모의 거부적, 의존적, 방임적 양육태도로 나뉘는 가정요인, 경제,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공격성과 주위산만유형, 사회성과 도덕성유형, 정서문제로 우울과 불안유형, 섭식과 배변 등 생리유형, 성문제 유형 등으로 나뉜다.

3. 나는 어떤 부모인가?(감정코칭 부모유형)

문제행동의 원인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큰 관련이 있고 그 행동을 부모가 어떻게 느끼는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① 축소 전환형 부모

이 유형의 부모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생각하려 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정**

면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또한 잘못된 일들을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라 생각하게 된 부모는 아동이 감정으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그 감정을 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고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따라서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②억압형 부모

아이가 화가 났거나 슬픈 것을 비난하는 유형으로 아동의 정서상태를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난하며 벌을 준다.

또한 감정과 관련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게 되어 아이가 왜 우는 것인지 왜 반항하는지 원인을 생각하기 보다 보이는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느껴 벌을 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축소전환형 부모와 억압형 부모의 자녀들은 공통점이 많다. 우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은 편이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몰라 집중과 학습이 어렵다.

또한 감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부모들도 자신이 행하는 양육방식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③방임형 부모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제한이 없고 표현을 편하게 느끼지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부모들은 방관자의 입장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④감정 코치형 부모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받아들여주지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고 감정조절과 적절하게 분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방임형 부모와 어찌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방임형 부모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아이가 혼란감을 느끼지만 감정코치형 부모의 아동은 좀 더 빨리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고 자기이해과 타인이해가 잘 되어 학업,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4.감정코칭기법 5단계

아동의 문제행동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유형의

반응으로 자녀에게 반응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통해 접근해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①아동이 느끼거나 보여주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기

■작은 감정을 보일 때 빨리 알아차려라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아이가 감정에 대해 배우도록 도와주는 첫 단계이다. 아이가 보이는 감정을 빨리 알아차려주지 못하면 그 감정은 더 커지게 되므로 작은 감정을 보일 때 알아차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 속의 숨은 감정에 주목하기

말로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은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관심있게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에 주목하여야 한다. 하지만 행동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럴 때는 열린질문(“지금 기분이 어때?”)으로 물어보도록 한다.

②감정의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기

아이의 감정표현을 위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친밀감 형성과 감정 다스리기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흔히 부모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남들의 시선이 신경쓰여 보상을 제공하거나 하여 그 감정이 사라지도록 바라며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감정이 억압되면 그것은 나중에 발산되기 마련이다.

오히려 감정을 얘기해주고 이름 붙여주고 이해해주어야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③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기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모두 공감해주기

아동이 드러내는 감정에 대해 감정자체를 공감해주는 것으로 아동이 표현하는 감정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동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부모들은 흔히 아이가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부정적으로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게 되어 그것을 억압하게 만드는 실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올바른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편견없는 공감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 자신도 모르는 복합적인 감정도 받아준다.

아이가 여러 감정이 섞여 자기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 그 감정을 정리해주고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엄마도 그런적이 있었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감정을 공감할 때는 언제나 진지하게 한다.

아이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일이 어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로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만큼의 감정일 수가 있

다.

또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는 이성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피해야하는 질문이다. 대신에 “무엇이 너를 화나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등의 개방된 질문으로 물어보게 되면 아동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면 4,5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

④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아이는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에 대처하여 안정을 찾고 싶어한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을 명료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

■아이 스스로 감정표현하도록 돕기

부모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 스스로가 감정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정정리에 도움이 된다.

⑤스스로 문제 해결하도록 하기

■공감과 행동의 한계 정해주기

우선 감정을 공감해주고 행동에 제한을 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아동이 자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 두가지는

1.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2.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이 있다.

이 규칙은 세세하게 정하는 것보다 몇가지를 정해서 아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준 다음 제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원하는 목표 확인하기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해결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해결책이 없는 경우(죽음,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감정을 위로해준다거나 추억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등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할 수 있는 것에는 물건같은 것 보다 감정적인 위로나 추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결책 찾아보기

아이보다 앞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질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는 무언가 자신이 해냈다는 느낌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는 아이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목록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검토하기

아이가 생각했던 다양한 해결책들을 검토하여 그것이 성공가능한 방법인지,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아이 스스로가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돕기

아동이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양한 경험을 아이에게 제시하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주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2013). 이혜숙 저. 창원대학교
-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에 미치는 효과(2012). 서숙경. 대구대학교
-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2012). 서유리안나. 아주대학교
- John Gottman의 감정코치법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012). 계명대학교. 이수진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치료



팀 명	재활치료1팀
일 시	2013년 05월 25일 ~ 05월 31일
장 소	미술치료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치료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는 학문적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그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치료의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미술은 인간의 창의적 능력과 욕구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며, 종교적·미적·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료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단과 환자의 적응상태를 기초하여, 목표지향적 임상작업의 관점(Petzold·Orth, 1991)에서 적용되고 있다.

미술치료의 정의를 예술치료의 정의와 더불어 광의적으로 사용되며 ‘육체적-영적-정신적 존재이며, 삶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을 하고 사회적, 생태적 조건과 연계를 이루는 총체적 존재인 인간에게 창의적 매체와 예술 방법을 이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완화하며, 인간성을 개발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tzold, 1991).

2. 미술매체의 심리적 속성

매체의 선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고려점은 촉진과 통제이다. 내담자의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공간과 아울러 다양한 색상과 충분한 크기의 종이와 점토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장 낮게 통제	젖은 점토	그림 물감	부드러운 점토	오일 파스텔	두꺼운 펠트지	풀라쥬	단단한 펠트지	얇은 펠트지	색연필	연필	가장 높게 통제
	1	2	3	4	5	6	7	8	9	10	

1) 미술매체를 통해서 심상을 구체화하여 미술로 표현한다.

내담자는 미술매체→심상표현→미술작품(창조)으로 나아간다.

2) 내담자는 비구조적인 미술매체일수록 투사를 더 많이 한다.

3) 엄격한 규칙이 요구되는 미술과제는 단순히 지시사항을 따르기 때문에 심상을 떠올리는데 제한이 크다.

4) 모든 매체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내담자의 작품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내담자에게 적합한 매체와 예상되는 미술활동에 대비하여 매체를 준비해 둔다.

3. 매체의 특성

1) 미술치료에서의 매체

매체라는 용어의 범위는 미술에서 회화, 조각 등 예술표현의 수단 혹은 수단에 쓰이는 재료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미술치료에 있어서 미술재료의 역할은 매우 크다. 각각의 매체는 그 고유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대상을 표현하는 재료로 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2) 매체에 대한 반응

매체 선택 시 두 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촉진과 통제이다. 내담자의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작업공간과 아울러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내담자의 성격은 재료를 선택할 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미술재료 중 물감, 핑커페인팅 그림물감, 물기가 많은 점토 등은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어 성격이 경직된 내담자에게 주로 적용하며, 충동적이고 자아경계가 불분명한 내담자에게는 충동적 성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적용을 자제한다.

반면 색연필, 사인펜과 같은 딱딱한 재료는 높은 통제력을 지닌 재료로서, 충동적 성향을 통제하기 위한 재료로 쓰인다. 이처럼 내담자의 성격과 반대성향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의 내면세계의 억압된 부분을 재통합하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에 따라 특성이 다르므로 개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3) 발달단계의 매체

발달단계가 낮을수록 적절한 재료의 선택에 대한 더욱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

- ① 난화기 : 아동이 만들겠다는 목적성과 가지고 놀면서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으면 완성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는다. 근육운동감각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기교가 필요 없으면서 자유로운 표현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창작과정이 완성작품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재료는 그것이 계획된 연령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다른 미술재료를 소개하거나 바꾸는 것은 아이가 실제로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과정에 대한 반응, 환경에 대한 지적인 개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재료에 적응되는 것을 방해한다.
- ② 전도식기 : 재현을 시도하는 전도식기에 있는 아동은 찰흙이 훌륭한 입체재료다. 기본적인 재료와 더불어 이 발달단계에서 알맞은 다른 재료로는 색연필, 사인펜, 색종이, 콜라주 재료 등이다. 아동이 의도하는 표현에 잘 맞지 않은 까다로운 재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미술매체의 기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움 역시 아동의 개별적인 접근을 방해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 ③ 도식기 : 형태의 개념을 습득하는 도식기에 아동에게 포스터물감, 크레용, 색분필 등은 아동의 의도를 잘 충족시켜 주지만 수채화 물감은 피하는 것이 좋다.
- ④ 또래집단기 : 사실적인 표현단계로까지 발달되면 아동은 사실을 재현하기 위해 선을 사용하고, 평면의 발견과 함께 공간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그 공간을 채울 필요성을 느낀다. 이 시기에는 아동의 요구에 부응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돕는 재료라면 좋은 재료라 할 수 있다. 사용할 재료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지만, 재료가 그들 자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⑤ 의사실기 : 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표현을 할 줄 아는 시기가 되면, 작품의 표현 형식이 시각형인 아동은 주위 환경의 시각적 특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된다. 선묘적인 표현보다는 물감에 강한 흥미를 보인다.

4) 매체의 종류와 특징

재료는 일반적인 미술재료와 자유로운 미술 외적 재료로 나눌 수 있는데,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히 적용시켜야 한다. 즉, 내담자의 인지적 능력이나 상징화 능력에 따라 일반적인 미술재료나 미술 외적 재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① 채색재료

- 수채화 물감 : 물로 색의 밝기를 조절하고 겹치기, 번지기, 뿌리기 등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기 좋고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이 나는 물감이다. 붓 대신 솔이나 화선지, 스펀지, 성긴 헝겊, 비닐 등 각종 다른 매체에 묻혀 찍어 내거나 뿌려서 색다른 기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 아크릴 물감 : 접착력이 강하여 거의 모든 바탕의 재료 위에 채색할 수 있으며, 속성 건조하는 수용성 물감이다. 덧칠하거나 투명성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화면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유화 물감 :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리는 데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톱밥이나 모래, 각종 분말(흙, 돌가루, 소석고) 등에 섞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파스텔 : 발색이 좋고 손으로 문질러 번지게 할 수 있고 잘 지워져 통제력이 없는 재료다. 완성 후 정착액을 뿌려 보관한다. 그러나 파스텔을 쥐고 누르는 힘의 정도에 따라 색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내담자의 통제력을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다.
- 오일 파스텔 : 크레용보다 부드럽고 흰색의 사용도 용이하다. 혼색과 겹침, 긁어내기, 문지르기, 물과 기름의 반발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크레용 : 수성과 유성으로 나누어진다. 유성은 물과 기름의 반발원리를 이용해 배수성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나, 크레용의 미세한 분말을 뿌린 후 얇은 종이를 덮고 약한 열로 다림질하여 수채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 내담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수성은 그림을 그린 뒤 물에 적신 붓으로 문지르면 색의 발수성이나 혼색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색연필 : 선묘를 하기에 부드러우며, 간단한 채색을 하기에 좋다. 크레용과 비슷한

성질과 효과를 낼 수 있다.

- 수성색연필 : 붓에 물을 붙이면 수채화 물감처럼 퍼지는 색연필이다.
- 포스터컬러 : 일정량의 물을 사용하여 색을 고르게 바르는 것이 좋고, 불투명 그림에 주로 사용된다.
- 구아슈 : 투명수채화보다 좀 더 안료가 불투명하여 포스터컬러의 투명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포스터컬러보다 내광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두텁게 덧칠할 수도 있고, 어두운 색위에 밝은 색을 칠하여 유화의 느낌도 낼 수 있다.
- 핑거페인팅 물감 :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 염료(식물성 직접염, 전사염료), 천연염료, 먹, 동양화 물감, 수성과 유성 페인트
- 칠보유약, 마블링 물감

② 소묘재료

- 연필 : 소묘의 재료 중 표현이 자유롭고 수정이 가능한 재료다. 2H-B는 학습 필기용, 설계제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2B-4B는 미술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심이 부드럽고 진하다.
- 목탄 : 가볍고 색의 농도가 짙은 것이 좋다. 가장 부드러운 재료로 명암 표현에 좋다. 완성 후 정착액을 뿌려 보관하고, 식빵이나 형겔지로 지울 수 있다.
- 콩테 : 오일 파스텔과 성질이 유사하여 부드러운 표현이 용이하나 매우 진하고 잘 지워지지 않는다. 색상은 검정, 회색, 흰색, 어두운 갈색 등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색이 생산된다.
- 붓 : 선의 속도감이 표현되고, 선의 강약 표현과 먹의 농도 표현에 좋다.
- 사인펜 : 진하여 명암 표현이 어려우나 수성 사인펜이기 때문에 수채화물감과 함께 사용하면 번짐의 효과가 있어 재미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 마커펜, 매직펜 : 침투력이 강하여 빠른 시간에 채색이 가능한 부드러운 재료지만 농도조절이 어렵다. 휘발성이 강하여 사용 후 뚜껑을 닫도록 하여야 한다. 사인펜이나 유성펜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용제가 증발하였을 때는 수성은 물이나 알코올을 첨가하고, 유성은 벤젠을 첨가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
- 기타 볼펜, 분필, 지우개 등

③ 입체재료

- 찰흙 : 가소성이 풍부하고 흡착력이 강한 재료로 촉감을 동반한 활동에 유용한 재료다.
- 지점토, 종이죽
- 벽돌 : 쌓거나 프로타주 기법에 이용한다.
- 유토 : 흙에 불건성유를 섞은 것으로,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좋은 소조재료다.
- 석고 : 다루기 쉽고 제작시간이 짧은 반면 깨지기 쉽다.
- 발포석고 : 기포가 있는 석고이기 때문에 깎는 데 어려움이 없다.
- 석고붕대 : 인체의 부분을 그대로 본을 뜨는 순간조형 제작에 좋으며, 제작하기 쉽고 건조가 빠르고 건조 후에는 단단하게 변한다.

- 테라코타 : 찰흙으로 형태를 만든 후 약 800도의 온도에서 구워서 완성한다.
- 컬러 클레이, 비누, 파라핀
- 다양한 목재, 철사, 피복전선, 인조 대리석
- 각종 천, 실, 털실, 노끈, 솜, 스티로폼, 다양한 크기의 목재상자나 종이상자
- 오브제 : 자연물, 곡식, 마른 열매, 조개, 돌, 자갈 등
- 채소 : 문양을 새겨 찍기에 적절한 재료(무, 감자, 고구마 등)
- 레디메이드 : 생활용품, 재활용품 등의 각종 기성 제품

④ 종이 및 섬유 재료

- 종이 : 도화지와 켄트지
- 화선진 : 색채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번짐의 효과가 심한 종이다.
- 한지 : 먹색효과가 좋고 겹쳐 그리기 편리하다. 붙이거나 끈으로 꼬거나 종이죽 등으로 성형하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 장지 : 화선지를 겹쳐 만든 것으로 화선지보다 흡수력은 떨어지나 화선지처럼 잘 찢어지지 않아 널리 사용된다.
- 섬유 : 자수, 직물, 염색, 매듭 등의 영역이 있으며 전통적 표현기법이나 직물 조직에 나타나는 패턴을 이용한 표현, 염색 등이 가능하다.
- 색 켄트지, 두루마리 종이, 스케치북
- 색종이, 색한지, 화장지, 신문지
- 수채화 용지 : 와트만지, 아트지 등은 흡수성이 좋은 수채화 용지다. 내구성을 좋게 하려면 중성지나 약알칼리성 종이를 선택하면 좋다.
- 모눈종이, 하드보드지, 포장지, 셀로판지, 사포, OHP필름 등
- 콜라주용 잡지나 광고 카탈로그 등

⑤ 기타 미술 외적인 재료

- 면도크림, 물, 케이크, 비누 물, 생크림 등
- 밀가루, 전분, 모래, 색모래, 소금, 다양한 색과 크기의 구슬과 단추, 모양 틀, 바셀린 (석고 만들기 용) 등
- 다양한 크기의 공 모양 스티로폼, 색 테이프, 반짝이, 성냥개비, 이쑤시개, 빨대, 수수깡, 초, 철사, 낚싯줄, 풍선, 종이접시, 종이컵, 다양한 병뚜껑, 코르크

⑥ 작업 도구

- 붓 : 다양한 크기의 붓(수채화, 아크릴), 동양화 붓, 붓통
- 팔레트, 화판
- 점토 자르는 줄칼, 점토용 주걱, 나무망치
- 날이 둔탁한 가위, 큰 가위
- 풀, 본드, 스카치테이프, 양면테이프, 글루건, 글루건 풀
- 칼, 자
- 이젤, 화판 혹은 두꺼운 마분지
- 플라스틱 통

- 나무판
- 픽사티브 스프레이, 다양한 색 래커, 테라핀, 스펀지
- 각종 공예용구 세트, 펀치, 회전대

4.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치료

- 1) 목표 : 가족 간의 이해를 돕고 응집력을 높인다.
- 2) 준비물 : 도화지, 종이접시, 크레파스나 매직펜, 아이클레이, 모티브 등
- 3) 방법
 - ① 각각의 가족의 얼굴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② 종이접시와 아이클레이, 모티브, 크레파스나 매직을 이용해서 가족의 얼굴을 꾸미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각각의 가족의 얼굴을 도화지에 붙이기 제목을 붙이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활동하면서 느꼈던 느낌이나 생각 등을 나누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정여주(2003). 미술치료의 이해(이론과 실제). 학지사

정상 보행 패턴과 비정상 보행 패턴



팀 명	재활치료 1팀
일 시	13년 10월 30일 ~ 13년 11월 1일
장 소	서면교육 /대기자 프로그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보행 패턴과 비정상보행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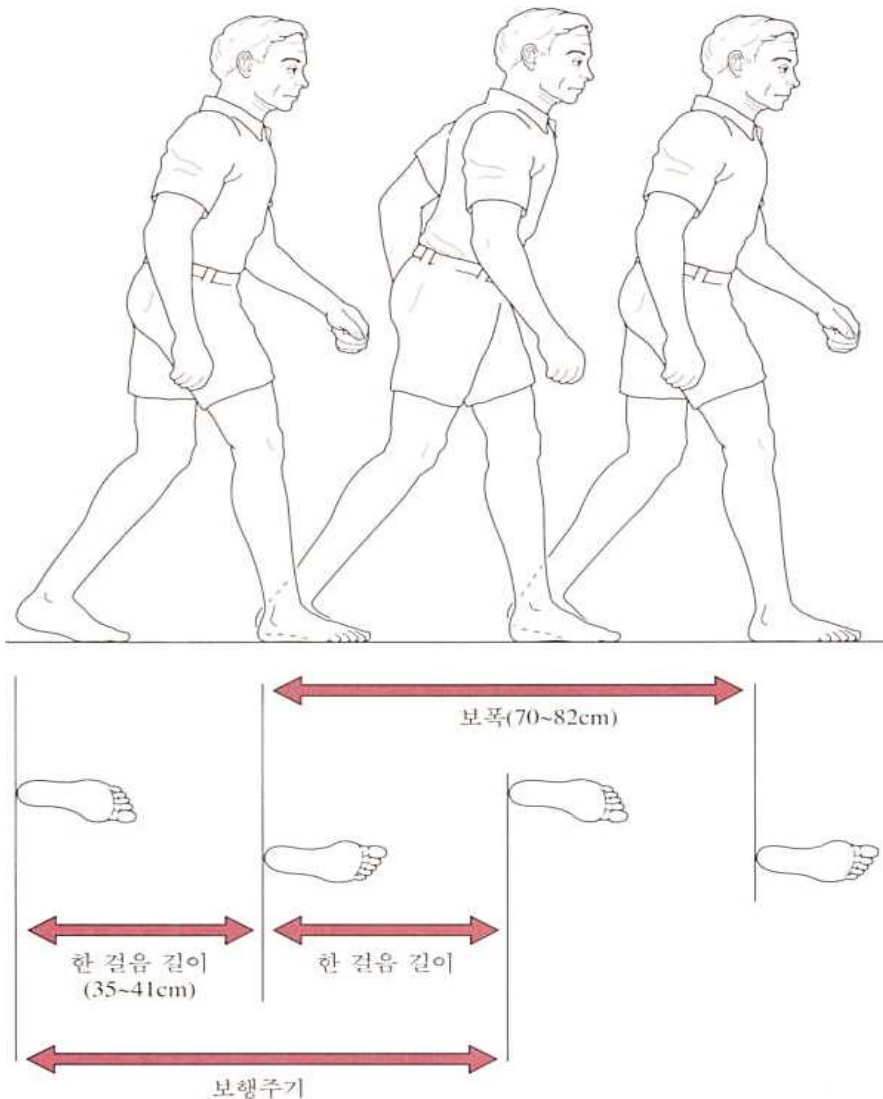
1. 보행이란?

걷는다는 것은 앞으로 넘어지려는 것을 멈추게 하는 단순한 행동이다.

보행패턴은 약 7세 때까지는 불규칙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 보행주기란?

같은 발이 연속적으로 두 번의 초기 접촉을 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움직임의 경로 또는 시간 간격을 말한다.



예) 발뒤꿈치 닿기를 초기 접촉으로 한다면, 오른쪽다리의 보행주기는 오른쪽 발의 발뒤꿈치 닿기에서부터 다음 번 발뒤꿈치 닿기까지를 말한다.

시기	주기의 %	기능	대족 사지
첫 번째 두 다리 지지기	0~12	부하, 체중 이동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유각기를 위한 준비
한 다리 지지기	12~50	전체 체중의 지지: 무게중심이 앞으로 움직임	흔들기
두 번째 두 다리 지지기	50~62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유각기를 위한 준비	체중 부하, 체중 이동
초기 유각기	62~72	발을 땀	한 다리 지지
중간 유각기	75~85	몸의 앞으로 하지가 나아감	한 다리 지지
최종 유각기	85~100	하지의 감속, 체중 이동을 위한 준비	한 다리 지지

보행주기의 단계, 각 단계의 기능, 그리고 반대쪽 사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입각기(첫 번째 두 다리 지지기, 한 다리 지지기, 두 번째 두 다리 지지기)는 보행주기의 60~65%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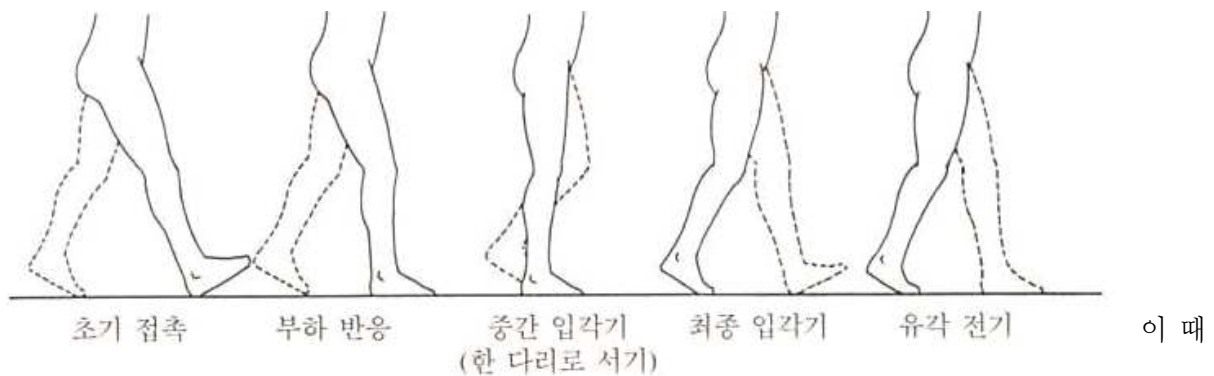
유각기는 보행주기의 35~40%를 차지한다.

보행주기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주기의 길이 또는 보폭이 감소한다.

예) 조깅시의 보행주기는 걸을 때의 70%이며, 달리기할 때의 보행주기는 걸을 때의 60%이다.

3. 입각기

보행의 입각기는 발을 지면에 대고 체중을 부하할 때 일어난다.



하지는 충격 흡수 장치처럼 작용하여 체중을 지탱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 위로 몸이 전진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입각기는 보행주기의 60%를 차지하며, 다섯 개의 하부 단계로 구성된다.

1) 초기 접촉단계는 닫고 있는 다리로 체중을 부하 또는 수용하는 단계로서, 보행 주기의 초기 10%를 차지한다. 이 기간 동안, 한쪽 발은 지면에서 떨어지는 반면 다른 쪽 발은 체중을 받아들이고, 초기 접촉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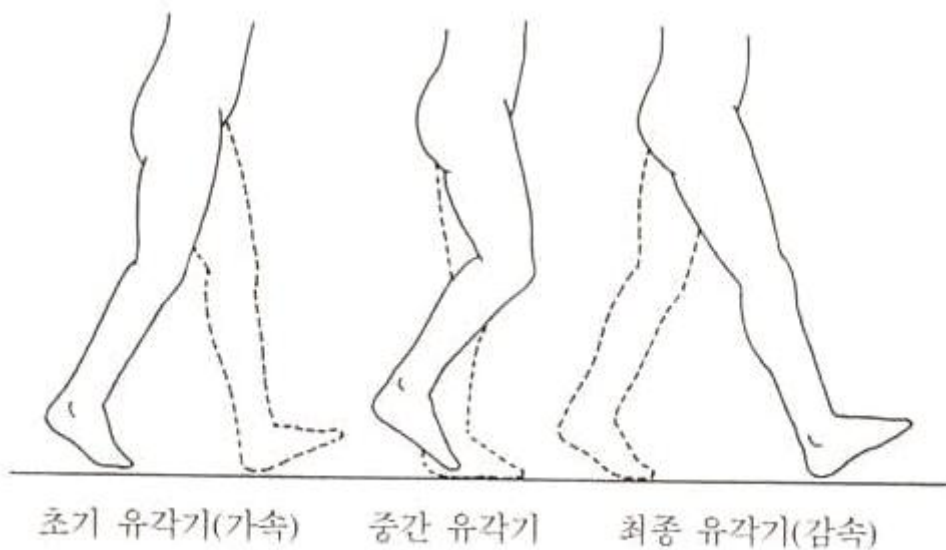
2) 부하반응 단계와 중간 입각기는 한 다리지지 또는 단하지 입각기로 구성되며, 보행주기의

다음 40%를 차지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한쪽 다리로만 체중을 지지하게 되며, 다른 쪽 다리는 유각기를 지나게 된다. 입각기에 있는 다리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몸은 그 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외측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딛고 있는 다리 쪽의 경골은 고정된 발의 위를 지나가야만 한다.

3) 최종 입각기와 유각 전기 단계는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기간으로 보행주기의 다음 10%를 차지한다. 이 단계 동안 입각기에 있는 다리는 체중을 반대쪽 다리로 이동시키고 유각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 처음 두 단계 동안에는 두 발이 모두 지면에 접촉하는데, 이러한 양하지 입각기는 보행주기 동안 두 번 발행한다.

4. 유각기

보행의 유각기는 발이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전방으로 움직일 때 일어난다.



유각기 시, 유각기에 있는 다리의 발가락은 지면에서 떨어져 다리의 길이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해주며,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보행주기의 약 40%를 차지하며, 세 개의 하부단계로 구성된다.

1)가속단계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 일어난다. 정상적인 보행 동안에는 슬관절의 굴곡과 족관절의 배측굴곡이 빠르게 일어나 다리를 전방으로 가속 시켜 준다.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는 슬관절굴곡과 족관절의 배측굴곡이 소실 또는 변화되어 보행의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2)중간 유각기 단계에서는 유각기에 있는 다리가 중간 입각기에 있는 다리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

3)최종유각기 단계에서는 유각기에 있는 다리는 지면과의 초기 접촉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천천히 내려간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대퇴사두근과 슬픽근의 활발한 작용이 필요한데, 대퇴사두근은 슬관절의 신전을 조절하고, 슬픽근은 고관절의 굴곡을 조절한다.

달리거나 속도가 증가하면 입각기의 기간은 감소하며, 양하지 입각기가 사라지는 대신 두 발

이 모두 지면에서 떠 있는 단계가 나타난다.

비록 한 다리로 서 있는 기간은 줄어들지만, 부하는 2~3배 증가한다. 각각의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걸을 때나 달릴 때나 유사하게 일어나지만 요구되는 관절가동범위는 활동의 속도에 따라 증가한다.

예) 걸을 때의 고관절굴곡은 약 40~45도인 반면에, 달릴 때에는 고관절굴곡이 60~75도가 된다.

5. 양하지 입각기

양하지 입각기는 두 발이 각각 한 부분씩 지면위에 닿아 있는 보행단계를 말한다. 정상적인 보행시 양하지 입각기는 보행주기 동안에 두 번 일어나며, 보행주기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천천히 걸을수록 증가하며, 걸음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짧아지고 달릴 때에는 사라진다.

6. 단하지 입각기

오직 하나의 다리만이 지면에 닿아 있을 때 일어나는 보행단계를 말한다. 이는 정상 보행주기 동안에 두 번 나타나며, 보행주기의 약 30%를 차지한다.

보행의 정상 변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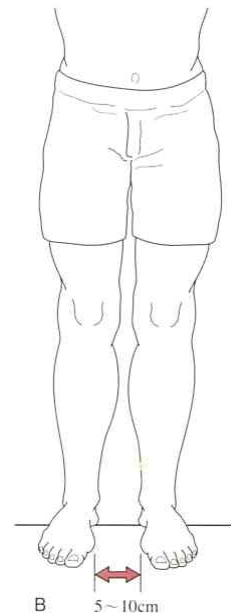
아래에 나열한 변수들과 그 수치들은 8~45세 사이의 정상인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3세 정동의 어린아이에게서도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보행패턴을 볼 수 있다.

보행패턴은 성별에 따라 그리고 같은 성별이라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들 연령대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학적인 발달, 균형 조절, 노화, 사지 길이의 변화, 성숙 정도 등에 의해 변화가 나타난다.

예) 성숙이 이루어지면 보행 속도와 한 걸음 길이가 증가하고 보행수는 감소한다. 정상적인 보행패턴에 기초를 두고 보행을 평가하는 것은 동일한 연령대의 환자들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들에게서

1. 기저부의 넓이

두 발 사이의 좌우 거리를 뜻하는 기저부 넓이의 정상범위는 5~10cm이다. 만약 기저부가 정상보다 넓다면, 검사자는 균형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변(소뇌나 내이의 문제)이나 근골격계 문제(고관절 외전근의 단축), 그리고 감각소실을 일으키는 당뇨병이나 말초신경 병증을 의심해야 한다. 처음의 두 경우, 환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저부를 더 넓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속도가 증가되면, 정상적인 기저부 넓이가 0까지 감소한다. 어떤 경우는 다리가 교차되어 발이 서로 반대쪽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다리의 교차는 보행패턴의 변화나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2. 한 걸음 길이

한 걸음 길이는 연속된 두 발의 접촉지점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정상적인 거리는 35~41cm이고, 개개인마다 비교적 일정하며, 두 다리의 같다. 한 걸음 길이는 나이와 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보다 작다. 또한 신장도 영향을 미쳐서 키가 큰 사람에게서 더 크다. 반대로 한걸음 길이는 노화나 피로, 통증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양쪽 다리의 한 걸음 길이가 정상인 경우에는 보행의 리듬이 부드러워 지지만 만약, 한쪽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가능한 한 빨리 다리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리듬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3. 보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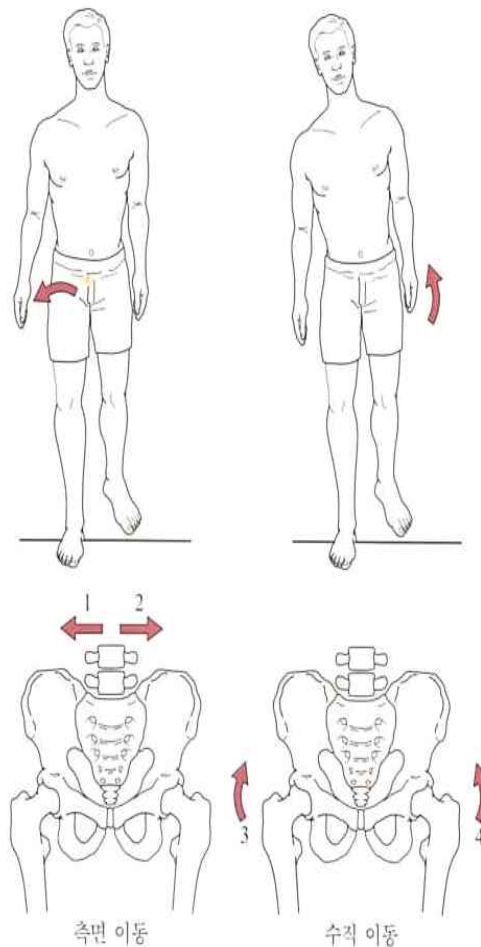
보폭은 한 발이 지면에 닿는 지점부터 동일한 발이 지면에 닿는 지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보폭은 약 70~82cm가 정상범위인데, 이것은 실제로 한 보행주기가 된다. 한 걸음 길이와 마찬가지로 보폭은 노화, 통증, 질병 그리고 피로에 의해 감소된다. 노화는 종종 걸음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4. 측면 골반 이동

측면 골반 이동은 걷는 동안 일어나는 골반의 측면 움직임을 말한다.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딛고 있는 다리의 위로 체중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 측면 골반 이동은 2.5~5가 정상범위이며, 두 발 사이의 좌우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골반의 경사는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쪽 다리에 상대적인 내전을 일으켜서 고관절 내전근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만약 이 근육들이 약하게 되면 트랜델렌버그 보행이 나타난다.

5. 수직 골반 이동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동안 5cm이상의 상하 움직임을 일어나는데, 수직 골반 이동은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중력의 중심을 유지한다. 수직 골반 이동에 의해서 골반높이의 최고점은 중간 입각기에서 나타나고, 최저점은 초기 접촉단계에서 나타난다. 만약 보호성 경련이나 부종으로 인하여 슬관절 굴곡을 할 수 없거나 슬관절이 융합되었을 경우 이들 최고 또는 최저점의 높이는 유각기 동안 증가한다.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동안, 머리의 높이는 서 있을 때보다 절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의 통로라면 부딪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각기에 있는 다리의 고관절은 낮아지므로, 환자는 발가락이 지면에 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슬관절굴곡과 족관절 배측굴곡을 해야 한다. 이 작용으로 인해서 중간 유각기시 다리길이가 줄어들며 중력중심의 상승폭도 감소한다.



6. 골반의 회전

골반의 회전은 지면에서 대퇴골의 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며, 그렇게 하면 대퇴의 길이가 길어진다. 골반의 회전은 전위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하여 중력 중심의 하강도 감소한다. 유각기에 있는 다리 쪽에서 4도 전방회전이 일어나고 입각기에 있는 다리 쪽에서 4도 후방회전이 일어나 총 8도의 골반회전이 일어난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흉곽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즉, 골반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흉곽은 반 시계반향으로 회전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동시 발생적인 회전은 상호 회전력을 제공하고, 보행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회전은 하지의 각 관절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체간으로부터 먼 관절일수록 회전의 양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경골의 회전은 골반의 회전보다 3배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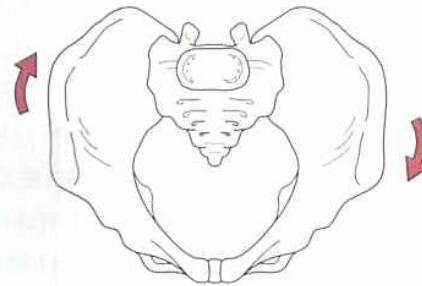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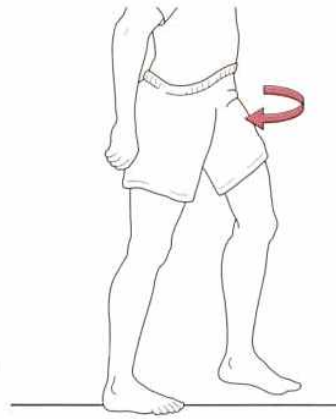


그림 14-8. 골반 회전
좌측 전방 골반 회전을 보여 주고 있다.

7. 중력중심

서 있는 자세에서 중력중심은 정상적으로 제2천추의 5cm전방에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남성은 여성보다 어깨 부위의 체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중력중심의 수직·수평 전위는 골반 내에서 8자 모양을 그리며, 5cm² 면적 안에서 일어난다. 걸을 때의 수직 전위는 측면에서 잘 관찰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사인곡선을 그린다. 머리의 높이는 체중이 부하 또는 제거되는 과정동안에는 내려가며, 한 다리로 섰을 때는 올라간다.

8. 정상적인 보행수

보행수는 정상적으로 1분에 90~120보 사이이다. 여성의 보행수는 대개 남자보다 6~9보 더 많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행수는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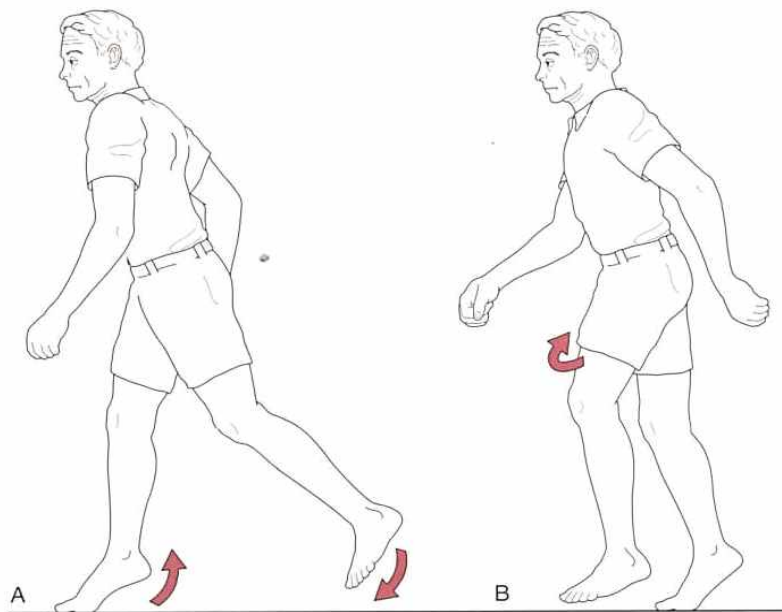
비정상 보행

1. 통증성 보행

통증성 보행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행이며, 골반, 고관절, 슬관절, 발목 또는 발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다. 환자는 체중을 환측 다리에서 가능한 빨리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측 다리의 입각기가 건측의 입각기보다 짧다. 그러므로 각 다리의 유각기는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 건측 다리의 유각기는 감소하며 그 결과, 건측의 한 걸음 길이는 감소하고 보행속도와 보행수도 감소한다. 또한 아픈부위를 지지하며 다른 팔은 밖으로 뻗어 균형을 잡는다. 만약 고관절통증이 문제가 된다면, 환자는 체중을 아픈 고관절 위로 이동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고관절이 각이 진 상태에서는 체중의 2배가 고관절에 가해지지만, 이렇게 체중을 이동시켜 고관절을 수직적 위치로 만들면 고관절 외전근의 당김이 줄어들어 체중 정도의 하중만 가해지기 때문이다.

2. 관절성 보행

관절성 보행은 관절의 강직이나 느슨함 또는 기형에 의한 결과로 발생되는데, 아플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슬관절이나 고관절이 융합되었거나, 최근에 실린더형 깁스를 제거한 경우, 환자는 발가락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대쪽 족관절을 과도하게 저축굴곡시키고, 환측 다리를 회전시키려 하기 때문에 골반이 올라가게 된다. 이 보행을 하는 환자는 고관절과 슬관절이 뻣뻣하기 때문에 정상보행보다 다리를 더 높게 들어올리게 된다. 다리를 회전시킴으로써 환측 발을 지면에서 떼 땔 때 다리를 들어올리는 높이를 감소시켜 준다. 고관절이나 슬관절 또는 두 관절 모두에서의 유연성의 상실로 인해 양쪽의 한 걸음 길이에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환측 다리로 체중을 지지할 때의 보행길이가 짧다.



3. 실조성 보행

감각이 둔화되었거나 근육의 협응작용이 좋지 않다면, 균형잡기가 나빠지고 기저부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소뇌성 운동실조를 가진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걷게 되고, 모든 움직임이 과도하게 일어난다. 감각성 운동실조를 가진 환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지면을 때리듯이 내려 놓는다. 또한 걸을 때 발을 쳐다보면서 걷게 되므로, 결국 보행이 불규칙하고, 갑자기 움직이며, 뒤엎키게 된다.



4. 구축 보행

만약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거나, 관절의 병리적 상태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구축이 일어날 수 있다. 고관절의 굴곡구축으로 인해 종종 요추전만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우, 지면에 발이 닿게 하기 위해서 슬관절굴곡과 체간의 신전이 일어난다. 슬관절 굴곡 구축이 있는 환자는 건측 다리가 최종 유각기에서 초기 입각기를 자나는 동안 족관절을 지나치게 배측굴곡 시키며, 환측다리의 최종 입각기시 발뒤꿈치를 일찍 들어 올리게 된다. 저측굴곡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슬관절의 과신전, 고관절 굴곡 그리고 체간의 전방굴곡을 일으킨다. 또한 환측 다리의 발뒤꿈치를 일찍 들어 올리게 된다.

5. 침족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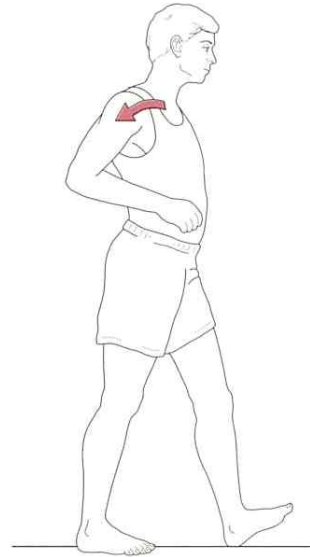
이러한 어린이 식의 보행패턴은 내반 침족시에 볼 수 있다. 체중부하는 일차적으로 발의 배외측이나 외측 가장자리로 받게 되는데, 이는 기형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환측 다리의 체중부하시기는 감소하고 절룩거리는 보행이 나타난다. 골반과 대퇴골은 외회전되어 경골과 발이 내회전된 것을 부분적으로 보상한다.

6. 대퇴사두근 보행

대퇴사두근이 손상되었다면, 환자는 체간과 하지에서 보상작용을 한다. 체간을 전방굴곡시키고 족관절을 강하게 저측굴곡하여 슬관절을 신전시킨다. 만약 체간과 고관절 굴곡군, 족관절의 근육들로 이 동작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환자는 손을 이용하여 슬관절을 신전시킨다.

7. 대둔근 보행

고관절의 일차적 신전근인 대둔근이 약한 경우, 환자는 초기 접축을 할 때 딛고 있는 다리의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 흉곽을 뒤로 밀게 된다. 결국 보행은 체간을 뒤로 젖히고 걷는 특징을 보인다.



8. 중둔근 보행

만약 고관절 외전근이 약하면 입각기동안 이 근육들에 의해서 제공되던 안정성이 상실된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딛고 있는 다리의 위로 중력중심을 유지시키기 위해 흉곽을 외측으로 밀게 되어 결국 몸이 과도하게 외측으로 기울어진다. 또한 트렌델렌버그 징후가 양성으로 나타난다. 만약 양쪽 중둔근이 모두 약해지면 보행시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들거리는’ 보행이나 ‘합창단 흔들기’식으로 보행한다. 이러한 보행은 또한 고관절의 선천성 탈구나 내반고 환자에게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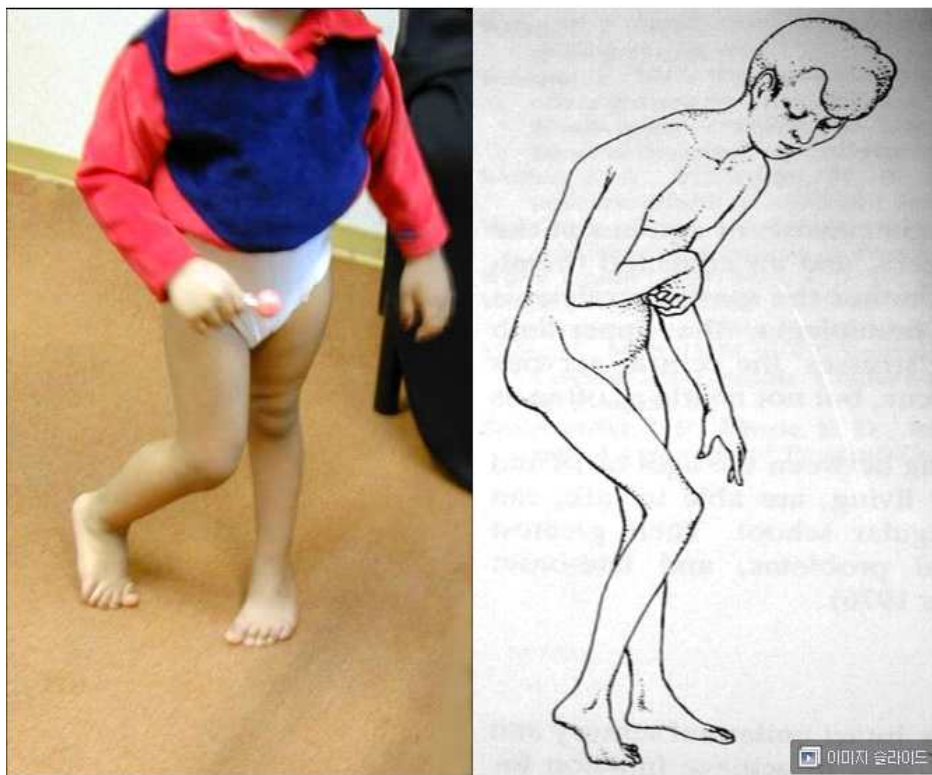


9. 저측굴곡근 보행

만약 저측굴곡근이 그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족관절과 슬관절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한 저측굴곡근의 기능상실로 인해 발끝밀기가 감소되거나 없어진다. 입각기의 기간은 줄어들려, 건측의 한 걸음 길이는 짧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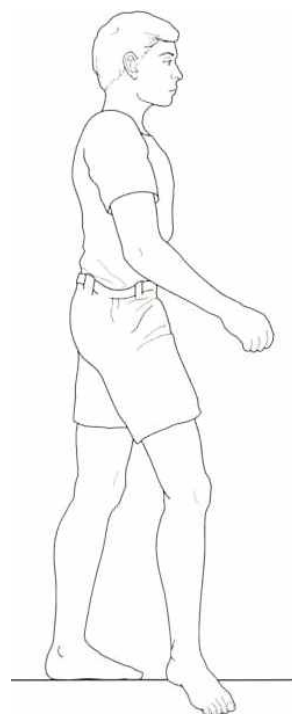
10. 편마비 또는 편측 부전마비 보행

편마비 또는 편측 부전마비 보행을 하는 환자는 마비된 다리를 전외측 방향으로 원을 그리거나 앞으로 밀면서 걷는다. 또한 균형을 잡기 위해 환측 상지는 체간을 가로질러 반대쪽에 놓는다. 때때로 신경원성 또는 이완성 보행이라 불린다.



11. 요근성 파행

요근성 파행은 레그-칼베-페르테스 병에 의해 고관절이 손상된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환자는 스윙-지나치기에 어려움을 보이며, 체간과 골반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파행이 나타난다. 파행은 대요근의 억제성 반사나 근력약화에 의해 발생된다. 이 파행의 일반적인 양상은 고관절의 외회전, 굴곡, 외전이다. 환자는 대퇴부의 굴곡을 돕기 위해 골반과 체간을 과도하게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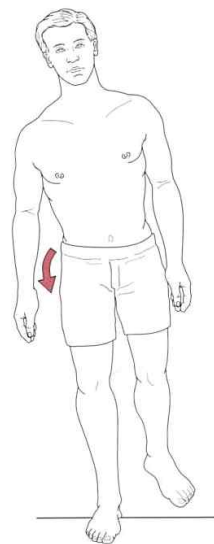
12. 가위 보행

고관절 내전근의 경련성 마비로 인해서 양 무릎이 서로 끌어당겨지게 되므로, 환자는 매우 힘들게 다리를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걷게 된다. 이것은 경직성 대마비 환자에게서 볼 수 있고, 신경원성 또는 경련성 보행이라고도 불린다.



13. 짧은다리 보행

만약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거나, 다리의 뼈 중 하나에 기형이 있다면, 환자는 몸을 환측으로 기울이게 되며, 환측의 골반이 아래로 기울어져 절룩거리게 된다. 또한 하지의 길이를 늘이기 위해 환측의 발을 회외시킨다. 환자는 유각기 동안, 다리를 지면에서 들기 위해서 건측 다리의 관절들을 과도하게 굴곡시키거나 고관절을 거상시킨다. 이때 두 다리의 체중부하 기간은 같을 것이다. 적절한 신발 등을 착용하면 보행은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이 보행은 또한 무통성 골원성 보행이라 부르기도 한다.



14. 계상 또는 족하수 보행

계상보행을 하는 환자는 족관절 배측굴곡근의 약화나 마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족하수를 일으킨다. 발가락이 지면에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자는 슬관절을 정상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린다. 이러한 환자들은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근이나 말초신경 또는 근육이 손상되어 족관절 배측굴곡에 대한 조절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초기 접촉시 발로 지면을 때리듯이 내려 놓는다.



언어치료 가정지도 방법



팀 명	재활치료2팀
일 시	2013년 9월 3일 ~ 9월 23일
담 당	권윤해, 김가인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 가정지도 방법

1. 가정에서의 구문지도

1) 모델링(시범보여 주기)

모델링은 구어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때 구어자극은 아동의 구어수준이나 조음 수준을 고려하여 주는 것이 좋다.

예) 아동이 2어문 이상을 모방하지 못 할 경우 모델링은 2어문이나 3어문 수준이 적당하다. 너무 긴 문장을 제시함으로 아동의 모방의도를 상실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문(1)

아동: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빵-빵”

엄마: (차를 밀어주면서) “차 민다(차 간다. 차가 빵-빵, 정수 간다, 빨리 가자).” ○
“차가 빵-빵 빨리 가게 엄마가 밀어 줄게.” ×

또한, 조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아동이 조음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다.

2) 액센트나 억양사용하기

아동에게 너무 긴 음절수의 단어를 모방하게 할 때에는 적당한 길이의 음절에서 중간을 액센트나 억양을 주어 아동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예문(2)

안녕히계세요. ×

안녕히 계세요. ○

3) 확대하기

확대는 문장을 완성하거나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위해 아동이 빠뜨린 동사, 조사, 전치사 등의 몇몇 단어를 더 첨가시켜 줌으로서 아동이 말한 것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예문(3)

아동: “우유”

엄마: “우유 마셔요.”

아동: “누나 밖에”

엄마: “누나 밖에 있어.”

4) 확장하기

확장은 단지 문법적인 삽입만을 두지 않고 의미론적 정보를 제공한다.

예문(4)

아동: “아기 울어”

엄마: “그래. 아기 배고파서 울어. 엄마가 우유 줄게”

아동: “피 나”

엄마: “피 나네. 아프지. 약 발라야겠다”

이때, 모방을 유도하는 데에는 목적을 두지 않는다. 아동이 한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5) 교정하기

아동의 잘못된 조사사용, 시제사용, 동사사용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예문(5)

아동: “아기 접시 깨졌어요”

엄마: “아기가 접시 깼어요. 라고 해야지” “아기가 접시 깼어요”

아동: “아기가 접시 깼어요.”

이때, 지나친 교정은 자신감을 뺏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자기-교정하기

이 방법은 아동과 말을 하는 동안, 아동의 잘못된 부분을 부모가 한 번 그대로 틀리게 말한 후 바른 형태를 다시 들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오류를 범한 후 다시 교정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자기-교정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예문(6)

아동: “삼촌 왔어요.”

엄마: “삼촌 왔어요 가 아니지. 삼촌 올꺼예요”

이때 언어표현시 틀린 부분과 함께 바른 부분을 동시에 제시해 줌으로서 정오의 판단력을 길러준다.

7) 문장 완성하기

문장 완성하기는 어머니가 먼저 문장의 일부분을 말해주고 아동이 나머지 뒷부분을 스스로 완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문(7)

아동: (아동이 장난감 자동차에 인형을 태우고 있다)

엄마: “인형이 뭐하지? 인형이 차 _____”

아동: “인형이 차 타요.”

2. 가정에서의 과제지도

1) 과제지도의 중요성

치료실 밖에서 아동의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치료사들은 어머니에게 과제를 주어 전이과정을 수행하게 합니다.

언어치료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실이라는 공간의 한정되어 있으며 아동들에게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치료시간 역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분 동안의 치료시간동안 치료사는 최상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아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속적인 언어자극을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가족의 역할은 치료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2) 과제지도는 어떻게 할까요?

▶ 치료사의 지시에 잘 따라 주세요.

가끔 어머니들 나름대로 과제를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꾸준히 해주세요.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으면 그 만큼 아동의 향상속도는 늦어집니다. 이것은 아동, 치료사,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제지도의 실제

변별짝	차이가 큰 것 ⇒ 차이가 작은 것
흥미유발	알고 있는 것 ⇒ 모르는 것
점진적 접근	발달단계가 낮은 것 ⇒ 높은 것
용암법	서서히 자극(힌트)을 줄여나가기
질문에 대답하기	누구, 뭐, 어디 ⇒ 어떻게 ⇒ 언제 ⇒ 왜
지시따르기	한가지 사물 + 한가지 동사 ⇒ 두가지 사물 + 한가지 동사
	한문장 지시 ⇒ 두 문장 지시
	가까운 공간 ⇒ 먼 공간

-1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충분히 걸어주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바로 촉각을 통한 첫 번째 학습이다. - 일부러 젖꼭지를 아기의 얼굴의 여기 저기에 붙여주면 아이는 공간 조정 능력을 빠르게 배워 상하, 좌우 감각을 몸에 익혀간다.
- * 1주일이 지나면 20cm 거리의 사물을 볼 수 있고 큰 소리에 반응을 나타내면서 깜짝 깜짝 놀라기도 한다.
- * 좌, 우로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는 등 주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 * 피부와 혀가 잘 발달되어 있어 단맛을 좋아하고 시고 쓴맛을 주면 얼굴을 찌푸리면서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 단물, 짠물, 신물 등을 수건에 적셔서 맛보게 하면 미각에 좋은 자극이 된다.
- * 여러 가지 냄새를 맡도록 해 주면서 키우면 후각이 발달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 * 울음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아기의 유일한 의사표현이기에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어 애정을 확인해줘야 한다.
- * 아- 우 등의 긴 모음을 소리낸다.
- * 손과 발의 이름을 말해 주고 기저귀를 갈아 줄 때도 말을 걸어 준다.
- * 자장가를 불러 주며 아기를 안고 주변을 돌아다닌다.
- * 아기는 색의 대조와 형태가 확실한 흑백 모빌에 흥미를 느끼므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걸어주며 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 * 빨간색의 큰 글씨로 쓰여진 문자표를 걸어두면 어릴 때부터 글자에 친숙해진 아이는 글자 를 보면 즐거워하는 아이로 자란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하지만 하루 종일 들려주면 청각이 둔해진다.
- * 음의 고저가 심하지 않은 조용한 음악을 1회 15분 정도로 하루에 30분씩 매일 들려준다.
- * 얼굴을 쳐다볼 수 있기에 웃어 보이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애정을 길러야 한다.
- *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색채를 풍부하게 해주어야 한다.
- * 밝은 색의 장난감이나 아름다운 화초로 주변을 장식하고 아기 주위에 명화를 붙여준다.

- 2 개월 -

1. 언어, 인지적 발달

- * 귀 가까이에서 딸랑이를 울려서 청각의 발달을 도모하고 보통 말, 청소기 소리, 그밖에 생 활음 등에 익숙해지게 한다.
- * 아기를 안고 방안을 거닐며 가구나 주변 사물의 이름을 매일 같은 방향 같은 순서로 반복 하여 들려준다.
- * 바깥 경치를 보이면서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듯 자세히 말을 들려준다.
- * 높낮이가 있는 웅얼이를 하며 목소리에 반응한다.
- * 아기가 울 때 태교시를 들려준다.
- * 몇 가지 소리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고 특히 자주 접하게 되는 엄마의 목소리와 다른 사 람의 목소리를 구별하게 된다.
- * 아직은 일반적인 크기의 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15cm내외의 책이 적당하다.
- * 시각발달을 위한 흑백무늬 초점 맞추기 책이 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기에게 TV를 보이지 않도록 한다.
- * 아기가 울 때는 자장가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데 한번에 30분 이상은 들려주지 말 고 한가지 악기보다 여러 가지 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교향곡이 좋다.
- * 아기 주변에 명화를 걸어주고 꾸밈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 준다.
- * 수유 후 30분-1시간 정도 같이 놀아 주고 나서 홀로 조용히 노는 시간을 준다.
- * 기저귀감은 무늬 있는 천으로 한다.
- * 아기와 스킨십을 많이 하여 감각 기관에 자극을 준다.
- * 엄마의 눈동자나 유두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 * 엎어 재우면 자칫 코가 막혀 영아 돌연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는 뉘워 재 우거나 옆으로 재우는 것이 좋다.

- 3 개월 -

1. 언어, 인지적 발달

- *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상대가 되어 준다.
- * 명화를 보이면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 신체 각 부위의 이름을 말 해 주고 집안의 사물을 이야기 해 준다.
- * '아', '어'등의 모음으로 웅알이를 시작하고 소리를 내어 사람을 부르고 자신의 기분을 표현 한다.
- * 아기와 눈을 맞추면서 구령을 붙여 리듬감도 키운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기와 눈맞춤을 하고 대화하면서 젖을 먹인다.
- *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얼르면 웃고 누구에게나 웃음으로 반응하는 시기이다.
- * 친근한 목소리와 낯선 목소리를 구별하여 친숙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조용해지기도 한다.
- * 손을 움직여 입에 넣고 빨고 수시로 손가락을 입에 넣는데 아기가 손가락 빨기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하게 해준다.
- * 아기와 스킨십을 자주 가져 아기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 * 햇볕의 자외선이 뼈의 발육을 도와 구루병 등을 예방해 주고 아기 기분 전환에도 좋다.

- 4 개월 -

2. 언어, 인지적 발달

- * 공원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조용한 자연의 소리를 들려준다.
- * 좋은 그림 앞에 데리고 가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다.
- * 욕조에 데리고 들어가서도 충분히 말을 걸어 준다.
- * 아기의 이름을 멀리서 불러 주어 엄마의 모습을 찾게 한다.
- * 여러 가지 장난감을 주어 각 물체의 모양과 크기와 감촉과 부피가 천차 만별임을 알도록 해 준다.
- * 아이를 안고 집안을 거닐며 가구명칭을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친다.
- * 웅알이에 대해 대꾸를 해 주어 더 많은 웅알이를 유도함으로써 응답 훈련을 시킨다.
- * 아, 어, 오, 우, 이 등의 후두음 발성을 유도한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놀이를 통해 아기와 함께 웃고 장난을 침으로써 유머 감각을 길러준다.
- * 동물 장난감을 주어서 동물에 대한 친근감을 길러 준다.

- * 아기에게 대꾸할 때는 되도록 과장된 반응을 보여준다.
- * 산보를 하며 아이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 경치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말을 해주어야 한다.

-5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소리에 민감해진다.
- * 신체 부위, 가구, 동물, 탈 것 등의 이름을 가르친다.
- * 좋은 시를 낭독해서 들려주고 그림책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해 준다.
- * 경치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
- * 자장가 등 여러 가지 노래를 불러 준다.
- *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을 구별하므로 칼라 모빌을 달아준다.
 빨간색 : 적극적인 사고와 자립심을 키워줌
 노란색 : 정서안정과 원만함을 키워줌
 파란색 : 명량함과 호기심을 키워줌
 초록색 : 신중함과 진지한 사고를 키워줌

2. 사회, 정서적 발달

- * 놀이 상대가 되어 주어 노는 것을 좋아하게 한다.
- * 무엇이 나올까 놀이를 해주어 아기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높여주자.
 예) 아기가 흥미를 보이는 물건들을 보여준 다음 원통 속에 넣었다가 기울여서 반대편 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반복해 보여준다.
- * 딸랑이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 * 딸랑이는 던지거나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도록 견고하고 무독성이어야 하며 소리는 자극적 이지 않아야 한다.
- *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다.

-6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엄마, 아빠 목소리를 잘 구별할 수 있다.
- * 감정의 표현도 풍부해진다
- * 복잡하고 폭넓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 웅얼이는 점차 유아어로 바뀌어간다.

- * '엄마, 아빠'와 같은 익숙한 말은 혼자서도 곧잘 할 수 있게된다,
- * 칭찬이나 꾸중과 같은 간단한 말을 알아듣는 놀라운 발전을 보인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엄마와만 단둘이 지낸 아기라면 낯가림이 유달리 심해진다.
- *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린다.
- * 낯가림이 유별나게 삼한 아기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한다.

-7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언어를 발달시키는 주요시기이므로 충분하게 대화의 상대가 되어 준다.
- * 웅알이에서 유아어로 조금씩 발전하기 때문에 엄마, 맘마 같은 말은 명확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곧잘 하기도 한다.
- * 아이 앞에서 움직이는 장난감을 작동시켜 준다.
- * 딸랑이를 흔들어서 눈으로 쫓도록 한다.
- * 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물에 흥미를 갖게되고 중뇌를 자극하여 언어 발달과 지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

도리도리짝자궁 : 목운동에 좋다.

곤지곤지짝자궁 :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워준다.

잼잼 : 손가락 근육을 발달시킨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쉬운 멜로디의 곡을 들려준다.
- * 스킨십을 해 주면 아이의 정서가 안정되어 현명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 * 유모차를 태우는 것 보다 팔에 안고 걷는 것이 스킨십에 좋다.
- * 사람을 알아본다.
- * 슬프다, 기쁘다 등의 복잡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다.
- * 창을 열어서 식물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 * 엄마와 단둘이 있는 아기라면 낯가림이 유달리 심해진다.
- * 소리나는 장난감을 두드리기를 좋아한다.
- * 오뎅이는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자극하는 데 필요하며 순간집중력이 향상되는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 * 엄마와 함께 공놀이를 한다.

- * 큰 상자에 작은 상자를 끼워 넣거나 상자 뚜껑을 닫는 놀이를 한다.

-8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그림책이나 도감을 보여 준다.
- * 엄마가 내는 음을 따라한다.
- * 형(오빠), 누나(언니)등 가족 관계의 이름을 가르친다.
- * 서, 앉아, 손 씻어 등 동작어를 가르친다.
- *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와 같은 행동과 말을 가르쳐준다.
- * 기억력이 생기면서 흥내내기도 잘하게 되는데 아기와 눈을 마주치고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 말은 서툴지만 말귀는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된다.
- * 칭찬이나 꾸중과 같은 간단한 말을 알아듣기도 하면서 발전을 보인다.
- * 장난감 숨바꼭질 놀이는 순간기억력을 더욱 개발시키는 놀이라 좋다.
- * 종이를 구기거나 찢는 놀이는 양손과 손끝을 잘 쓸 수 있는 연습이 되므로 두뇌 계발에도 좋아 마음껏 하게 한다.
- * 쥐면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 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서 소리를 내는 것을 보여 주면 좋다.
- * 레코드로 세계 각국의 자장가를 들려 준다.
- * 까꿍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한다.
- * 자기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나 입에 넣어 탐색 하므로 아기 주위에 위험한 것은 두지 않도록 한다.
- * 아기가 가족을 알아보는 시기가 되면 반작용으로 낯선 사람에 대해 불안을 보이며 무서워서 울어버리는 아기가 많은데 이때 품안에 꼭 안아주면서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준다.
- *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강하게 저항한다.

-9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잼잼잼, 도리도리 등의 반복 놀이를 시킨다.
- * 유아 TV프로그를 조금씩 보여주고 노래가 들어간 녹화 테이프를 보여준다.
- * 색깔이 있는 실로폰을 두드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음계를 익히게 된다.
- * 그림 카드로 말을 가르치는데 실물과 대조시키며 가르친다.
- * 짧은 문장의 그림책을 보여주며 읽어주어 시각과 청각을 자극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웃사람들과 접하게 하고 자연과도 접하게 해 준다.
- * 놀이터나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 준다.
- *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준다.
- * 물놀이를 통해서 불안한 정서를 발산시키도록 해 준다.
- * 아기 때부터 청결한 습관을 길러 준다.
- * 방에 달려 있는 놀이기구를 치우는 모습을 직접 보여 준다.
- * 실제 동식물을 자주 대하게 하여 그에 적응시킨다.
- * 큰 상자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서 꺼내거나 집어넣기를 하며 놀게 한다.

-10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아, 어, 오, 우, 이 등의 모음을 발음하여 들려준다.
- * 거울을 보면서 엄마와 이야기를 한다.
- * 신체의 각 부분을 이해해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가르친다.
- * 문자표 앞에 데리고 가서 글자를 한자씩 가르친다.
- * 그림 카드를 4-5장 놓고 말하는 것을 집도록 한다.
- * 그림 동화를 매일 읽어 주도록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동요나 명곡을 들려준다.
- * 아이가 익숙하지 않은 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해서 살펴본다.
- * 다양한 음을 구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한다.
- * 엄마를 흉내내어 손뼉치기, 문지르기, 주먹 쥐기, 엄지 세우기 등을 따라해 보게 한다.

* 위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위인의 성장과정 업적과 일대기를 들려주어 그에 적응시킨다.

-11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막대기를 손에 쥐어 주고 세면기나 공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드려 보게 한다.
- * 앉아서 엄마와 함께 공 던지기 놀이를 한다.
- *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서 들려주고 그 동물이 그려진 카드를 집게 한다.
- * 대화를 많이 한 아기는 음머음머, 멍멍, 짹짹 등의 소리를 내는데 아직도 못 내면 대화를 더 많이 한다.
- * 아기와 얼굴을 맞대고 아아어어오오우우으이 등의 모음을 발음하여 들려준다.
- * 짧은 문장의 그림책을 읽어서 들려준다.
- * 일정한 크기의 적목을 쌓고 허물며 놀게 하며 구체물을 통해 양의변화를 느끼게 한다.
- * 처음 보는 장치가 달린 장난감을 주고 그 반응을 살펴본다.
- *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여 준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야외, 밤하늘에 별과 달도 보여준다.
- * 전통 음악을 들려준다.
- * 여러 가지 악기 음을 들려준다.
- * 장난감 주고받기 놀이를 한다. - 받았을 때는 엄마가 고맙습니다. 하고 줄 때는 아기에게 주세요 라고 내밀게 한다.
- * 블록 놀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다.
- * 아이 주위 환경을 깨끗이 정돈한다.

-12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신체 부위 명칭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의 이름을 다시 가르친다.
- * 동요내용의 그림을 연상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동요 테이프를 들려준다.
- * 동물의 우는소리와 함께 의성어를 들려주며 동물 그림을 보여준다.
- * 동물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해 부모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게 한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 * 매일 데리고 나가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이웃 사람과도 이야기하게 한다.
- * 시화작품을 걸어놓고 하루에 2-3차례씩 낭독해 준다.
- * 아기의 주변을 항상 아름답게 장식하고 정리한다.
- * 장난감 다루는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르쳐 준다.
- * 아이의 눈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고 엄마가 지시하는 물건을 집도록 한다.
- * 엄마의 흉내를 내도록 한다. 나무토막을 높이 쌓게 한다.

-13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그림 동화책을 매일 일정 시간 읽어준다.
- * 아기의 모험심은 주위환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 *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 하거나 가스레인지에 다가가면 곧바로 안 된다고 말하고 이유를 설 명 해주어 금지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 아기 손이 닿지 않게 하려고 모든 물건을 치우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 * 가능한 위험한 살림도구나 의약품 등은 높은 곳에 두어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동작 용어를 많이 들려준다.
- * 실내외에서 심부름을 통해 실행하게 한다.
- * 상자, 통, 냄비와 같은 것 속에 여러 가지 장난감을 숨겨서 찾게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엄마의 영역을 서서히 침범한다.
- * 아기는 음식으로 여러 장난을 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사물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된다.
- * 이 때 식탁에 방수포를 씌워 이 학습과정을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인형이나 동물 장난감을 주어 놀게 한다.
- * 유원지 등에서 어린 형과 누나들 옆에서 놀게 한다.
- * 고운 성악을 들으며 엄마와 함께 따라 무른다.
- * 인간적인 회로애락을 표현한다.

1. 언어, 인지적 발달

- * '내 것' 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
- * 아기는 "이 것은 엄마꺼니까 만지지마" 라며 엄마가 화내는 것으로 엄마 것과 자기것을 구별하는데 순전히 엄마를 통하여 배운 것이다.
- * 자루 속에 물건을 10가지쯤 넣고 1개씩 꺼내면서 그 이름과 용도를 가르친다.
- * 피리, 나팔, 하모니카 등 소리나는 장난감을 준다.
- * 간단한 명령을 내려 간단한 동작을 하게 한다.
- * 자신을 '아기'라고 부르며 3인칭을 사용한다.
- * 아기는 다른 아기가 지나가거나 책에서 아기 그림을 발견하면 "아기다" 라며 반가워서 흥분된 목소리로 외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이제는 아기가 물면 아프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 * 자기 장난감에 손을 대거나 엄마 곁에 있는 아기한테 달려들어 할퀴고 무는 것은 이미 아기가 그 효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 * 이럴 때는 어리니까 하면서 지나치지 말고 야단을 쳐야 하지만 때리는 벌은 아기의 공격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므로 피한다.
- * 장난감을 스스로 꺼내서 놀게 한다.
- *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습관화한다.
- * 아이가 떨어져 있으려 하거나 혼자 걸으려고 하면 지켜본다.
- * 아기는 엄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라도 하고 있으면 금방 질투가 나 화를 낸다.
- * 엄마는 술래잡기, 숨바꼭질 놀이를 하며 놀아 주는데 가능한 신체 접촉을 많이 한다.
- * 시화 작품을 걸어 놓고 하루 두세 차례씩 낭송한다.

-15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아기는 단어 하나로도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만족하며 단어를 아낀다.
- * 그림카드를 여러 장 늘어놓고 지적놀이를 통해 카드를 집게 한 다음 다시 확인해 준다.
- * 여러 가지 동물 그림을 보이며 우는소리를 흉내내 보게 한다.
- * 동요나 영어 테이프를 반복해 들려준다.
- * 기본 음절 표를 하루 한 줄씩 반복해서 가르친다.
- * 하루에 4-8장이 사물 카드를 가르쳐도 좋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여행에 데리고 다니며 풍성한 인상을 새겨 준다.
- * 역사 인물이나 위인의 사진을 자주 대하게 한다.
- * 아기는 어른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
- * 아이는 장난감 던지기를 좋아하며 차츰 끌고 밀고하는 것을 좋아한다.
-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 * 이제는 아기가 물면 아프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 * 아기는 때를 쓰며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는데 이 때는 엄마 대신 아빠가 아기를 재우는 것도 좋다.
- * 자기 장난감에 손을 대거나 엄마 곁에 있는 아기한테 달려들어 할퀴고 무는 것은 이미 아기가 그 효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 * 장난감을 스스로 꺼내고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 * 주전자나 컵에 물을 넣는 일을 시킨다.

-16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아기는 말이나 행동으로 싫다는 표현을 한다.
- * "아니"라는 말과 표현으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힘을 발견한다.
- * 이 힘을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 * 억지를 부릴 때는 정말 싫다는 것보다는 단지 자신의 자율성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 * 상자, 통, 냄비 같은 것 속에 장난감을 숨겨서 찾게 하고 무엇인지 말하게 한다.
- * 색깔 이름을 가르친다.
- * 주변 사물을 통하여 기본 도형을 가르친다.
- * 그림책, 그림 카드 등으로 여러 명사를 가르친다.
- * 카드의 그림을 보고 이것은 무엇인가 물어본다.
- * 반복하여 매일 그림책을 읽어 준다.
- * 여러 가지 동물 그림카드를 보여 주고 울음소리를 흉내내게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이의 인상을 풍부하게 해준다.
- * 밭, 새, 가로수, 신호등, 차, 꽃 등등 주변의 지식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 * 4B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주어 종이 위에 마음껏 그려보게 한다.
- * 엄마를 따라 동요를 부르게 한다.
- * 아기는 주위의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모두 흉내내는 것을 좋아한다.
- * 블록 놀이 후에 엄마와 함께 뒷정리를 한다.

-17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엄마 명령에 순종해 심부름을 잘 한다.
- * 엄마가 기뻐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아기는 자랑스러워한다.
- * 색깔 명, 도형 등의 모양을 계속해서 가르친다.
- * '하나' 와 '많다'의 구별이 가능하다.
- * '하나 더'를 안다.
- * 아기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 *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림책으로 끊임없이 언어 자극을 준다.
- * 적목 그림의 이름을 가르치고 부분 명칭도 가르친다.
- * 새, 거리, 자전거, 신호등, 밭 등등 가능한 한 충분한 인상을 주어 주변의 지식을 확대 시키는데 노력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타악기를 두들겨 보게 하여 리듬에 적응시킨다.
- * 여러 종류의 악기 음을 들려주어 악기의 이름과 음색을 이해시킨다.
-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가르친다.
- * 인사말 카드나 그림책을 이용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친다.

- * 간단한 일을 혼자 해낸다고 좋아 하게 될 썸 아기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물건들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며 화를 낸다.
- * 아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한다.

-18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한 단어로 말하던 아기가 이제는 두 단어를 연결하여 말하게 된다.
- * 아기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일은 없다.
- * 아직은 흐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해 현재, 미래, 과거를 발견한다.
- * 색을 가르치며 명암, 차가움, 따뜻함 등을 가르친다.
- *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가르친다.
- * 실물로 보기 어려운 사물의 이름을 그림으로 가르친다.
- * 그림 카드를 보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 * 이미 알고 있는 말의 반대말을 그림 카드를 보이면서 가르친다.
- * 좋은, 나쁜 등의 형용사나 여기, 저기 등의 부사 그리고 대명사를 배운다.
- * 아기는 책 읽는 억양으로 자기에게 말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 * 사물의 이름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가리킬 줄 안다.
- * 아기는 모든 용어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야기의 전반적인 의미는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 *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많이 들려준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이는 배설물을 자기 일부라고 생각해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망설인다.
- * 아이가 배설을 하자마자 버리는 것을 자제하고 자신이 직접 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 밥을 떠 먹이지 말고 스스로 먹게 한다.
- * 모래 장난, 찰흙 놀이를 시킨다.
- * 유원지, 야외 등에 매일 데리고 나간다.
- * 유아원, 놀이터에 나가서 다른 아이와 놀게 한다.
- * 모두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 * 아기의 행동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인다.
- *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낼 때 도와주려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릴 때는 자기 방에 들어가 화가 가라앉으면 나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19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물감이나 찰흙 만들기 등 서로 녹아서 섞이는 색깔 놀이를 좋아한다.
- * 그림책이나 그림 카드의 그림을 지적하여 무엇인지 말하게 한다.
- *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의 모양을 가지고 같은 모양끼리 분류하여 본다.
- *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동물의 이름을 많이 알려준다.
- * 신체 각 부위의 이름을 묻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하거나 대답하게 한다.
- * 아기는 30가지 정도의 단어를 말 할 수 있다.
- * 그림책을 한 장씩 넘기게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세숫물을 떠 주지 말고 스스로 세수하게 한다.
- *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한다.
- * 자기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발견하고 신기하게 생각해 자주 만지며 장난을 치게 된다.
- * 아이는 다른 신체부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것이므로 대소변 가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장난도 혼자 있을 때 방에서 하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 * 소꿉장난, 숨바꼭질을 하고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친절해야 함을 가르친다.

-20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사용하는 언어가 풍부해진다.
- * 아이가 말하는 것이 어설피다고 해서 엄마가 덩달아 아이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 * 아이의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데는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다.
- * 반복하여 들려 준 말을 아이에게 따라 말하게 한다.
- * '나' 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 * 글자 블록이나 글자 퍼즐로 낱말을 가르친다.
- * 1,2,3,4,5,.....의 숫자를 반복해서 가르친다.
- * 사진이나 그림, 실물을 통해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알려 준다.
- *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블록끼리 골라 보게 한다.
- * 상자 속의 여러 장난감의 이름을 말하며 집어내게 한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등을 말할 수 있게 한다.
- * 밥 먹기 전후나 용변을 본 후에 손 씻는 습관을 길러 준다.
- * 즐겁게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등을 말할 수 있게 한다.
- * 밤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잠자기 전에 책을 항상 읽어 주어서 밤에 항상 반복되는 일종의 의식을 만들어 주면 엄마와의 이별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적응된다.
- * 잠들기 전 아기가 편안함을 얻는다는 보통 20분 정도가 필요하다.

-21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아이는 끊임없이 명령하고 그 명령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 * 이럴 때는 제멋대로 하게 두지 말고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 간단한 카드놀이를 시킨다.
- * 그림 카드를 통해 글자를 익히게 하며 무리하지 않게 하루 2-4장씩 가르친다.
- * 영어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좋다.
- * 1-10까지의 수를 손가락으로 세어 보고 손가락 인형 놀이를 한다.
- * 그림 동화책과 영어 동화책을 읽어 준다.
- * 재울 때에 반드시 이야기를 들려준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 * 자기 소유물을 아끼고 나름대로 정리하며 지킨다.
- * 마루에 걸레질을 시키고 끝난 후에는 칭찬해 준다.

-22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120 단어 정도 말한다.
- * 말하는 게 재미있어 화내는 것도 잊어버린다.
- * 더 이상 아이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다.
- * 아이는 생활에서 겪은 일이나 책에서 들은 이야기 아니면 직접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 * 그림 카드 등의 수를 늘려서 글자를 익히게 하고 숫자 카드도 활용한다.
- * 1부터 10까지의 수구창을 가르친다.
- * 보아온 사물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게 한다.
- * 좌우 방향도 가르치고 악수는 항상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가르친다.
- * 대화나 동화를 테이프로도 들려준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침에 일어나면 배게 따위를 정돈하게 한다.
- * 장난감을 상자 속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서 간수하게 한다.
- * 슈퍼마켓에 데리고 가서 진열된 상품들을 보여주고 물건 이름을 말하여 가져오게 한다.
- * 위험한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친다.

-23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일부러 아니라고 한다.
- * 동물의 왕국 등 자연의 세계를 보여주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하루 20-30분 정도 TV를 시청하게 한다.
- *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연습시킨다.
- * 목욕을 시키면서 신체의 부위를 자세히 가르치고 개수도 세어 보게 한다.
- * 숫자 1과 2를 구별 할 수 있게 된다.
- * '길다'와 '짧다'를 안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제 물건을 제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한다.
- * 상자, 공, 바구니 등을 정해진 곳으로 운반하게 한다.
- * 사용한 장난감은 치우게 한다.

-24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300단어 정도 말한다.
- * 소변을 보고 싶다는 뜻을 하소연하게 된다.
- * 이야기를 상상해내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며 잘 한다.

- *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
- * "더우니까 옷을 벗자" 등의 여러 가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많이 가르친다.
- * 엄마의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엄마의 말을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다.
- * 많은 사물을 구별하고 이름을 기억한다.
- *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도형 구별이 가능하다.
- *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말 할 수 있다.
- * 반대어를 많이 가르친다.
- * 3개의 밥공기 밑에 구슬을 감추고 어디에 있는지 맞히게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서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 * 아이가 밥을 남기려 할 때는 다 먹도록 도와준다.
- * 스스로 정리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 준다.
- * 주는 것을 가르쳐 주어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 * 친구 만들기에 관심을 보인다.
- * 자연스럽게 가정생활에 적응한다.

▣ 놀이를 통한 언어기능 촉진 프로그램

1. Program의 내용

;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다.

- 1단계 : 활성화 단계

언어이전 기능은 모방, 상호작용의도, 상징적 놀이, 주의력과 관련된 행동들로서 이러한 행동들은 적극적인 놀이형태의 개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 따라서 활성화단계에서는 아동이동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놀이 활동을 제공해준다.

- 2단계 : 촉진단계

활성화 단계에서 습득된 놀이전개 능력을 토대로 언어발달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기술인, 지시 따르기, 욕구와 요구표현하기, 질문하기, 대답하기 기능을 집중적으로 키워준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인지기능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놀이와 병행하여 인지적 과제 등이 제공된다.

- 3단계 : 일반화 단계

활성화와 촉진단계에서 습득된 기능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언어발달이 가속화 될 수 있게 부모들이 가정에서 언어지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지도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된다. 이를 위해 부모에게 가정에서의 언어지도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주고 평가해 준다.

1 ~ 2세 영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 교구 및 활동

1. 들을 수 있는 것(음악, 언어 등) : 음악소리가 나는 완구들, 딸랑이, 전축이나 카세트 녹음기, 책의 내용, 동요, 음악, 동물 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녹음 테이프, 리듬악기 (예 : 종, 북, 우드블록, 리듬막대, 탬버린, 실로폰 등), 환경음
2. 볼 수 있는 것 : 수족관, 형광, 비닐, 하드보드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든 그림책(가족과 친구, 일상생활의 경험, 과학과 자연, 오락과 공상 등의 내용), 용판 깨지지 않고 손에 들거나 벽에 부착할 거울, 눈 높이에 있는 모빌, 가족 사진, 그림(동물, 친숙한 물건) 및 벽걸이, 여러 모양으로 자른 스펀지, 테라리엄

3. 만질 수 있는 것(촉감) : 부드러운 촉감과 그림책, 부드러운 공, 상자, 치아발육용 완구, 질감이 있는 카드와 벽걸이, 유아가 안아 줄 수 있는 봉제완구
4. 블록: 크고 부드러운 블록, 큰 종이 블록, 공간 블록, 소형차와 트럭, 동물 소품(농장/동물원), 사람 소품 (가족 인형 세트와 여러 직종의 사람 인형들)
5. 조작적 장난감 : 모양 분류하기 상자, 크게 조각난 간단한 퍼즐, 레고(큰 사이즈) 튀어나오는 장난감, 큰 구슬, 크기 순서대로 끼워 넣는 상자세트, 고리 걸기, 점점 크기가 커지는 용기세트(플라스틱 국그릇이나 컵), 큰 구멍의 나무 못판과 크고 색깔 있는 나무못, 큰 나무 구슬 꿰기(큰 나무 구슬과 짧고 두꺼운 실이나 신발끈), 플라스틱 큰 구슬, 뚜껑 달린 종이 상자들, 팔주머니, 밀고 당기는 장난감, 거울(깨지지 않는 것)
6. 극화놀이 : 가방, 담요, 옷 입히고 목욕시킬 수 있는 인형, 봉제 인형, 인형 침대, 인형 유모차, 여러 가지 옷 모자, 가정놀이용품(놀이용 냉장고, 싱크대, 난로, 식탁과 의자, 놀이용 음식, 음식 담을 그릇, 냄비, 팬 플라스틱 접시, 그 밖의 가정 놀이용 기구) 작은 모형(인형집, 농장, 공항 등), 거울, 베개, 손인형, 지갑, 핸드백, 얇은 스카프, 동물 모형, 장난감 전화기
7. 창작적 놀이(미술 활동) : 비닐 깔개, 작업복, 이젤, 풀, 자르기용 잡지, 굵은 수성펜, 이젤용 물감, 손가락 그림용 물감, 물감 붓, 점토와 점토놀이 기구, 여러 종류의 종이, 모래와 모래 장난감, 무독성 색분필, 끝이 뭉뚝하고 부드러운 가위, 물감용 스펀지
8. 대근육놀이 : 여러 종류의 공, 구슬 끼우기 용품, 상자와 카드보드, 플라스틱 볼링 핀과 공, 비누 거품(방울) 자료, 낮은 오리기대, 매트, 레일용 놀이 기차, 밀고 당기는 장난감, 벤치, 경사로(ramp), 바퀴 달린 놀이기구, 고리던지기, 여러 가지 움직이는 완구들(배, 말 등), 모래 놀이대와 모래놀이 용품, 낮은 미끄럼틀, 2단이나 3단의 계단, 그네, 트럭, 터널, 짐수레

♠ 연령별 놀이 활동 ♠

2세(13개월 ~ 24개월)

신체적 독립기라고 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사고도 많이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구르기, 씨름 놀이, 계단 오르 내리기, 달리기, 공 던지기 등을 함께 하면 효과적입니다.

1. 13 ~ 14개월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 주세요!>

1) 산보하기

또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나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아이가 많이 모이는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 마음껏 놀게 하세요. 가끔씩 코스를 변경하여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하면 다소 과장되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 맨발로 걸어보기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호기심의 폭을 넓혀주고 충족시켜주세요. 엄마와 손을 잡고 맨발로 걸어봅니다. 모래와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 기분이 어떨지 느껴보세요.

3) 벤치 뒤에 숨기

벤치에 아이와 함께 앉아 까꿍 놀이를 합니다. 아이가 혼자 잘 앉으면 아이 혼자 벤치에 앉힌 후 숨어봅니다.

4) 거울 놀이

아이들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거울 놀이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엄마가 하는 인사를 따라하는 놀이를 합니다. "안녕, 좋은 아침이야."

5) 아빠와 놀래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다리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신체 발달은 아이마다 개인차가 있으나 아이들은 온몸을 움직이며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온몸 흔들기, 무릎 태우기등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놀이를 해 주세요.

2. 16 ~ 18개월 <온몸놀이와 걷기 연습을 하세요!>

1) 온몸 놀이를 해 보세요.

아기와 함께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며 아이의 운동 능력을 키워주세요. 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신 운동이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양손을 잡고 다리를 벌려 발바닥을 맞대고 앉아 아이를 그 안에 앉힌 다음 배를 타듯이 움직입니다.

2) 같이 책을 읽어요.

집에서 그림책이나 신문을 보기도 하고 근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엄마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무릎 위에 앉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무릎 위에 앉혀놓

고 함께 책을 읽으면, 아이가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3) 숨바꼭질을 하세요.

문 뒤로 몸을 숨기는 등의 숨는 놀이는 아이의 기억력을 키워주는 놀이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소리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아이의 눈앞에서 엄마가 커튼 뒤에 숨습니다. 아이는 커튼 뒤로 와 엄마를 찾고 좋아합니다. 찾으면 함께 좋아하세요.

4) 블록 놀이

손의 움직임이 많이 유연해진 시기로 손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2~3개의 블록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엄마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재미있는 체험을 하고 집중력도 기릅니다.

5) 걷기 연습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온몸을 사용하여 움직이며 노는 놀이입니다. 걷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등이나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앉아서 아이의 옆구리를 잡고 아이가 짹짹 뛸 수 있게 도와주세요.

3. 19 ~ 21개월 <균형을 잡고 걸어보세요!>

1) 수를 세며 놀아요.

입으로 수를 세면서 눈으로도 수를 쫓습니다. 손가락으로 세거나 그 개수의 사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합니다. 수세는 것을 공부하기보다 엄마와 숫자 놀이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수를 가르치기보다 놀이로 친하게 해주세요. 수를 세면서 블록을 쌓습니다. 다섯 개를 쌓으면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열 개를 쌓는 식으로 놀아보세요.

2) 많이 걸으면 균형감이 키워집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좁은 난간이나 돌 위를 걸어보세요. 익숙해지면 혼자 걷도록 하세요.

3) 그림을 그려요.

이면지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봅니다. 손목을 많이 이용하는 구불구불한 그림도 그려봅니다. 손동작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시기이므로 엄마가 앞에 앉히고 함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종이 위에 동그라미며, 네모, 세모 등을 그립니다.

4) 신나게 굴러볼까요.

구르기를 하면서 몸의 유연성도 기르고, 몸 전체로 균형을 잡거나 상황에 따라서 몸 움직이는 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엄마와 아기가 마음껏 방안을 굴러다녀 보세요. 몸과 마음이 상쾌해 집니다.

5) 눈, 코, 입 찾기

눈, 코, 입, 손 등 신체 일부를 찾고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찾으면서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찾아보게 합니다. 아이와 슈퍼에 갔을 때 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은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4. 22 ~ 24개월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1) 색 찾기

색상을 가르쳐 주고, 같은 색을 찾는 놀이는 아이에게 색깔이 서로 다른 것을 알게 해주고 색의 감각을 키워줍니다. 산보를 하면서 옷과 같은 색이 보이면 "옷과 색이 똑같네"하며 같은 색을 알려줍니다.

2) 심부름하기

귀찮더라도 아이가 엄마를 돕고 싶어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빠한테 신문 가져다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눈으로는 도와달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장난감 치우기를 할 때는 너무 세밀하게 지시하지 말고 큰 상자부터 차근차근 넣습니다.

3) 그림책 보기

아이가 쉽게 꺼내 볼 수 있는 곳에 그림책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4) 소리 주인 찾기

병이나 캔에 돌, 모래, 단추 등을 넣고 흔들어 소리를 낸 다음, 구별을 하게 합니다.

5) 바깥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요.

집안에서만 노는 것보다 집 앞 공원에라도 나가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보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 날의 날씨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 보세요.

3세(25 ~ 36개월)

신체적 독립기라고 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사고도 많이 칩니다.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구르기, 씨름 놀이,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공 던지기 등을 함께 하면 효과적입니다.

1. 25 ~ 27개월 <말로 표현할 줄 압니다.>

1)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유리컵에 물을 부어 컵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높낮이와 울림이 다른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줍니다. 또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물통이나 장난감 통 등을 귀에 대어 주고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다양한 소리와 음의 날카로움과 둔탁함 등을 비교하면서 청각을 자극합니다.

2) 함께 춤을 추어요.

엄마 발등에 아이의 발을 올린 상태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으며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스킨십을 느끼면서 엄마와 아이가 어울려 노는 놀이를 많이 하면 아이의 감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3) 숫자 도형 알아맞히기

블록이나 숫자 놀이 교구를 이용해서 3이 써진 "빨강고 세모난 모양을 찾아라"라고 한 후 찾으면 숫자 "3"을 가르쳐 준다. 색깔과 도형, 숫자까지 가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구가 없을 때는 엄마가 직접 색종이 등을 이용해 숫자 도형을 만들어 봅니다.

4) 자연과 함께 어울리기

꽃과 풀의 향기를 맡고 깨끗한 공기와 바람을 쏘이면서 편안하게 놀도록 합니다. 자연을 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놀이입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아파트 공용 녹지라도 데리고 나가 마음껏 뛰어 놀도록 해 주세요.

5) 컬러 찰흙 놀이

찰흙을 조물락거리며 아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게도 하고, 엄마가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들어도 좋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상한 모양이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8 ~ 30개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점검하세요!>

1) 말타기

엄마 등에 아이를 태우고 '따각따각' 말발굽 소리와 '히이잉' 말울음 소리를 들려줍니다. 움직임이 클수록 아이는 더 즐거워집니다. 아이에게 흔들리는 진동이 더 잘 느껴지도록 동작을 크게 해 주세요.

2) 찾기 놀이

엄마와 아이가 서로를 찾으면서 쫓고 달아나며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엄마가 술래일 때는 속도를 조절해 아이를 쉽게 잡지 않고 달아나게 해서 아이를 좀 더 많이 움직이도록 하세요.

3) 빵으로 도형 공부

간식을 먹을 때 도형의 모양을 알게 해주면 아이 혼자서 도형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아이는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물건이나 음식을 이용해 도형을 설명해 주면 더 쉽게 이해하고 인지도 빠릅니다.

4) 역할 놀이 (소꿉놀이)

아빠의 직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르칠 수 있어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이입니다. 필요한 소품은 엄마 재량 것 비슷한 물건으로 대처하면서 다양한 직업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놀이, 선생님 놀이, 소꿉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짝짓기

수의 개념을 아는 아이라면 반으로 나누기, 3등분하기 등의 개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 개념과 나누기 개념의 기초를 알게 합니다. 반으로 나눈 것을 각각 또 반으로 나누어 모두 몇 몫인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 개씩 짝짓거나, 과자를 반으로, 친구 수만큼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3. 31 ~ 33개월 <아기의 정서발달 형성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1) 모래 놀이

모래 놀이는 손동작을 많이 요하는 것이어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돕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른 모래는 잘 뭉쳐지지 않으므로 모래로 쌓기 놀이를 할 때는 미리 물통을 준비하세요. 적당히 젖은 모래라야 쌓기가 가능합니다. 성 쌓기나 구덩이 파기와 같은 놀이를 하세요.

2) 비누 방울 놀이

불기를 통해 입 운동을 할 수 있고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누방울이 금새 사라지지 않게 하고 큰 모양으로 만들려면 비누 거품 용액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면 됩니다.

3) 손바닥에 글자 쓰기

아이가 엄마가 무엇을 쓰는지 집중하게 되고 상상력과 추리력,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글씨나 그림을 써 주는 동작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고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가볍게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손에는 주로 이름을 한자씩 써주면서 한자한자 불러줍니다. 도형을 그려주고 도형을 맞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시소 타기

무게와 위치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균형 감각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시소를 내려줄 때는 아이가 놀랄 수 있으므로 너무 빨리 내리지 말고, 시소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쉬운 말로 하세요.

5) 신체 이름 알기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놀이로 아이의 몸을 토닥여주며 신체 기관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신체 기관의 이름과 기능을 가르쳐주며, 아이가 자기의 몸에 관심을 갖고 몸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신체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부위를 토닥이면서 아이도 따라하게 하세요.

6) 퍼즐 맞추기

퍼즐을 맞추기 위해 퍼즐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놀이입니다. 아이가 인내력을 가지게 혼자서 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퍼즐 맞추기에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4. 34 ~ 36개월

1) 인형 친구 놀이

아이가 기분이 좋다거나 혹은 짜증이 났을 때의 상황에 맞게 인형 친구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틈틈이 아이와 악수를 하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동작까지 곁들이며 실감나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블록 쌓기

쌓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블록을 이용해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블록류 장난감은 놀잇감이 되는 것은 물론, 세모 모양 두 개로 네모를 만드는 등의 도형과 색깔을 가르치는 교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실뜨기 놀이

손 조작이 많은 놀이를 하면서 손가락의 운동력을 기르고 눈과 손의 협응력이 좋아 집니다. 아이가 자칫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기초 동작을 충분히 반복해서 익혀 준 후에 단계를 올려 실행하세요. 아빠, 엄마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실뜨기를 옮기고 아이가 어려운 단계는 어른들이 해주세요.

4) 도미노 세우기

도미노를 세우는 과정은 극도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과정이므로 침착하게 실시하세요. CD도미노를 아이와 함께 세우려면 바닥에 수건을 깔고 세워보세요. 맨 바닥에서 보다 훨씬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CD로 도미노를 세워주고 아이가 손끝으로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세요.

5) 색깔 감각 익히기

크기와 색깔을 비교하면서 시각을 자극시키며 색감을 발달시킵니다. 기초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두뇌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알록달록한 컬러를 많이 접하게 해주세요. 컬러풀한 자동차는 금세 눈에 띕니다. "빨간색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가나 세어볼까?"하며 세도록 합니다.

I. 아동의 연령별 발달특성 및 상호작용방법

	발달특성	상호작용방법
0 ~ 1 세	· 전반적 특징: : 울기, 미소 짓기, 웅얼이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관심을 유도 · 4~5개월 – 지각 변별력이 발달하여 엄마나 돌봐 주는 사람을 응시함 · 5~6개월 – 돌봐주는 사람을 구분하고 친숙한 사람 에 게 미소 지음 · 7~9개월 –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함 · 11~12개월 – 부모, 낯익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을 뚜렷하게 구별함 – 다른 유아들이 놀고 있는 곳을 쳐다 보거나 기어가며 관심 보임	· 울기는 아기의 주된 의사 표현 방법이므로 우 는 이유를 잘 파악해서 반응한다. · 수유, 기저귀 갈기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 기의 눈을 보며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야기 해준 다. · 부드럽고 일관성 있게 대해 주도하고 양육자 가 자주 바뀌는 것을 피한다. · 다른 사람들과 접하는 기회를 가져 타인에 대 한 신뢰감을 넓히도록 한다. ·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아기가 새로운 양 육자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전 양육자와 함께 돌본다.
1 ~ 2 세	· 성인이나 손위 형제를 모방하는 놀이가 많음 · 같은 또래보다는 성인이나 자기 형제들 과 더 잘 지냄 · 같은 또래와 의견을 나누지 못하며 주로 혼자 서 놀이함 ·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임 · 간단한 술래잡기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 이 포함된 놀이를 즐김 · 독립심이 발달하여 무엇이든 혼자서 하 려고 시도함 · 초보적인 소꿉놀이를 시작함	· 성인은 유아의 모델이 되므로 성인 자신이 바 람직한 사회적 행동의 모범을 보임. ·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 혼자 먹기 등등 · 소꿉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놀이 상 대가 되어준다. → 인형 업어주기, 밥상 차리기, 블록으로 만 든 자동차 함께 타기 등

	발달특성	상호작용방법
2 ~ 3 세	•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다르게 반응함 • 양육자와의 애정적 유대가 견고해져서 새로운 상황, 낯선 사람에게 매우 민감함 •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생각함 • 같은 또래와 함께 놀고,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며 점차 놀이 친구가 중요해짐 • 타인과의 관계에서 점차 자기조절력과 통제력이 발달함 • '소유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여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구별이 형성됨. 그러나 아직은 '나누어 공유하기'의 개념이 부족하여 놀이감을 가지고 자주 싸우며 신체적인 충돌이 많음 •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위로의 표현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청하기도 함 • 차례 지키기의 개념을 약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요청하기도 함 • 가정에서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면 좋아함 • 인형이나 자동차와 같은 역할 놀이 도구를 사용하여 상상놀이(~인 척하면서 놀이하는 것)를 즐기며 때로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전화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임	•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제공하여 낯선 상황에 대해 점차 안정되고 친숙한 느낌을 갖도록 돕는다. •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기술의 모델을 보여 유아가 올바른 사회적 태도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유아들은 좌절감이나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역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곤 하므로 성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친구가 자기 놀이를 방해할 때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울기보다는 '친구야, 그러지 마. 내가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도록 알려준다. • 자립심이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서툴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고 자주 칭찬해 준다. • 상상놀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소꿉놀이 용품을 준비해주며 놀이의 상대가 되어준다. • 같은 또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같은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놀이감을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성인이 모델을 보여주거나 도와준다. - 친구가 가진 놀이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에는 무조건 뺏거나 울기보다는 '친구야, 내가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나도 같이 놀자' 등과 같이 말하도록 알려준다.

	발달특성	상호작용방법
3 ~ 4 세	• 3세경에는 혼자 놀이를 많이 하고, 상호작용이 많지는 않으나 같은 또래와 함께 놀이하자는 빈도가 점차 증가함 • 같은 또래 간의 놀이 시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성구별 없이 놀이하지만 점차 동성 또래에 대한 접근이 빈번해짐 • 차례 지키기 등의 규칙을 학습하기 시작함 • 성인의 칭찬과 승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동함 • 3세경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식별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조절하기도 함 • 상상력이 풍부해져 일상의 상황을 극화하기 좋아하고 이를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함 • 2-3명이 상호 작용하는 소집단의 놀이가 가능해짐 • 3세 경에는 복잡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편 게임은 어려움 • 4세 경에는 같은 또래와의 상호 작용이 활발해져서 함께 어울려 놀이하자는 병행 놀이와 연합 놀이가 가능해짐	•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아들이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어, 자기관리 기술과 독립심이 발달하도록 지도한다(스스로 옷 입고 벗기, 배변, 혼자서 먹기, 이 닦기, 손 씻기, 배변 관리, 장난감 정돈 등). • 아직 근육 조절이 미숙한 시기이므로 때때로 배변 실수를 하거나 음식을 흘리고 먹더라도 이해해주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 같은 또래와 놀 기회를 만들어 준다. • 3세는 아직 나누어 쓰기, 차례 기다리기 등이 서투르므로 같은 또래와 놀 때는 비슷한 종류의 놀이감을 제공해주고 서로 바꾸어 놀거나 양보해볼 기회도 준다. • 상상 놀이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극놀이용 놀이감으로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이 시기에 많이 하는 놀이의 예 엄마 아빠 놀이, 병원 놀이, 음식점 놀이, 가게 놀이, 세차장 놀이
4-6 세	•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므로 규칙을 지키고 타인을 고려하고 돕는 행동 등이 증가함	•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적절한 태도를 지도한다.

호흡 훈련을 위한 방법

1) 바른 자세 가지기

(1) 근육 훈련을 통해 긴장을 조절할 수 있다.

- ① 복부 근육의 긴장 조절하기
- ② 흉부 근육의 긴장 조절하기
- ③ 경부 근육의 긴장 조절하기
- ④ 앉는 데 필요한 근육 운동 기능 조절하기

(2) 근육 훈련을 통해 바른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 ① 복부의 바른 자세 유지시키기
- ② 흉부의 바른 위치 유지시키기
- ③ 경부의 바른 위치 유지시키기
- ④ 경부의 바른 위치 유지시키기
- ⑤ 두부의 바른 자세 유지시키기

(3) 들숨과 날숨으로 바른 호흡 패턴을 가질 수 있다.

- ①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 ②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 ③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 ④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 ⑤ 입과 코로 숨을 동시에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 ⑥ 입과 코로 숨을 동시에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2) 호흡 속도 유지하기

(1) 훈련을 통해 호흡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① 반듯이 누워 무릎 관절을 굴곡 시키기
- ② 대퇴 전부에서 복부를 압박하기
- ③ 재빠르게 신전 시켜 복부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 ④ 호흡 속도를 1분에 20회 정도 유지 반복하기

(2) 날숨과 들숨을 하며 호흡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 ① 급히 들이쉬고 천천히 또는 급히 내쉬기
- ②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또는 급히 내쉬기
- ③ 급히 들이쉬고 중간에 1번 스타카토 넣고 내쉬기
- ④ 급히 들이쉬고 중간에 2번 스타카토 넣고 내쉬기
- ⑤ 급히 들이쉬고 중간에 3번 스타카토 넣고 내쉬기

(3) 신호에 따라 호흡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 ① 손뼉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 ② 호루라기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 ③ 실로폰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 ④ 피리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 ⑤ 하모니카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3) 날숨 조절하기

(1) 깊은 들숨을 할 수 있다.

- ① 한 쪽 콧속을 막고 호흡하기
- ② 두 콧속을 막고 호흡하기
- ③ 코와 입을 막고 한참 동안 호흡 정지하기
- ④ 입과 코에서 손을 떼고 심호흡하기

(2) 날숨을 느끼게 조절할 수 있다.

- ① 손으로 숨을 확인하기
- ② 복부를 손으로 누르며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기
- ③ 복부에 손을 대고 20초 이내에 5회 이상 숨을 내쉬기
- ④ 들숨의 공기를 날숨 신호까지 참고 내쉬지 않기
- ⑤ 숨을 들이쉴 때 종이가 입에 닿게 한 후 내쉬기
- ⑥ 긴 한숨이나 긴 발성, 웅아리 등을 흉내내기
- ⑦ 촛불이 안 꺼지고 흔들리게 날숨을 조절하며 불기

(3) 숨을 내쉴 때 소리나게 할 수 있다.

- ① 손으로 복부를 눌러 손으로 호흡을 확인하기
- ② 숨을 내쉴 때 소리내기

- ③ 복부를 수축하여 호흡하고, /아-/소리를 발음하기

4) 복부 운동 제거하기

(1) 복부로 호흡하며 복부 운동을 제거할 수 있다.

- ① 사지와 몸의 긴장 풀기
- ② 손으로 복부를 밀어 주어 호흡하기
- ③ 복부를 밀지 않고 호흡하기
- ④ 1분에 30회 이내로 호흡 속도 유지하기

(2) 흉골 운동에 따라 일어나는 복부 운동을 제거할 수 있다.

- ① 흉골 하단~장골능에 벨트를 차고 호흡하기
- ② 흉골 하단~장골능에 콜세트를 차고 호흡하기
- ③ 벨트나 콜세트를 차고 날숨 호흡을 길게 하기
- ④ 벨트나 콜세트를 차고 소리를 강하게 내기

5) 호흡량 증대시키기

(1) 깃털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깃털의 움직임을 보면서 불기
- ② 깃털을 10cm 거리까지 날려보내기
- ③ 목표 거리를 늘려 가면서 날려보내기
- ④ 같은 선에서 깃털을 멀리 날려보내는 시합하기
- ⑤ 깃털을 공중에 불어서 날리기

(2) 탁구공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한숨에 길게 불기
- ② 한숨에 짧게 불기
- ③ 일정한 목표 지점으로 공 불어서 보내기
- ④ 마주 보고 공 불어 보내기
- ⑤ 경사진 홈에 공을 위 아래로 움직이게 불기
- ⑥ 경사진 홈에 공을 일정한 높이로 유지하게 불기

(3) 호루라기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숨을 세게 내쉬어 호루라기 불기

- ② 시범에 따라 호루라기 불기
- ③ 구령에 맞추어 호루라기 불기
- ④ 오랫동안 그치지 않고 호루라기 불기
- ⑤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 가면서 불기

(4) 바람개비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짧게 끊어서 '후' 소리를 내기
- ② 연속적으로 짧게 끊어서 '후/후/후~' 소리내기
- ③ 한숨을 쉬듯이 '후~' 소리를 길게 내기
- ④ 화살표 방향으로 '후' 불어 바람개비 돌리기
- ⑤ 바람개비를 천천히 또는 빨리 돌리기

(5) 코끼리 코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숨을 크게 불어 코끼리 코에서 '뽕' 소리나게 하기
- ② 코끼리 코가 완전히 퍼질 때까지 코끼리 코 불기
- ③ 코끼리 코를 불어 표적 맞추기
- ④ 코끼리 코를 불어 퍼진 상태에서 유지시키기

(6) 종이공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가로, 세로 10cm의 종이공에 바람을 넣어 부풀리기
- ② 점차로 더 크게 접은 종이공에 바람 넣어 부풀리기
- ③ 종이공을 불어 멀리 날려보내기
- ④ 종이공을 목표물까지 날려보내기

(7) 종이관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종이관에 넣은 화살촉을 날려보내기
- ② 10cm 거리의 과녁을 향해 화살촉을 날려보내기
- ③ 목표물과의 거리를 점차 멀리 하여 표적 맞추기
- ④ 종이관을 불어서 화살촉을 멀리 날려보내기
- ⑤ 정해진 시간에 화살촉을 바구니에 많이 불어넣기

(8) 비누 방울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컵 속에 빨대를 꽂고 불어서 '보글보글' 소리내기

- ② 컵 속에 거품이 날 때까지 불기
- ③ 굵고 짧은 빨대를 이용하여 비누 방울 만들기
- ④ 길고 가는 빨대를 이용하여 비누 방울 만들기
- ⑤ 천천히 불어서 커다란 비누 방울 만들기

(9) 촛불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생일 케이크에 사용되는 촛불 불어 끄기
- ② 중간 크기의 촛불 끄기
- ③ 대형 초의 촛불 끄기
- ④ 촛불 많이 끄기 놀이하기
- ⑤ 촛불 빨리 끄기 놀이하기
- ⑥ 촛불 불어서 흔들기

(10) 물감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한 방울의 물감 불기
- ② 여러 방울의 물감 불기
- ③ 물감 불어서 간단한 모양 만들기
- ④ 물감 불어서 복잡한 모양 만들기

(11) 호기병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적은 양의 물을 다른 쪽의 호기병으로 옮기기
- ② 차츰 많은 양의 물을 다른 쪽의 호기병으로 옮기기
- ③ 호기병의 물을 정해진 시간에 불어서 옮기기
- ④ 호기병의 물을 빨리 불어서 옮기기
- ⑤ 호기병의 물을 천천히 불어서 옮기기

(12) 깃대 넘기기를 통하여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1개의 깃대를 불어서 넘기기
- ② 여러 개의 깃대를 불어서 넘기기
- ③ 깃대와 입과의 간격을 달리하여 불어서 넘기기
- ④ 지정된 색깔의 깃대만 불어서 넘기기
- ⑤ 깃대 불어 많이 넘어뜨리기 게임 하기

6) 생리적 호흡 훈련하기

(1) 흉식 호흡 방법을 익혀 바르게 호흡할 수 있다.

- ① '하나 둘 셋' 체조에 맞추어 율동 하기
- ② 가슴을 내밀며 숨을 들이쉬었다가 다시 내쉬기
- ③ 어깨와 배를 압박하면서 구렁에 맞추어 호흡하기
- ④ 흉식 호흡 방법으로 호흡하기

(2) 다리 구르기 기법을 이용해 바르게 호흡할 수 있다.

- ① 누운 자세에서 팔 올려 호흡하기
- ② 무릎 세워 앉은 자세에서 호흡하기
- ③ 다리를 펴서 내리고 올리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 ④ 다리 구르기 기법으로 호흡하기

(3) 구강과 비강을 통한 호흡로를 알고 호흡 할 수 있다.

- ①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달리하며 입으로 호흡하기
- ②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달리하며 입→코로 호흡하기
- ③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달리하며 코로 호흡하기
- ④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달리하며 코→입 호흡하기

(4) 풍선을 이용하여 충분한 흡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① 부풀린 풍선의 바람을 빼면서 흡기 인식하기
- ② 부풀린 풍선을 배의 복부에 밀착하여 감각 느끼기
- ③ 부풀린 풍선을 배의 복부에 밀착시켜 호흡하기
- ④ 숫자를 점차 늘리면서 흡기의 양을 증가시키기

(5) 청각적 자극에 맞추어 흡기를 조절할 수 있다.

- ① 구령을 세는 동안 흡기 하기
- ② 구령에 맞추어 흡기 하기
- ③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흡기 하기
- ④ 박자기에 맞추어 흡기 하기

(6) 시각적 자극에 맞추어 흡기를 조절할 수 있다.

- ① 도화지에 줄을 그을 동안 흡기 하기

- ② 줄긋는 속도에 따라 빨리 흡기 하기
- ③ 줄긋는 속도에 따라 천천히 흡기 하기
- ④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줄을 그으면서 흡기 하기

(7) 운동 자극을 통해서 흡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① 국민 체조를 통해 흡기 하기
- ② 손 건반의 음계에 맞추어 흡기 하기
- ③ 고리를 봉에 걸면서 흡기 하기
- ④ 모래주머니를 바구니에 던져 넣으며 흡기하기

(8) 주어진 지시에 따라 신속한 흡기를 할 수 있다.

- ① 호흡을 정지하고 참고 있다가 힘차게 흡기 하기
- ② 딸꾹질 흉내내기
- ③ 울음을 그치려 할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내기
- ④ 방향제를 빠르게 과장된 동작으로 냄새 맡기
- ⑤ 코를 훌쩍거리는 흉내내기

혀 및 턱 훈련 지도 방법

○ 혀 훈련

1) 혀 운동하기

(1) 혀를 앞으로 내밀고 뒤로 당기기를 할 수 있다.

- ① 설압자로 혀 부위 마사지하기
- ② 거즈로 혀 부위 마사지하기
- ③ 부드러운 빵을 혀 돌출하여 핥아먹기
- ④ 초콜릿을 혀 돌출하여 핥아먹기

(2) 혀끝을 구개나 입술에 닿을 수 있다.

- ① 혀 거상 운동하기
- ② 혀끝을 구개에 접촉하기
- ③ 혀끝을 입술에 부위에 접촉하기

- ④ 혀 가상 능력 기르기
- ⑤ 입술 주위에 꿀을 발라 혀로 핥아먹기
- ⑥ 구렁에 맞추어 혀를 구개에 접촉하기

(3) 혀끝을 치아나 아랫입술 부위에 댈 수 있다.

- ① 설압자로 밀어 혀 아래로 내리기
- ② "치""켓""쩍쩍"을 반복적으로 발음하기
- ③ 구개-치경부-치아 부위의 순으로 혀 쓸어 내리기
- ④ 아랫입술 주변에 꿀을 발라 혀로 핥아먹기
- ⑤ 구렁에 맞추어 혀를 내리기

(4) 혀끝을 오른쪽과 왼쪽 입술 모서리에 댈 수 있다.

- ① 입술 양쪽 모서리에 꿀을 발라 핥아먹기
- ② 시범 보며 혀끝을 오른쪽과 왼쪽 모서리에 대기
- ③ 설압자로 혀 양옆 압박하기
- ④ 혀끝을 볼 내부와 밖에서 반대 부분으로 밀어 넣기

(5) 혀끝으로 입술 둘레를 회전할 수 있다.

- ① 입 주위에 꿀을 바르고 혀로 핥아먹기
- ② 손잡이 달린 사탕을 입속 부위에서 혀로 핥아먹기
- ③ 스펀지나 코르크를 입속에 넣어 혀로 이동시키기
- ④ 거울을 보고 혀끝으로 입술 둘레를 회전하기
- ⑤ 구렁에 맞추어 혀끝으로 입술 둘레를 회전하기

(6) 혀끝을 치조 부위에 댈 수 있다.

- ① 치조 부위의 음식물을 혀로 핥아서 먹기
- ② 작고 얇은 붓으로 치조 부위를 자극하여 핥기
- ③ 치조 부위에 설압자를 대면 혀를 갖다 대기
- ④ 거울을 보며 치조 부위에 혀 접촉하기

(7) 혀끝을 경구개 부위에 댈 수 있다.

- ① 경구개 부위의 음식물을 혀로 핥아서 먹기
- ② 얇은 붓으로 경구개 부위를 자극하여 혀로 핥기

- ③ 경구개 부위에 설압자를 대면 혀를 갖다 대기
- ④ 거울을 보며 경구개 부위에 혀 접촉하기

(8) 혀 운동을 통해 연구개 부위를 거상 할 수 있다.

- ① 입안 가시기 기법으로 혀 운동하기
- ② 밀기 접근법으로 혀 운동하기
- ③ 여러 가지 음식물 삼키기
- ④ 빨대를 사용하여 컵에 든 물 마시기

(9) 혀의 운동을 통해 근력과 운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 ① 후두경(순가락)으로 혀를 밀어 좌로 움직이기
- ② 후두경(순가락)으로 혀를 밀어 우로 움직이기
- ③ 후두경(순가락)으로 혀끝을 밀어 위로 올리기
- ④ 후두경(순가락)으로 혀끝을 밀어 아래로 내리기

(10) 여러 자극을 통해 혀의 감각 능력을 증진 할 수 있다.

- ① '딱딱하다', '말랑말랑하다' 감각 느끼기
- ② '거칠다', '부드럽다' 감각 느끼기
- ③ '따뜻하다', '차갑다' 감각 느끼기

2) 혀의 움직임에 따라 발음하기

(1) 발음을 통해 치조 부위에서 혀를 움직일 수 있다.

- ① /타-타-타/ 발음하기
- ② /나-나-나/ 발음하기
- ③ /나나-내내-노노/ 발음하기
- ④ /다다-대대-도도/ 발음하기

(2) 발음을 통해 경구개 부위에서 혀를 움직일 수 있다.

- ① "치", "첻", "쩍쩍" 반복적으로 발음하기
- ② /차-차-차/ 발음하기
- ③ /자자-조조-지지/ 발음하기
- ④ /차-자-치-조/ 발음하기

(3) 발음을 통해 연구개 부위에서 혀를 움직일 수 있다.

- ① /가-가-가/ 발음하기
- ② /카-카-카/ 발음하기
- ③ /가가-거거-고고/ 발음하기
- ④ /가카-거커-고코/ 발음하기

○ 턱 훈련

1) 턱 운동하기

(1) 하악을 올려 입을 다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① 손으로 하악을 올려 입 다물기
- ② '합죽이'의 손 유희를 통해 오래 입 다물고 있기
- ③ 비스킷 물고 있기
- ④ 설압자 물고 있기

(2) 하악을 자연스럽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 ① '하품' 흉내내기
- ② 치아 맞부딪치기
- ③ 하악을 움직여 입술 맞닿기
- ④ 원순음과 평순음을 연결하여 발성하기

(3) 하악 운동을 통해서 기동성을 넓힐 수 있다.

- ① 하악 상하 운동하기
- ② 하악 좌우 운동하기
- ③ 과장된 움직임으로 발성하기

(4) 하악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

- ① 하악 하강하기
- ② 하악의 하강 범위 증가하기
- ③ /파/ 발음하기
- ④ 저작을 통해 하악 근력 증가하기

2) 발음에 의한 턱 훈련하기

(1) 발음을 통해 턱을 움직일 수 있다.

- ① /야야-여여-요요/소리내기
- ② /다대도/소리내기
- ③ /사사-세세-소소-사세소/소리내기
- ④ /아이-이오-우아-아이-에이/소리내기

(2) 2음절어 발음을 통해 턱을 움직일 수 있다.

- ① /아아/, /이오/, /우아/, /우오/, /우오아/ 발음하기
- ② /아이/, /아우/, /에이/, /에우/, /아오우/ 발음하기

유 · 아동 발달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팀 명	교육재활 2팀
일 시	2013년 9월 2일 ~ 23일
담 당	이 슬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부모교육 >>

• 각 연령별 인지 발달

1. 0~1 발달 특성

- 인지발달은 지각 운동 기능 발달과 밀접히 관련됨
- 시각 발달
4개월 : 명도가 높은 색, 대비가 뚜렷한 형태를 선호함
- 청각 발달
생후 3~4일: 소리에 반응함
3개월경 : 말소리 리듬에 따라 반응함
- 8~12개월 : 숨기는 것을 본 경우에는 그 물체를 찾아낼 수 있음
- 1세 전후 : 손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것에 호기심을 보임. 사람이나 사물의 특정 행동 반응을 얻고 싶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건드리기도 함

※ 상호 작용 방법

- ① 사물을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고 함께 놀이해준다.
 - 여러 가지 물체를 두드리고 소리내기(북, 방울 등), 물체 집어넣고 꺼내기, 숨기고 찾기 등
- ② 인지 발달은 감각 발달과 관련되므로 아기가 사물을 쥐고 흔들고 빨고 소리내는 등의 감각적인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인지 발달은 아기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놀이할 기회를 준다.
- ④ 8~9개월부터는 영아용 블록을 이용해 놀이하도록 준비하고 도와준다.

2. 1~2세 발달 특성

-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임
- 12~18개월경
 - 사물을 결합시키고 연관시키려고 시도(예: 영아용 끼우기 블록 사용하기, 큰 상자 안에 작은 것 넣기 등)
 - 보는 사람 앞에서 숨긴 물건 찾기
 - 다른 사람의 동작 모방하기
 - 사물을 다른 것의 대치물로 사용하기 시작(예: 자기의 손수건을 인형의 손수건처럼 사용)
- 18~24개월 : 무엇이든 모방하려 함
 - 이전에 들었던 소리나 행위 재생하기
 - 복합적인 음성 모방하기

- 상징놀이를 즐기기 시작 (예: 큰 블록을 인형 침대로 사용하기)
- 간단한 블록 구성하기
- ○, △, □ 모양 등의 간단한 모양 퍼즐이나 2-3 조각 그림 퍼즐 맞추기

※ 상호 작용 방법

- ① 여러 가지 직접 만지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준다.
- ② 흙, 모래, 물 등의 자연물로 놀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놀이는 창조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③ 모방놀이, 초보적인 소꿉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함께 놀이해준다.
(예: 인형놀이, 상차리기 놀이, 인형 목욕시키기, 인형 유모차 태우기, 바구니에 장난감 넣고 꺼내기 등)
- ④ 간단한 모양의 퍼즐을 함께 맞추며 모양을 관찰하도록 한다.
- ⑤ 여러 가지 모양의 짝을 맞추거나 분리하는 종류의 놀잇감으로 놀이할 기회를 준다.
- ⑥ 깨끗이 놀이하는 것보다는 몰두해서 탐색하며 놀이하는 시기이므로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3. 2~3세 발달 특성

- 유아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탐구력이 강한 문제 해결자로서, 사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려고 시도하므로 끊임없이 주변 세계에 대해 관찰하고, 질문하고, 조작하고, 분류하고, 측정함.
-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며,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놀이하기를 즐김
- 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위험 상황으로부터 몸을 멀리 함
- 사물을 분해하였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음
- 사물의 색, 모양, 크기, 용도 등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음
- 양, 수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보이기 시작하고 '1'의 개념이 생김
- 위, 아래, 안의 개념이 생김
- 짧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물건에 대해 기억하고 말할 수 있음
- 신체 각 부분의 이름과 위치를 알
- 조금 복잡한 퍼즐도 맞출 수 있음(약 5-15조각)
- 색연필이나 크레용으로 굵적거리고 수평선을 그림
- 블록으로 수직적 탑이나 수평적 열 짓기, 둘러싸인 형태 짓기가 가능함

※ 상호 작용 방법

- ①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 조작하는 놀이 경험을 제공해주고 놀이 상대가 되어 준다.

- ②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예: 무선 조종 자동차), 색칠 공책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구성 할 수 있는 놀잇감(예: 블록, 손으로 미는 자동차)을 준비해주고 창의적으로 놀이하도록 돕는다.
 - 대소근육 블록은 양을 충분히 준비해준다.
 - 필요한 소품(사람, 동물 모형, 자동차, 찻길 등)을 제공한다.
 - 놀이 상대가 되어 함께 놀이한다.
- ③ 자신의 신체, 주변 사물 등을 살펴보고 이름을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 ④ 그리기 도구(크레용, 색 물감 등)로 마음대로 긁적거리도록 격려한다.
- ⑤ 물, 모래, 나뭇잎 등과 같은 자연물을 탐색하고 이러한 물체를 이용하여 놀이할 기회를 준다.

4. 3~4세 발달 특성

-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임
-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음
- 양의 차이와 위, 아래, 뒤, 밑 등의 공간 관계를 이해하며 지금, -하기 전에, -다음에 등 의 시간 관계도 부분적으로 이해함
- 많고 적은 차이가 큰 수량의 경우를 이해하기 시작함
- 상징적 기능이 발달하여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과 사고가 가능함
- 사물을 초보적으로 분류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생겨 형태, 색, 모양, 소리에 따라 구분하고 단순한 서열이 가능함
- 구체적 사물이나 행동이 제시되지 않을 때에도 상상하거나 추측하여 행동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 실제와 꿈이나 환상을 확실히 구분하지는 못하여 연극, 인형극 등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나 상황을 실제라고 믿음

※ 상호 작용 방법

- ① 유아들이 자연적인 호기심을 발휘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배우며 원인과 결과 관계를 실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해준다.
- ② 정해진 답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학습 상황보다는 유아가 직접 사물을 이용하여 탐구해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마련해준다.
- ③ 구체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색, 모양, 크기, 소리 등을 비교, 분류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주고, 유아가 발견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 ④ 다양한 극 놀잇감을 준비해 주고, 관련된 책을 읽어주거나 정보를 주어 극놀이가 정교해 질수 있도록 돕는다.
- ⑤ 상상의 세계를 극놀이나 미술, 춤, 구성 활동 등을 통해 창조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5. 4~7세 발달 특성

- 점차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기억력이 증가함
- 4세경에는 초보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간단한 사건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10 이내의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형성되며 일상생활에서 수를 활용함
- 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갖고 이름, 생김새, 움직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형성함
-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일과 사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함
- 시계나 청소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기계의 조작에 관심을 가짐
- 사물의 모양, 색, 크기, 용도 등에 따라 분류, 범주화하는 능력이 발달하나 복잡한 분류는 잘 하지 못함
- 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 등과 관련된 시간 개념이 발달하지만 아직 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지는 못함
- ○, △, □ 등의 도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릴 수 있으며, 위 아래, 안 밖과 같이 위치와 관련된 공간 개념도 발달함

※ 상호 작용 방법

- ①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도록 격려한다.
 - 놀잇감을 찾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 이 과자를 동생과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② 놀이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학습지와 같은 형태보다는 유아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놀이하면서 호기심과 사고력이 발달하도록 돕는다.
- ④ 숫자를 암기식으로 읽고 쓰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한다.
- ⑤ 동식물을 기르거나 관찰해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 ⑥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질문이 많은 시기이므로 귀찮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성의 있게 솔직히 대답해준다.
- ⑦ 사물의 특성이나 현상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학적인 자세에 대한 모델을 보여 유아가 어려서부터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 ⑧ 정해진 답을 찾아 답하는 형태의 폐쇄적인 놀잇감(학습지, 색칠 공부, 배터리를 이용한 무선 조종 놀잇감 등)보다는 유아의 생각을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개방적인 놀잇감 (블록, 목공 놀이, 콜라주 재료, 모래놀이 등)을 제공해주고 유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하도록 격려한다.
- ⑨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일이나 사물에 호기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유아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도서를 준비해주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다.

• 인지 발달을 위한 지도 방안

1. 일반적인 지침

- ① 타고난 능력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개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여 무리한 요구를 피하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어린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어린이의 상징적 활동을 자극하고 격려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개념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 생활 속에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③ 어린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한다.
어린이의 질문이 비록 시시하거나 엉뚱할지라도 성실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답해 줌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계속 가지도록 격려한다.
- ④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적 자극을 제공한다.
나이에 맞는 놀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2. 창의성 개발

- ①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 ② 어린이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고 행동하도록 정서적 자극을 제공한다.
어린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 ③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일상생활 용품들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혹은 엉뚱하게 활용되도록 격려한다.
- ④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남의 말에 진지한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단기간을 통해 이룰 수 없으며 창의적인 지능, 창의적인 태도, 창의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 창의성이란 인내심과 지구력 등의 성격 요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지적 놀이 지도

어린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놀이하면서 스스로 인지적 학습을 한다. 여러 가지 놀잇감과 흙, 나무 토막, 돌멩이, 나뭇잎 등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노는 동안 각 물체의 무게, 질감, 색깔, 크기 등 물리적 지식을 학습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적, 수리적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작놀이, 쌓기놀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작놀이

어린이가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사용해서 놀잇감을 맞추고, 분리하고, 재배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물을 다루는 놀이를 조작놀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3~5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조작놀이는 다음과 같다.

- ① 3세 어린이에게는 손잡이가 있거나 배경판에 조각 그림의 윤곽이 그려져 있는 퍼즐이 적합하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 및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옷 입기에 기본이 되는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등 손으로 조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② 4세 어린이에게는 단순한 조각 그림 맞추기뿐 아니라 도형 퍼즐, 숫자 퍼즐 등 특정 개념 학습을 학습시킬 수 있는 퍼즐을 제공한다. 그밖에 숫자와 개수 맞추기 등 다양한 짝 맞추기와 색깔이나 모양,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준비한다.
- ③ 5세가 되면 조금 어려운 수준의 조작 놀이도 가능해지는데, 숫자나 형태에 따라 바느질하기나 패턴에 따라 구슬에 끈 끼우기, 다양한 주사위 게임 도구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쌓기놀이

수학적 학습의 기초가 되는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넓이, 부피의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

블록 조각을 가지고 노는 가운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 분수 개념, 수의 많고 적음을 이해하게 된다.

- ① 2세경부터 쌓기 놀이가 가능하다. 가볍고 부드러운 커다란 스펀지 블록이나 손으로 집기에 용이하고 표면 처리가 잘된 나무 블록을 준비해 준다. 이 시기에는 양손으로 블록을 마주 눌러 끼우거나 단순하게 돌려 넣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7~10cm크기의 플라스틱 끼우기 블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② 3세 어린이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과 같이 기본 형태의 블록이나 종이 벽돌 블록을 제공해 준다. 레고와 같은 작은 끼우기 블록도 서서히 소개해 줄 수 있다.
- ③ 4세 어린이는 널빤지, 원기둥과 같은 종류의 다양한 블록을 제공한다. 동물이나 사

람 모형, 각종 자동차를 준비해 주면 쌓기놀이가 더욱 다양해진다.

- ④ 5세가 되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등 인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실패나 도르래,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함께 준비해 준다.

※ 참고 자료

유아의 놀이 활동의 도구가 교육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제작한 교구와 놀이자료 등을 모두 놀잇감으로 총칭할 때, 연령별로 어떤 놀잇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가, 어떤 것을 주면 좋은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주면 좋은 것
입에 손을 넣는 연령 (1-2세)	-삼켜 버릴 만한 작은 장난감 -태우기 쉬운 것 -맞췄다 뻘뻘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는 장난감 -유독한 도료가 칠해 있는 것 -유리나 단추가 끼워져 있는 동물 장난감	-튼튼한 딸랑이 -고무제로 빨수 있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 -숨 등이 채워져 있는 인형이나 동물(봉제 인형) -크고 밝은 색의 매달린 장난감 -각이 둥글게 된 쌓기나무 -끈이나 핸들이 붙은 장난감 -장난감 상자
탐색하고 싫어하는 연령 (2-3세)	-쉽게 끊어지거나 굽힐 수 있는 것 -날카롭고 거친 것 -맞췄다 뻘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유독한 도료나 장식이 있는 것 -튀기기 구슬, 비즈, 코인 -타기 쉬운 장난감	-동아리나 삼이 놓여 있는 모래터 -커다란 팩보드 (구멍이 뚫린 나무 조각을 끼워 넣는 것) -목재의 동물 장난감 -장난감 자동차, 짐마차 -넘어지지 않는 어린이용 자동차나 삼륜차 -낮은 흔들 목마 -작은 의자나 테이블
흥내놀이를 하는 연령 (3-4세)	-어린이의 힘으로는 너무 무거운 장난감 -깨지거나 뽀뽀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마감재료가 좋지 않은 장난감 -날카롭거나 끊어지는 장난감 -전기 장난감	-작은 빗자루, 용단 청소기 -장난감 전화기 -간단한 옷을 입은 인형 -접시, 소형의 정원 도구, 트랙과 트랙터 등의 장난감 -전기가 통하지 않은 장난감 기차 -쌓기나무

창작을 시작하는 연령 (4-5세)	·-눈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적을 쏘는 장난감 ·-넘어지기 쉬운 기동성 있는 장난감 (삼륜차, 짐마차 등) ·-유독한 도료가 칠해져 있는 것 ·-쉽게 완성되거나 끊기는 장난감	·-칠판과 먼지가 나지 않는 분필이나 초크 ·-그림물감과 스케치북 ·-간단한 조립세트 ·-인형의 집과 가구 ·-작은 스포츠 용구 ·-빨래대야와 세탁판 ·-끝이 둥글게 된 가위 ·-종이 인형세트, 옷 ·-점토세공
잔재주가는 연령 (6-8세)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전기 장난감 ·-어린이의 힘이나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복잡한 것 ·-날카로운 날이 있는 장난감 ·-종지 않은 스케이트화 ·-전도성이 있는 연	·-목공 놀이 도구 ·-소형 썰매, 롤러 스케이트 ·-검증을 마친 전동장난감, 연 ·-놀이용 가게세트, 은행, 주유소의 놀이기구 ·-퍼즐과 게임류 ·-인형과 인형 용구
취미나 기능이 특수화된 연령 (8세 이상)	·-공기총, 투궁(投弓), 활과 화살 ·-화학세트 ·-위험한 도구나 전동 장난감 이상은 부모의 감독하에서 아니면 안 된다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전동 장난감	·-취미 재료, 미술과 공예품 ·-사진, 코인이나 우표수집 ·-꼭두각시 인형 ·-악기 ·-모형이나 조립세트 ·-체육과 스포츠기구 ·-자전거 ·-과학세트

바르게 걷기



팀 명	재활치료2팀
일 시	2013년 10월 21일-10월 31일까지
작성자	특수체육교사 최보람
담당자	최보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바르게 걷기

1. 걷기 운동으로 몸이 변한다.

1) 걷기운동은 이렇게 몸에 좋다

① 다리와 허리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다리와 허리의 근육은 오랫동안 계속 걸을 수 있게 역할을 하는 느린 근섬유 (Red Muscle)와 계단을 오르거나 뛰거나 할 때 주역을 담당하는 빠른 근섬유 (White Muscle a,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걷기운동의 실천은 오래 걷는 것에 의하여 느린 근섬유가,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빠른 근섬유가 각각 단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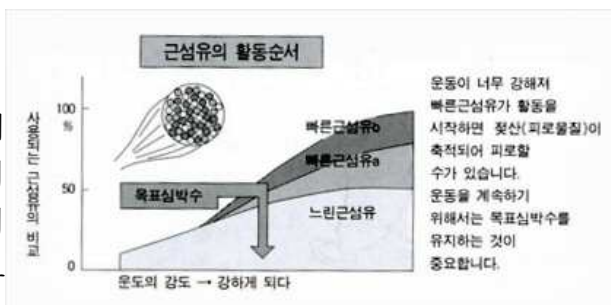
운동 강도를 높이면 근섬유는 느린 근섬유 → 빠른 근섬유a → 빠른 근섬유 b의 순서로 사용됩니다. 계단이나 언덕길을 오르는 것으로 모든 근섬유가 균형 있게 단련되는 것입니다.



② 심폐기능이 향상됩니다.

흔히 심폐기능이 향상한다고 말합니다마는 알기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것일까요? 계속하는 운동임으로 심장이나 폐의 기능도 향상한다는 말일까요?

몸의 보내 동 이 키 지 필요



을 오랜 시간 움직이면 활동하는 근육 느린 근섬유에게 에너지원과 산소를 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의 활발해집니다.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실천이 합니다. 이것은 폐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다. 공기 중의 산소를 많이 흡입하기 위해 폐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흡입한 산소를 혈액 속에 넣고 다시 심장의 활동에 의해 전신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되풀이 되어 심장·폐장·혈액이 활동이 개선되어 갑니다.

이와 같이 걷는 운동을 오래 계속하면 근육에 혈액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섬유내의 모세혈관이 발달하여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③ 비만을 해소하자.



보통 체내의 지방이 운동에 사용되기까지는 적어도 15-20분의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방조직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로 하므로 100m 달리기와 같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운동으로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치 못해 지방은 연소하지 않습니다. 즉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쁜 운동을,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가능한 한 오랜 시간 계속하여 실시하는 유(有)산소성 운동이 체지방 감량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걷기운동입니다.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하면 터벅터벅 걷은 것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걷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의 지방연소를 어렵게 하고 빨리 피로하게 합니다. 결국 지방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좋은 걷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목표심박수를 유지하는 정도의 걷는 방법입니다.

④ 혈압의 안정에도 효과

고혈압의 요인은 염분의 과도섭취·비만·스트레스·나이 먹는데 따른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치료에는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또, 심장병 등의 합병증이 없다면 적당한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1983년에 일본 후생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1일 1만

보 걷는 사람으로서 남성은 수축기혈압이 평균 134, 저(확장기) 혈압 평균 82, 여성은 각각 129,78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고혈압, 저혈압이 적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혈액중의 지질(脂質)은 크게 나누어 콜레스테롤·지질·중성지방·지방(脂肪)산의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지질은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며, 중성지방과 지방산은 에너지원입니다.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최대의 병인(病因)이라고 간주되어 왔지만,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HDL 콜레스테롤(좋은)과 중성지방과 결합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LDL 콜레스테롤(나쁜)의 두 종류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기뻐할 것은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걷기운동 등의 운동에 의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걷기운동은 안정시의 혈압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2) 에너지소비와 운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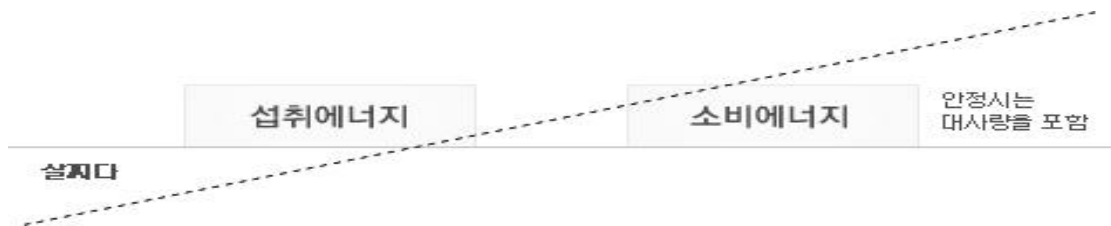
하루걷는양		1999보 이하	2000보~	4000보~	6000보~	8000보~	10000보~
남성	최고혈압 mmHg	144	142	139	137	135	134
	최저혈압 mmHg	84	84	83	83	83	82
	HDL콜레스테롤 mg/dl	47.6	47.9	48.6	51.0	51.3	53.8
여성	최고혈압 mmHg	145	138	135	131	128	129
	최저혈압 mmHg	82	80	80	79	78	78
	HDL콜레스테롤 mg/dl	53.7	52.3	55.7	56.4	57.4	59.8

일본 후생성 [1988년 국민 영양조사]

※ 비만한 사람은 보통사람과 비교하여 사망률이 1.5~2배.

과식+과음+운동부족=비만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섭취에너지가 소비에너지보다 많으면 남은 분(分)은 지방으로서 몸에 축적됩니다. [먹은 분량은 운동]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사람의 몸은 [먹는다](섭취량)와 [움직인다] (소비량)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건강이 유지됩니다. 사람이 보통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는 소비됩니다.
 그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다만 작은 예에 지나지 않지만 매일의 식사나 간식에서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필요한가를 한 번 조사하였습니다.



› 100 kcal 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는

천천히 걷기	배드민턴	뛰기	체조	줄넘기	자전거	정구	배구	탁구	골프
24분	20분	10분	20분	12분	20분	16분	24분	12분	26분



먹은 분량을 0으로 하는 운동량 (표준)

- 천천히 걷기
- 속도 80m/분
- 소비에너지 4.2kcal/분



중국 고기만두1개
70g = 200kcal



천천히 걷기 48분



스파게티
100g = 360kcal



천천히 걷기 86분



참쌀떡1개
60g = 140kcal



천천히 걷기 34분



밥1공기
140g = 200kcal



천천히 걷기 48분



청주1병
150ml = 170kcal



천천히 걷기 41분



맥주1병
633ml = 248kcal



천천히 걷기 60분



즉석라면1개
100g = 470kcal



천천히 걷기 113분



아이스크림1개
80g = 140kcal



천천히 걷기 34분

2. 걷기운동의 실천

1) 준비운동과 스트레칭

걷기운동은 “보통 걷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걷는다” “운동을 위해 걷는 것”임으로 우선 운동한다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준비운동 (워밍업) 과 스트레칭입니다.

① 준비운동

준비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근육을 풀어 [이제부터 운동을 시작한다]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인사입니다. 각각의 운동을 2회 정도씩 5-7분씩 실시합니다.



②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지금으로부터 사용할 근육과 건(腱)을 천천히 늘려 유연성을 반도(反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의할 것은 무리한 스트레칭이나 강하게 반동시키는 스트레칭은 근육이나 관절을 다치게 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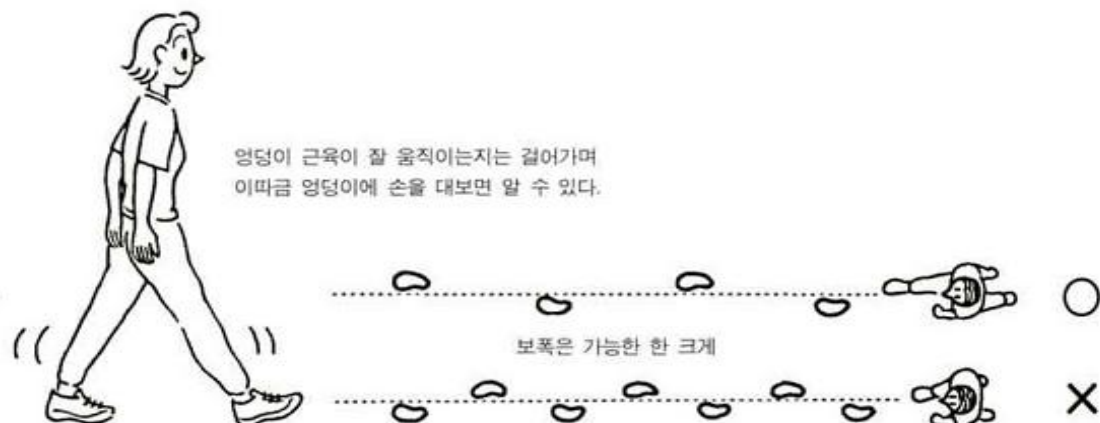
얼굴에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5-7분 실시합니다.



2) 바람직한 걷기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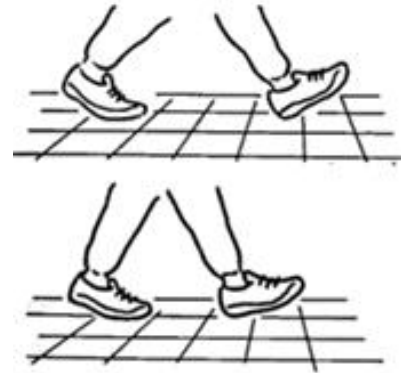
① 바른 걷기 기본자세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이 걷기자세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자세는 바로 등과 허리의 자세 및 발의 모양입니다. 바른 걷기 자세를 숙지하고 바른 자세의 경험을 지속하면 걷기자세도 분명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능숙한 발의 사용법

발은 뒷꿈치로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지면을 차내는 것 같이 걷는다. 즉 뒷꿈치로 부터의 착지 → 발바닥 전체를 지탱하고 → 발끝으로 차내는 것이 되도록 발의 바닥에 걸리는 힘의 중심을 이용(로-링)하여 갑니다. 이 최후의 킁이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면 뒹아 내린 반동으로 허리가 앞쪽으로 밀어내져 넓적다리(대퇴) 관절이 넓어져 보폭이 넓게 되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걸을 때는 일직선상을 양발이 포개지도록 똑바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신발을 물에 적셔 마른 길을 걸어서 양발 뒷꿈치의 발자욱이 일직선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여 보세요. 바람직한 걷기를 하고 있으면 정면에서 걷기를 하고 있으면 정면에서 보면 바닥이 보이고 옆에서 보아도 보폭이 넓고 산뜻하게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발바닥의 회전방법



가족과의 행복한 의사소통



팀 명	사회심리재활팀
일 시	2013년 6월 5일 / 10시~12시
장 소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3년 사회심리재활팀 부모교육 결과 보고서

1. 일시 : 2013년 6월 5일(수) / 10:00~12:00
2. 장소 : 3층 강당
3. 주제 : 부모-자녀간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 “소통하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한다”
4. 강사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채경선 교수 (010-2825-7702)
5. 일정표

시간	세부내용	비고
09:00 ~ 10:00	강당 셋팅	노트북, 빔프로젝트 외
10:00 ~ 10:05	강사소개, 관장님 말씀	사회 : 박성목
10:05 ~ 11:30	부모교육 진행	강사 : 채경선
11:30 ~ 11:40	설문지 배부 및 작성	-
11:40 ~ 12:00	뒷정리	-

6. 평가

1) 부모와 자녀간에 꼭 필요한 요소인 의사소통에 관련하여 주제를 선정하였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 뿐만 아니라 비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도 강의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음.

2)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력이 높았으며 강의 내용 또한 부모님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양육태도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음.

3) 역기능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대할 때의 태도, 대화의 단계 등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며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었음.

4) 발달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실제상황을 보여주며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녀에게 무용치료과정에 참여시켜 치료사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느껴 볼 수 있었음.

5) 강의시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강사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반영하기, 질문하기 방법 등의 다양한 질문을 하였으며, 부모-자녀간에 의사소통에 관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음.

7. 설문지 분석

1) 부모교육 강의 주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38명) ② 만족 (12명)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매우만족 : 38명(76%)

- 만 족 : 12명(24%)

2) 부모교육 강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40) ② 만족(8) ③ 보통(2)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매우만족 : 40명(80%)

- 만 족 : 8명(16%)

- 보 통 : 2명(4%)

3) 부모교육 강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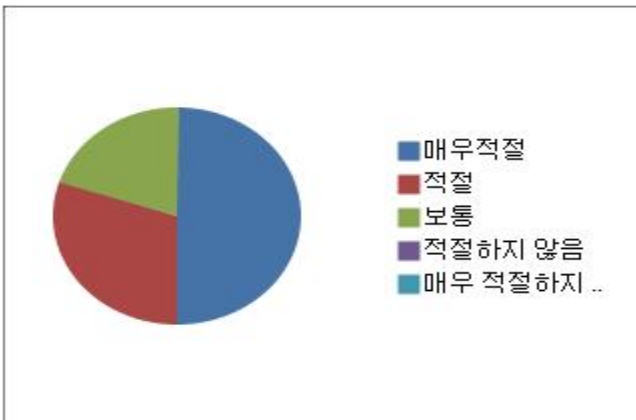
① 매우 만족(38) ② 만족(10) ③ 보통(2)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매우만족 : 25명(50%)
- 만 족 : 15명(30%)
- 보 통 : 10명(20%)

4) 부모교육 일정(평일오전)은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적절(25) ② 적 절(15) ③ 보 통(10) ④ 적절하지 않음 ⑤ 매우 적절하지 않음



- 매우만족 : 39명(78%)
- 만 족 : 8명(16%)
- 보 통 : 3명(6%)

5)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방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39) ② 도 움(8) ③ 보 통(3) ④ 도움되지 않음 ⑤ 매우 도움되지 않음



- 매우만족 : 38명(76%)
- 만 족 : 10명(20%)
- 보 통 : 2명(4%)

6) 이번 부모교육에 대한 건의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아이와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만드는 것
- 2) 아쉬워요.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 3) 처음들어본 부모교육 너무 좋네요. 많은 것 배워갑니다. 내 모습을 되돌아 보네요.
- 4) 오늘 부모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5) 다음에 더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 6) 자녀소통에 대한 적절한 대화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7) 아이를 치료실에 보내고 칭강하는 부모를 위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조 선생님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7) 향후 부모교육의 주제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애아동의 치료(심리치료 등) 부모가 더 알아야할 방법등을 교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부모가 지쳤을 때(힘들 때) 아이에게 표현하는 방법.
- 3) 다시 한번만 뒷 부분 해주세요. 듣기 -> 질문부분 해주세요,
- 4) 드라마치료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듣고 싶네요.
- 5) 장애형제와 비장애 형제간의 의사소통과 놀이방법.
- 6) 질문하기 방법
- 7) 질문하기 방법
- 8) 반영하기 - 좀 더 세심하게 듣고 싶습니다.
- 9) 오늘받은 강의 후속편 기대합니다.
- 10) 또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제 가슴을 울리네요. 노력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 11) ADHD 아동에 관한 부모 양육법 (양육, 교육..)
- 12) 장애아동에 진로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 13) 장애아동의 성교육
- 14) 사춘기 이성교제에 대한 대안 및 적절한 선 / 사춘기 아이 이해하기
- 15) 장애아동을 돌 볼 때 마음 다스리는 방법

8. 기타

- 1)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부모교육지원으로 장애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질 좋은 강의를 무료로 진행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 2) 향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 2차 부모교육을 계획 할 예정이다.

9. 사진자료



－ 별첨 : 교육자료 1부, 끝.

가족과의 행복한 의사소통

“소통하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한다”

채경선 교수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가족은 체제로 이해됩니다. 체제는 요소들과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핵 가족 체제를 예로 들면 남편과 부인, 아이들은 요소들이고 남편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가족은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결정됩니다. 건강한 가족을 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르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을 역기능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1. 역기능 가정 이해하기

1) 역기능 가정의 특성

가정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것을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체제이기 때문에 요소들이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치우치거나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모빌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요소가 흔들리면 전체가 요동하게 되어 그 이상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의 부재현상은 가족의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부모의 부재 현상은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남편 또는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경우는 물리적 부재현상이고 집에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리적 부재현상입니다. 물리적 부재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부부간의 사별, 이혼, 남편의 장기 출장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경우에 부인이나 아이들 중 누군가는 가족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부인 또는 자녀는 지나치게 많은 책임감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에 지친 부인은 아이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거나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짜증, 신경질,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거나 싫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과 부인은 역기능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부재 현상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부부관계 또는 아이들과 제대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정서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아이들에게

무섭고 엄한 부모로만 인식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적절한 정서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정서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배우자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부모와의 밀착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에 역기능 가정이 되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현재 진행형인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역기능 가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역기능가정은 우선 정서적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폭군아이”로서 역기능가정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의 중독성/강박성은 가족들에게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때 어린이들은 점차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꼭 짚어 말할 수 없습니다.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부모에게서 가족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도박에 중독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습관적 분노 폭발의 부모는 다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격렬한 폭발로 분노가 가족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중독자는 일반적으로 가정과 떨어져 있으면서 직업적인 성공을 하여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결과들이 분명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중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일중독자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지나치게 일에 열중하는 것에 대하여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볼 수 없고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그 일 중독자에게 불평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힘들게 일한 결과인 물질적 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들을 조종한다.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너무 적게 먹거나 은 강박적으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도박을 합니다. 복권, 비디오 게임, 경마, 내기를 건 스포츠 경기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섹스에도 중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음란물 사이트와 음란서적등에 집중하여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 중독자는 강박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 있어서 가정안에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석하고 종교 서적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록 종교 중독자가 겉으로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해도 그는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종교 중독자는 겉으로는 일련의 종교적 지침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낮은 자존감 혹은 분노와 강력한 반감을 느끼고 있으며 감정의 기복이 크고 경건하고 균형잡힌 영적 삶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신앙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정서적으로 결핍된 가족에게서 뚜렷한 중독적, 강박적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오랫동안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가족들의 모든 정서적인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각각의 경우 가족들의 정서적 에너지의 상당량이 중심이 되는 가족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려는 노력에 소모됩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역기능가정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문제를 부인합니다. 역기능 가정은 무엇인가 감출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가 중독증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증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역기능가정은 감정표현을 제한되어 있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가정은 다른 가족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울어도 안되고 싸워도 안되고, 심지어 화를 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4살된 아이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분노를 내면 아버지는 위험할 정도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애써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고 안 그런 척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이 존재하는 것조차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거짓되고 만들어진 자아가 자기를 지배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은 사라진 채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가족내에서 감정을 제한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곤 합니다. ‘남자는 울지 않아’, “너는 아무렇지도 않다.”, “너는 슬프지 않아. 행복해”. 말로 하지는 않지만 감정표현을 제한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감정이 표현되었을 때 강한 거부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받아 들이기 어려운 감정표현은 무시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이 가정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번 전달 받은 후에 아이는 다음과 같은 강력하게 파괴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나의 감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고통을 느낄 권리가 없어. 나는 느낄 권리조차도 없어.”

깊은 수준에서 보면 그 역시 자신의 감정과 단절되어 있고 누군가 그의 정서적인 꼭두각시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자신이 정말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감정의 센스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더욱 슬픈 것은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에 대한 느낌도 없이 존귀하고 독특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눈치보는 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자신의 감정인 줄 아는 색깔과 독특성을 잃어버린 끌려다니는 아이가 되어 갑니다. 우리 가정안에 억압된 감정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나요?

(3) 역기능가정은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피하고 한 방향 대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적 환경에서는 갈등에 대해서 서로 말할 수 있으며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사랑의 보살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다고 여겨질 때 행복해 집니다 그리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에는 이런 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봐야하고 가족끼리는 거리감을 두

고 친밀감 없이 지내며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대화를 가장한 설교나 잔소리 또는 꾸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동기등 내면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상처를 주는 대화가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에서는 어느 날 밤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울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다음날 마치 아무일 도 없었던 것같이 시작되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망각과는 다르게 현실을 피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벽들은 자녀들에게 습관화 되면서 소통의 감격이나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면에 불감증 혹은 분노와 미움으로 쌓여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안에 대화와 감정이 교통체증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4) 역기능가정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순기능 가정에도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 가정에서는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온 가족이 모여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역기능 가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힘으로 억눌러 버려서 묻어두고 지나갑니다. 결국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녀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자리를 개발하고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를 고사하려 합니다. 그 역할은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들에 의해서 부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여된 파괴적인 자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 대리 배우자: 역기능 가정의 부부들은 친밀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대신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자녀로부터 찾습니다. 또한 문제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하소연하고 불평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이 대리 배우자이거나 대리 상담자입니다.

. 희생양: 그 희생양은 가정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네가 낳기 전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너만 없으면 나와 너의 아버지와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본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갖습니다.

. 영웅: 가족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영웅의 역할을 맡은 아이는 성공을 이룸으로써 가정을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가정은 비록 엉망이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러한 영웅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가를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 말없는 아이: 말썽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이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분명히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거야, 나는 결코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을 거야”라고 숨어버립니다.

. 어린 부모, 대리 부모 :

부모가 제대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누군가 자녀 가운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을 상실하고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남에게 주고 희생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코 자신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남편이 그러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여도 대부 부모역을 맡았던 아내는 항상 남편을 부모처럼 철저하게 돌보고 나누어주고 희생합니다.

(5) 역기능가정에는 재생산의 기능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귀여움을 받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파서 심하게 울었더니 감싸안음을 받아 본 경험, 두려워서 불안했던 마음을 토로했더니 함께 하는 손길의 따스한 경험, 억울해서 크게 소리질러 보았더니 내 옆에 내 편의 누군가가 있었던 경험. 따스함, 사랑, 응석, 신뢰, 든든함을 누리는 경험은 부모에게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채찍을 가할지라도 부모만은 영원한 내편이기를 아는 것은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은 누림보다는 너무 일찍 일을 하도록 강요됩니다. 그들의 일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서가 불안한 성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부모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모에 의해서 정서적인 보살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대단히 놀랍니다. 자신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돌봄, 신뢰, 도움을 주고 받는 부모자녀만이 누려야 되는 특권적인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욕구불만에서 오는 유혹에 쉽게 자신을 내어 줄 가능성이 심히 높게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맺어 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다른 자가 자신과 같은 아이를 재생산해 내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역기능가정에는 기능적 가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대화의 장을 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사람이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세대에서 또 그렇게 역기능 가정이 되물림되지 않기 위해 대화의 기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의사소통의 기술

1) 의사소통의 개념

사전에 의하면 의사소통(意思疏通)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 등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곧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진실하게 공유하면 할수록 친밀감과 소속감이 생겨서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2) 부정적 대화법

(1)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비화하는가?

서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말이 점점 더 큰 문제로 악화되는 형상을 비화라고 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평가가 한가지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확대되면 분노와 좌절을 증가시킵니다.

(2)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는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무효화하는 것은 배우자가 미묘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생각, 감정 혹은 성격을 업신여기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3)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고 철회하는가?

한 사람이 문제를 의논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철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4) 행동의 동기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가?

사귀는 동안이나 혹은 결혼초기의 어떤 오해 때문에 배우자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는 거리, 몸짓, 눈접촉, 얼굴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거리: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친밀할수록 사람들은 상대와 더 가까이 섭니다.

- 몸짓: 근자에 들어 신체적 언어와 관련된 저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술들에 의하면 우리는 상대의 몸짓이나 자세를 통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아줌, 접촉, 등 두들려주기, 어깨 감싸주기 등 가족간에 스킨쉽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3. 대화의 단계

1) 1단계: 무시하기

소리는 들리지만 내용과 관심은 오가지 않는 단계

2) 2단계 : 경청을 가장하기

눈은 보고 있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인 차원
다분히 형식적이고 상투적입니다

3) 3단계 : 선택적으로 듣기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차원. 앞 뒤 맥락과 전후 사정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고 따로 떼서 부분만 듣습니다. 따라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4) 반영적 경청

‘그렇구나’ 반영하는 단계. 반영적 경청으로 시작될 때 듣기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구나’ 대화를 시작하거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상대가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5) 마음으로 듣기

가장 깊은 관계는 공감적 이해가 자주 일어나는 두 사람 사이입니다. 상대방의 남다른 경험세계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해 주는 단계가 5단계 대화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된 양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4. 바람직한 대화를 위하여

1)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반영하기)

- 판단과 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한 상황으로 표현하기.

너는 너무 고집이 세다 : 말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다시 샀구나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 집에 키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너는 게으르구나 : 9시에 일어났다.

당신은 너무 권위적이야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나를 무시했어 : 내 질문에 대답을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업신여겨 : 그가 나에게 까불지 말라고 했

2) 나 메시지로 요청하기

명령 지시. 급지. 충고, 훈계, 비난 등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상대방을 움직이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 너는 -----해라 ” “ 당신-----가구만”등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대화입니다. 반대로 나 메시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대화입니다.

내가 신문 읽는데 조용히 좀 해봐 : 당신이 곁에서 말을 하니까 내가 신문을 읽을 수가 없군요

저녁밥 빨리 줘 : 약속이 촉박하니 내가 저녁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

5. 나가며

역기능적인 가정은 대화의 장이 막히고 소통이 어려워져서 가족안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언어적 의사소통으로써 반영적 경청 그리고 마음으로 듣기 과정을 통해 가족안에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가족이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2013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규정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3년 1월 10일 (목) 저녁 7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3년 열린일터 사업 일정

날 짜		내 용
1월	7일	시무식
2월		동아리활동 시작
3월	19일	1차 운영위원회의
	13일	직원교육(장애인성폭력 예방교육)
	29일	1차 등산활동
4월	24일	장애인문화축제
5월	4일	비루고개축제(부모님 자원봉사)
	16일	2차 등산활동
	31일	가정의 달 행사(성모성월 미사)
6월	18일	2차 운영위원회의
7월	19일	직원교육(인권교육)
	29일-8월 2일	하계휴가(예정)
8월	9일	데이캠프
9월	6일	3차 등산활동
	24일	3차 운영위원회의
	27일	휠체어마라톤대회
10월	9일	소방서 연계 합동 소방훈련
	18일	4차 등산활동
	24일-25일	가을여행
11월	6일	현장견학
	7일	건강검진
	29일	자원봉사자 감사의 밤(부모님 자원봉사)
12월	3일	4차 운영위원회의
	18일	남동송년예술제
	27일	가족송년회
	31일 -1월 4일	동계휴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김형범, 김상준, 김영희, 강웅혁 구향미, 남 빛, 심재홍, 이원정 김훈범, 홍미리 (10명)	최동식, 김동준, 이해민, 김성학 김필두, 이용국, 진은혜, 이상복 김성준, 이선영, 김동하, 한운철 문은선, 조상환, 강병철, 백광호 조준희 (17명)

2013년 프로그램 참여 이용인 명단

프로그램명		이용인 명단
성교육	근로자	전체 근로자
	훈련생	문은선, 조준희, 김성준, 조상환, 강병철 이선영, 신규 훈련생 2명
사회기술 훈련	1반	문은선, 진은혜, 조상환, 한운철, 이용국 김동하, 김성준, 김성학
	2반	이선영, 김필두, 김동준, 이해민, 이상복 강병철, 백광호, 조준희, 최동식
운동	댄스교실	이선영, 김동하, 이해민, 진은혜, 최동식
	운동활동	김성학, 한운철, 조준희, 백광호, 김필두
컴퓨터 교육		조상환, 문은선, 조준희, 강병철, 한운철
비즈공예		문은선, 이선영, 진은혜, 김성학 이상복, 김필두, 김동하, 조상환 한운철, 백광호, 조준희, 김성준
자판기 관리	근로자	이원정, 심재홍
	훈련생	이용국, 조상환
전환고용준비훈련		이해민, 김성준, 이용국, 문은선, 이선영
근로자 기본교육		전체 근로자
지역사회적응훈련		전체 이용인
인권교육		전체 이용인
안전교육		전체 이용인
건강교육		전체 이용인
동아리활동		신청자
해맑음땀방울 농장		신청자 중 평가를 통해 선정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 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 (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들 중 6개월 이상 이용하였으며 ‘근로자 선정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10명을 선정한다.

제6조 (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제7조 (근로 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별표 1)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 (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 4 장 복 무

제9조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35분(09:00~17:30)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단, 추가 근무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쌍방의 합의 하에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55분 (10:25~10:40, 11:40~13:00, 15:00~15:20)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제11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시작 시간(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종료 시간(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3.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2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3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4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기를 정하여 정기휴가를 일괄적으로 여름휴가 1주일, 겨울휴가 1주일을 실시한다.

제15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특별휴가 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 수에 산입한다.

1. 결혼 : 본인(7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회갑 : 본인, 배우자 (1일)
3. 사망 : 배우자(7일), 부모, 자녀(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1일)
4. 출산 : 본인은 출산전후 (90일, 단 산 후 45일 이상 보장), 배우자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휴가, 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시행 2013. 2. 2)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 1]

5.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경조사 특별 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 되지 아니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6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3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단, 3일 이상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8조 (임금지급 기준 및 방법)

1. 본 시설의 임금지급 기준은 '인천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 상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급여 지급 기준'에 준한다.
2. 매월 출근일의 80%이상을 출근했을 시 만근으로 간주하며 80%미만 출근했을 시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 6 장 종 결

제19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 종결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근로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3.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이용인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4)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 되지 않았을 때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0조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1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부모회의

제22조 (부모회의) [신설 2013. 1. 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5세 이하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 및 재활계획회의 결과 신규 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 (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훈련생 선정을 위한 이용인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결원 시 접수 된 순서대로 진단한다.
2. 초기면접과 직업평가 후 재활계획회의 결과에 따라 이용을 결정한다. 필요 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현장평가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타기관의 동일한 진단(6개월 이내)을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1. 이용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퇴소한 자
2.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소자 중 이용기간이 5년 초과된 자
3.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 중 3년 훈련 후 보호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자
단, 3년의 훈련기간 연장자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 후 보호고용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7조 (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별표 1)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서 훈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제8조 (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인의 권리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 (훈련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

-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3)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7)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 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 2) 중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분기당 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2. 훈련수당은 월 1회 훈련수당 지급평가와 실제 훈련일수를 통해 차등 지급된다.

제 3 장 복 무

제12조 (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일 및 훈련시간)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훈련시간은 1일 6시간 35분(09:00~17:30)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3.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50분(10:25~10:40, 11:40~13:00, 15:00~15:20)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제14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시작 시간(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종료 시간(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3.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5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6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

제17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기를 정하여 정기휴가를 일괄적으로 여름휴가 1주일, 겨울휴가 1주일을 실시한다.

제18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특별 휴가 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 수에 산입한다.

1. 결혼 : 본인(7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회갑 : 본인, 배우자 (1일)
3. 사망 : 배우자(7일), 부모, 자녀(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1일)
4. 출산 : 본인은 출산전후 (90일, 단 산 후 45일 이상 보장), 배우자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휴가, 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시행 2013. 2. 2)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 1]
5.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경조사 특별 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 되지 아니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9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3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단, 3일 이상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1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기간 만료

훈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강제 종결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4.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훈련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훈련생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4)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제22조 (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대기자

제23조 (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본 시설 이용 중 특별한 사유(이용인 및 보호자의 입원 혹은 수술, 보호자의 출산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종결을 하고 우선대기(1순위)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모회의

제25조 (부모회의) [신설 2013. 1. 1]

1.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로계약서

본 계약서는 열린일터(이하 “갑”이라 칭함)와 근로장애인(이하 “을”이라 칭함)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 있어 본 시설이 정한 약정 및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서약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로장소 : 열린일터 작업장
3. 근로조건
 - 1) 근로일 :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 2) 근로시간 : 09:00 ~ 17:30 (1일 6시간 35분)
 - 3) 휴게시간 : 1일 1시간 55분 (10:25-10:40, 11:40-13:00, 15:00-15:20)
 - 4) 휴 일 :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시설이 정하는 휴일
 - 5) 휴 가 : 보호고용 운영지침에 준한다.
4. 임금
 - 1) 보호고용 운영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 2) 임금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
5. 준수사항
 - 1) “을”은 열린일터 보호고용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로에 임한다.

2) “을”은 근로 중 안전과 건강 등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파기

1) “갑”은 “을”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성실히 근로하지 않거나 보호고용 운영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7. “갑”은 “을”과의 계약에 대해서 6항 이외에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도록 하고, 본 계약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함을 약속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열린일터 보호고용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장 명 : 열 린 일 터	을 성명 :	(인)
대 표 자 : 김 지 혜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담방서로 23	주소 :	

【별표 2】

훈 련 계 약 서

본 계약서는 열린일터(이하 “갑”이라 칭함)와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이하 “을”이라 칭함)의 훈련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 있어 본 시설이 정한 약정 및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서약하고, 훈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훈련장소 : 열린일터 작업장 및 프로그램실

3. 훈련조건

1) 훈 련 일 :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2) 훈련시간 : 09:00 ~ 17:30 (1일 6시간 35분)

3) 휴게시간 : 1일 1시간 55분 (10:25-10:40, 11:40-13:00, 15:00-15:20)

4) 휴 일 :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시설이 정하는 휴일

5) 휴 가 :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한다.

4. 훈련수당

1) 훈련생 운영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2) 임금지급방법 : 훈련생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

5. 준수사항

1) “을”은 열린일터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훈련에 임

한다.

2) “을”은 훈련 중 안전과 건강 등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파기

1) “갑”은 “을”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성실히 훈련하지 않거나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7. “갑”은 “을”과의 계약에 대해서 6항 이외에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도록 하고, 본 계약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함을 약속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열린일터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장 명 : 열 린 일 터	을 성명 :	(인)
대 표 자 : 김 지 혜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담방서로 23	주소 :	

부모 대상 성(性)교육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13.05.30. 18:30~20:00
장 소	별관 3층 프로그램실(그루터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 대상 성(性)교육

I. 변화하는 우리들의 몸

1. 우리가 성별을 구별하는 방법

생식적으로 탈남성화(여성화)라고 표현한다.

- ① 생식기를 보고 성별을 구별한다.
- ② 성호르몬에 의한 행동을 보고 구별한다. (뇌하수체의 영향)

2. 남자는 시각에 의해서 자극받고, 여자는 청각에 의해서 자극받는다.

- 사춘기가 되면서 남자 몸에 정자가 생산된다.
- 사춘기 전까지 자위행위를 하더라도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 사춘기 전까지의 자위행위는 그냥 즐겁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한다.
- 사춘기 이후부터는 자위행위를 통해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죄의식이 생긴다. 그래서 막상 사랑하는 여자와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는 죄의식이 극심해져서 심리적 불안이 증폭되어 성기능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자위행위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체육활동이나 신체활동 그리고 학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 그 욕망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공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구분해서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성적인 행동은 사적인 행동이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성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임을 인식시킨다.

II. 성폭력예방 교육

1. 내 신체의 안전 삼각지대

양팔을 벌리고 가운데 손가락 밑으로 해서 붙여서 안전 삼각지대를 만들고 절대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터치 당하지 않도록 한다. 팔꿈치를 반만 펴서 배에 붙이고 30cm간격의 원둘레는 나의 보호구역이다.

2.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 기본적인 감정에 의해서 연결시켜서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 비교해서 이야기하기
- 기본감정: (슬픔, 기쁨, 화남, 놀람, 기분 나쁨, 무서움, 부끄러움, 자랑스러움 등)

3. 상황과 접촉 상황으로 접근

***상황1** -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바이킹도 타고 청룡열차도 타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는 친구들과 어깨동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질문: 위 상황은 어떤 접촉의 느낌인가요?

(좋은, 나쁜, 바람직하니 않은) 접촉 / (좋은, 나쁜) 느낌

- 우리 신체는 터치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든지 느끼게 된다.

신체적인 쾌감과 정서적인 느낌은 다를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상황2** - 나보다 덩치가 큰 친구가 “야, 땅꼬마야!”하면서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나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질문: 위 상황은 어떤 접촉의 느낌인가요?

(좋은,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접촉 / (좋은, 나쁜) 느낌

4. 사례를 통해 좋은 행동(접촉) 과 나쁜 행동(비접촉) 비교

5. 사례를 통해 알려야할 비밀과 지켜야할 비밀의 구분

6.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신뢰로운 어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7.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찾기 (주변 보호요인 파악)

*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 책임 질 수 있는 사람

* 내 말을 화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8. OX 문제로 교육내용 확인하기

* 성폭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

* 성폭력은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때리거나, 싫다고 해도 당할 수 있다. ()

* 성폭력은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때리거나, 싫다고 해도 당할 수 있다. ()

*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

* 성폭력은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

(놀이터, 공원, 골목, 엘리베이터, 집, 학교, 학원 등)

*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게서도 피해를 입는다. ()

9.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경계 짓기

- 안전하게 전화할 수 있는 곳 외우기 (112, 119, 1366 등)

10. 안전지대 그려보기

2013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3년 3 월 6 일 16:00-17:00
담 당	김 은 속
장 소	별관 3층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3년도 늘푸른동산 사업 소개 및 운영 방침

1. 목적

주간보호사업은 중증의 장애인들에 대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손실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부모들에게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및 사회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1) 프로그램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7:00까지 진행(송영서비스 시간 제외)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09:00~13:00(토요문화체험) 진행

2) 세부프로그램

- 이용인 정규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9:00-9:40	Tea Time/ 독서 지도					토 요 문 화 체 험 (월1회)
10:00-10:50	*종이접기	생활미용 관리	미술활동	생태교육 /인권교육	음악활동	
10:50-11:00	휴식 시간					
11:00-11:50	대화기술훈련	방송댄스	펜글씨활동	생태교육 /보드게임	성교육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00	*컴퓨터교육	*컴퓨터교육	등산	가사지도	요리활동/ 수중운동	
14:00-15:30	*클럽활동/ 시청각활동	*헬스		*헬스		
15:30-16:00	청소 시간					
16:00-16:40	간식 및 자유시간					
16:40-17:00	종 례					

- 1) *표시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임
 - 2) 클럽활동은 도예체험, 비즈공예, 네일아트, 오카리나로 이용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여 진행됨 : 2012년도 하반기 욕구조사 결과 반영
 - 3) 2013년도 공동모금회지원사업
 “생태교육”-푸르미(푸르른 변화를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들!)
 - ① 생태교육 : 환경운동가 통한 이론실습 교육
 - ② 생태캠프 : 일일캠프
 - ③ 생태기관 견학
 - ④ 환경미화 활동
 - 4) 월 1회 : 지역사회시설이용 실시
 - 5) 년 3회 : 분기별로 각종행사(봄나들이, 일일캠프, 남동송년예술제)
 - 6) 년 6회 : 체지방측정(4회), 독감예방접종(1회), 건강진단(1회)
 - 7) 년 2회 : 구강교육, 비만교육
 - 8) 년 2회 : 상하반기 소방교육
 - 9) 년 5회 :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활동
 - 10) 년 4회 : 상하반기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보호자 욕구조사
- 이용인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 부모상담- 수시
 - 부모교육- 년 4회 실시
 - 부모회 모임- 년 4회 실시
 - 가족여행- 10월중(1박 2일)
 - 가족송년모임 실시 - 12월 중 실시되며, 가족 모두 참석하여 본 센터 사업보고 및 시상식 진행

제 6 장 부모회

제16조 (부모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 모임을 부모회라 칭한다.

제17조 (부모회 및 부모교육)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이용인의 부모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실시하는 부모모임이나 부모교육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이용료

(1) 적응기간 이용인

- 식대는 별도로 날일 구입하여 사용 1일 : 2,500원
- 적응기간에는 정규이용인의 월이용료 기준으로 날일 계산하여 납입

(2) 정규 이용인

- 이용료는 130,000원이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15일까지 입금
(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세대의 경우 이용료는 50% 감면)

(3) 식대는 월 단위로 50,000원 금액을 현금을 납입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5일까지 입금

(4) 2013년도 이용료 산출근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사회 적응 훈련 활동비	방송댄스 이용료	8,500원	월4회×2,125원
	클럽활동 재료비 및 강사료	20,000원	월2회×10,000원
	종이접기 재료비	5,000원	월4회×1,250원
	수영 사용료	2,000원	월2회×1,000원
	통합활동비	10,000원	
	토요문화체험비	15,000원	월1회×15,000원
	지역사회시설이용비	10,000원	월1회×10,000원
	기타활동교구 교재비 (펜글씨, 음악활동, 가사지도, 생활미용관리, 대화기술훈련등)	7,750원	월1회×7,750원
	소계	78,250원	
행사 활동비	나들이	16,000원	2회×100,000원≒12
	송년예술제	5,000원	1회×30,000원≒12
	가족송년모임	10,750원	1회×129,000원≒12
	소계	31,750원	
생계비	간식비	20,000원	4주×5,000원
	소계	20,000원	
	기타운영비	-	
	총계	130,000원	

4) 환불

제14조 (환불)

1. 이용인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 중단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운영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상황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을 정한다. 즉, 15일 이전 종결 시에는 이용료 및 식대는 50%를 지급하고 15일 이후 종결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이용기간 : 3년(서비스 계약서 상단에 이용기간 날짜 명시되어 있음)

3. 서비스 종결 내용

운영규정 중 제 9조 <서비스 종결>

본 주간보호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인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포기 - 이용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이용인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대상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결석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3.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정 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이용인의 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무단으로 서비스에 연 5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 (4)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인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5) 일시종결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단, 일시종결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화재)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국한하며 1개월 이 지날경우 자동종결 된다.

위와 같은 설명을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2013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발달장애 자녀의 행복과 미래설계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3년 8 월 16 일
담 당	김 은 속
장 소	서면자료 배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 자녀의 행복과 미래설계

2013. 8. 16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글 순서

1장. 자녀의 행복과 자립의 기초	1
2장. 자립이냐? 무기력이냐?	9
3장. 자립을 위한 가족의 역할	14
4장. 발달장애인 생애별 자립지원	19
[실습] 자녀 평생설계, 자립생활계획 세우기	23
[더읽을 거리 1] 장애에 대한 대안적 사고 / 박인용	26
[더읽을 거리 2]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의미 / 박숙경	34
[더읽을 거리 3] 발달장애인 옹호기구-영국 체인지 피플 / 이현경	41
[더읽을 거리 4]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제도가 최선인가? / 전현일	48



참고사항

○ 위 교육내용은 과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1년 10월에 있었던 부모교육 자료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장. 자녀의 행복과 자립의 기초

1. 자녀의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박인용(에이블뉴스 2010.7.7)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몇 꼭지 이야기 하려고 한다.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해 온 경험과 주변 장애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다. 앞서 새로운 부모운동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자기옹호 운동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었는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과 활동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부모들. ©에이블뉴스

대부분 장애인 부모들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자녀의 장애를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다가오는 혼란스러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녀의 장애를 올바르게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자녀에 대해 조급함이 자리잡기 쉽고, 주변 사회의 편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그랬지만 많은 부모들이 조급한 생각에 재활치료에 매달려 정작 발달장애인에 필요한 자립능력 지원이나 사회적인 자립경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학교 졸업을 앞두고 비로소 자녀의 자립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겨울 온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자녀에게 자립을 위한 기초소양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는 막막함을 느낀다. 학령기에 자녀를 위해 다양한 재활지원과 교육활동을 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실생활 경험은 부족하며, 학령기 이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프로그램이란게 단편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외에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발달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자기선택과 옹호능력, 자기관리와 신변능력, 자립적 이

동, 사회적 기술 등 자립생활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영·유아기부터 자녀의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만, 자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주기에 따라 자립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발견했던 그릇된 생각과 편견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따가운 지적을 하려고 한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관점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유연한 생각과 상식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는 장애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자녀의 장애를 부정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된다. “내 아이는 장애가 아니야”라고 부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나쁜 사회인식에서 자녀를 방어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다. 영유아기에 발달상의 어려움을 파악했지만 정확하게 장애로 진단하지 못한 부모들이 취하기 쉬운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낙인감 등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유력한 후보가 “장애아인 경우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우생학적인 부정에 이르기까지 장애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억압들이 안타깝게도 처음 자녀의 장애를 발견한 부모들을 현실에서 눈멀게 하고 심리적인 방어기제로 도피하게 만든다.

이는 유명 병원에서 의사들이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진단명이 아니라, ‘반응성 애착장애’나 ‘사회성 형성 부족’이니 어중간한 진단을 남발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장애를 개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협소한 관점 때문에 질병을 진단할 때처럼 오진 가능성을 줄이려 하거나, 아동의 부모들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전달함으로써 정확한 장애인식을 더디게 한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자녀의 장애를 객관적으로 진단했음에도 이를 집안의 수치로 여겨 쉬쉬하며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장애 자녀를 집안이나 시설에서 고립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들도 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존재를 극도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유명 인사들이 많다. 비장애인 주류 사회계층은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장애인을 가치 없는 존재로 부정하는 경향 때문에 스스로 이중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서울시에서 교육환경이 좋다는 강남, 서초, 송파구가 장애학생들에게는 가장 힘겨운 특수교육의 불모지로 평가되고 있는 아이러니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내 아이는 지적 장애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면서도 “내 아인 달라요. 지적 장애가 아닙니다” 라며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부모들이 있다. 지적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이른바 경계급 장애, 지적 기능이 높은 자폐성 장애, ADHD(주의부족-과잉행동) 등 정서나 행동상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부모들이 취하기 쉬운 태도다.

지적 능력은 그래도 낮다고 애써 위안을 삼으려는 것일 수 있지만, 지적 기능은 아동의 발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리고 지적 장애를 더욱 곤란하고 심각한 장애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지적 기능과 정서, 사회적인 발달이 불일치할수록 아동은 자아 발달을 힘겹게 경험할 것이므로 정서, 사회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진다.

장애를 가진 딸아이를 관찰하면서 발달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지적인 발달보다 정서, 사회적인 발달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다. 몸과 마음이 서로 통합하여 발달하고, 장애아동의 발달도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자아발달이라는 상식을 기억한다면, 자녀의 발달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균형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아이는 신체장애일 뿐이다?

세 번째는 뇌병변 장애 등 신체장애와 발달상의 장애를 함께 가진 아동의 부모들이 “내 아이는 발달장애가 아니라, 신체장애일 뿐이야”라고 애써 자녀의 발달상 문제를 회피하여 자녀의 장애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뇌병변 장애아동 중에는 발달상의 어려움을 중복으로 가진 경우가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발달장애로 낙인받는 게 싫다고 발달상의 지원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자녀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닐까?

뇌병변 장애 등으로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취학시킨 학부모들 중에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제도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잘라서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매우 당혹스럽다. 정말 자녀의 장애가 발달장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모든 장애인에게 그 지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외의 경우 발달장애를 폭넓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국 발달장애인지원법은 22세 이전의 지적 또는 신체적 손상으로 자기 돌봄, 이해력, 언어표현, 학습, 이동 자기결정, 독립생활, 자급자족 등 8개 영역 중에서 3개 이상의 곤란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로 규정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기 돌봄과 독립이동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하기 곤란한 신체장애인도 발달장애에 해당되어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

부모들마저도 자녀의 장애를 부정하거나 장애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과 부정은 장애문제를 개인의 손상으로 보고 병리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협소한 관점(장애에 대한 의료 모델)과 차별적인 관행 때문에 만들어 진다. 사회적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장애가 더 이상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문제로 정착되었다면, 어떤 장애인 부모도 장애인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녀의 장애를 부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를 부정하거나 무기력한 현실도피를 선택할게 아니라, 장애인 자녀를 둘러싼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권리를 옹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겠다. 장애에 대한 인식,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가능성을 결정한다.

※ 캘리포니아 ‘랜터만법’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상, 유사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

2. 아동은 무엇으로 발달하는가

박인용(에이블뉴스 2010.8.5)

발달장애를 가진 열다섯 살 딸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몇 차례 크게 바꾼 것 같다. 발달장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을 도울 것인지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우리 부부가 가진 양육관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병원에서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두 돌 무렵에 딸아이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했고 언어적인 표현이 거의 없었다. 보통 장애유아 부모들이 그렇듯이 소아신경과 의사의 진단과 권고에 따라 곧바로 아이의 조기치료 과정을 밟게 되었다. 유아기에 아이가 가진 장애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인데, 재활치료, 치료교육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개별적인 조기중재였다.



행복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

▲약수터 숲체험 장면. 무서워하면서도 고목에 깊이 손을 넣는 딸아이. ©박인용

아이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된 후 갖게 된 가장 큰 고통은 과연 아이가 ‘엄마 아빠와 소통하면서 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발달이 더디고 언어표현은 안되었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애착을 표현하며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딸아이가 가족 안에서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어 획득과 지적 능력, 신변관리 능력에서 여전히 취약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도움을 주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무겁게 다가온 딸아이의 장애에 대한 비극적인 통념은 좀 더 가벼운 것으로,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두 돌 넘어서부터 아이의 발달을 위해 인지, 언어, 신변능력, 사회성, 대소근육 등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언어치료, 감각통합 활동, 인지교육 등 이른바 여러 재활치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난다. 발달장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무하던 시절에 아이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이고 심리적 부담감이 컸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싸우고 국가사회를 변혁해서 이뤄야 할 또 다른 문제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약자중의 약

자인 발달장애를 가진 딸아이로 인해서 궁극적인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네 돌이 지나 아빠, 엄마 순서로 첫 발화를 하면서 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곧이어 독립 보행을 달성했고 달리기를 시도했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는데 아이의 두 발이 지면에서 도약하면서 달리는 모습에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알아듣기 어려운 불완전한 발음이지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은유와 상징으로 다양하게 세상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장족의 발전을 느낀다.

그러나 아이의 발전이 미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것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믿었기에 조급함을 버릴 수 있었다. 오늘도 네발 자전거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아이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더디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운다.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한다

우리 부부는 무엇이 아이의 발전을 가져왔을까 지금도 많은 대화를 하곤 하는데, 아동의 발달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적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진 고유한 의지와 잠재능력이라고 확신한다. 자신감과 용기, 위험을 두려워 하지 않는 마음이 장애를 가졌건 아니건 아동을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힘이 아닐까?

두 번째는 자연과 사회 안에서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발달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몸에 대한 경험, 가족이나 또래 안에서의 교감과 대화, 물질과 사물에 대한 경험이 아동을 발달하게 한다는 건 아동발달의 이론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었다. 재활치료 등 인위적인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개입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세 번째 요인이 될 것이다.

아동의 잠재능력에 대해 우리를 놀라게 했던 어릴 적 한 사례를 소개한다. 초등학교 1학년때 독립이동이 불가능해 늘 보호가 필요했고, 엄마와 같이 500미터 등하교가 전부였던 아이에게 어느날 작은 사고가 생겼다.

우리 가족은 1.5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산 자락에 있는 약수터에 자주 가곤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 어느날 저녁 딸아이가 잠든 사이에 차를 이용해 잠깐 다녀오기로 했다. 약수터에서 돌아와 보니 잠자던 딸아이가 사라져 있었다. 실종신고를 하고 동네 주변을 뒤졌으나 딸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두어시간 후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산자락에서 서성이는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되었다고 했다. 우리가 놀란 것은 아이의 배낭에 약수물이 담긴 물병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보통 아이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를 혼자 걷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지나 아빠가 먼저 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낭을 메고 험난한 약수터를 다녀온 것이었다.

우리 부부는 지적 장애, 발달장애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진 잠재 능력에 대해 놀라게 되었고, 아이의 자립능력에 대해 새롭게 사고하게 되었다. 이런 계기로 우리 부부는 대응능력이 취약한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독립이동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도하게 되었다. 교통신호 등에 대해 약간의 적응훈련을 거쳐 등하교를 독립해서 하도록 했다. 물론 동생과 같이 가기도 했고, 사거리에 있는 녹색어머니회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교통신호에 맞춰 스스로 대로를 건너 독립해서 등하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난적도 있었지만, 발달장애 아이를 혼자 등하교시키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주변 부모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우리 부부는 아이가 자립생활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이가 구어적인 언어능력을 획득하게 된 과정도 되돌아보면 결코 실력있는 치료사에게 아이를 맡겨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부부는 가족 안에서의 교감과 일상 대화, 다양한 그림 동화가 아이의 언어발달을 비약적으로 촉진시켰다고 믿고 있다. 언어 치료사인 아내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하나의 단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고, 집에서 아이에게 반복해서 읽어준 그림동화가 수 만 권에 이른다.

물론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또래관계의 활성화도 아이의 언어발달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아무튼 아이가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시도하려는 아이 자신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아동에게 발달이란?

발달 = 자아의 발달(몸, 마음, 인식)
 = 자신에 대한 인식과 신념(자아상 + 자신감)의 발달
 = 자기경험(신체경험, 자기영향력)의 산물
 = 자립생활의 기초 ↔ 학습된 무기력(Seligman)

※ 피아제의 발달이론

내적 성숙이 발달을 촉진하며, 직접적 경험으로부터 논리나 지능이 발달한다. 신체적 경험은 자발적, 심리적인 지적 발달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적 발달은 외부로부터의 지식이나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뤄진다고 한다.

피아제의 발달이론은 이전 단계의 발달을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발달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장애아동도 일반적인 발달연령과 다르지만 이러한 발달과정을 거친다. 심한 발달장애인은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내적 경험을 통해 대부분 구체적 조작기로 발전할 수 있다.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20~40대)에도 발달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

(1)감각운동기(출생에서 2세까지) : 출생 직후부터 초기의 유아적 언어를 사용하는 상징적 사고가 시작되는 2세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a. 반사활동기. b.일차순환반응 c. 이차순환반응 d. 이차도식들의 협응 e. 삼차 순환반응 f. 상징적 표상).

(2)전조작기(2세에서 7세까지) : 논리 보다는 지각에 아직 더 의존한다. 언어능력이 발달하고 사물이나 사건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표상이 가능해진다. 길이와 수 등 논리적 개념을 혼동한다(빗자루를 총이라고 하면서 총싸움을 하고, 인형이 찢어지면 아프겠다는 생각을 한다).

(3)구체적 조작기(7세에서 12세까지) : 논리적 사고로 전환하고 보존개념을 이해한다. 다양한 지적 과업을 수행하며, 조작의 대부분을 직접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다.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여 동일성, 보상성, 역조작을 한다. 상위 항목과 하위 유목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열개념을 획득한다.

(4)형식적 조작기(12세에서 성인기까지) :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지게 된다(a. 가설-연역적 인지구조. b. 조합적 분석능력. c.추상적 사고).

2장. 자립이냐? 무기력이냐?

1. 자녀의 발달을 가로 막는 부모들

박인용(에이블뉴스 2010.8.12)

앞서 발달장애 아동을 발전시키는 힘은 아동 자신에게 있고 스스로의 경험에 결정한다고 이야기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아동의 발달에 대한 분분한 이론들이 있지만, 부모로서 양육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냉정하게 관찰한 결과였다는 점을 부연한다.

오늘은 발달장애인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보이는 다양한 기질들, 즉 자폐적인 성향, 산만함, 까다로움, 느린 반응, 과잉 행동 등이 늘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아무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발달이나 자립능력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다뤄져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손상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단된 손상과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으로 인해 발달하고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의료적 진단에 길들여진 부모들이나 재활전문가들은 마치 질병의 원인을 밝히려는 하듯이 손상에 집중하여 손상으로 인한 기질이나 행동을 문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기질적 특성을 약물로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과도한 의료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은 일시적으로 어떤 행동 성향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발달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더욱이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들이 가진 기질적 속성과 그 행동들은 때때로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되거나 방해 행동이 되므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재활교육을 지원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이 가진 기질이나 특이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억제하려 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발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몇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최근 교육현장에 배치된 특수교육 보조원들이 주입식 교육환경의 교실 안에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발달장애 학생들을 다루기 쉽다. 교육보조원이 무조건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라고 지시하면서 자폐성 학생들의 상동행동이나 ADHD(주의부족 또는 과잉행동) 학생들의 움직임을 억지로 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교실을 감옥처럼 느껴 억압 경험을 표출하거나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딸 아이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보조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이다.

어느 지적 장애인 부모는 다른 자폐성 아이의 상동 행동을 자녀가 모방한다고 같은 교실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려했다. 학습능력이 좋은 자폐성 아이의 부모 중에는 학습이 어려운 지적 장애학생과 같은 모둠이 되면, 자녀가 배울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보다 심한 장애학생이 같은 학급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고, 인지능력이나 교과학습만이 중요한 발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지적 장애아동은 지적능력이 약하지만, 그로인해 갖게 된 단순한 호기심은 경험세계 속에 쉽게 참여하게 하고 그것이 그 아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지적능력이 취약한 딸아이의 아이의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은 다양한 신체 움직임과 사물에 대한 경험,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경험을 증폭시킨다. 물론 돌발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부작용은 지적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어떤 행동과 사물에 집착하는 특성을 가진 자폐성 아동이라면 그런 행동과 사물경험을 통해 외부세계를 배우고 다른 사람과 대면할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기차역 외우기와 기차 타기를 좋아하는 어느 발달장애 아동은 기차로 전국을 일주하며 다양한 사물과 지리, 이동경로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학습능력과 동기가 부족한 산만한 ADHD 아이들에게 그 산만함이 없다면 스스로 발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산만한 행동은 ADHD 아이들을 발달시키는 힘이다. 방해 행동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산만한 행동 자체를 억제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만약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을 일상화한다면, 아동은 발달 기회는 물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잃게 된다.

발달장애인이 가진 손상이나 특이한 기질을 어떤 사람들은 장애라고 부르지만, 자신들마다 가진 고유한 기질과 특성을 통해 발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손상이 장애가 아니라 그것에 덧붙여 보편적인 욕구를 억압할 때 장애가 만들어(disabling) 진다. 부모들은 자녀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발달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늘 자신을 관찰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2. 자립의 반대는 ‘학습된 무기력’

박인용(에이블뉴스 2010.10.1)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보다 단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절망감을 드러내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공감한다. 자립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무래도 본인 사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부모들도 ‘자녀보다 5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푸념을 쏟아 놓기도 한다. 장애인 복지나 자립생활 기반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발달장애인 부모의 짐이란 게 본인 사후에도 놓기 어려울 만큼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장애를 가진 딸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고 아이의 평생계획을 잘 세워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네 부모들이 부모운동을 통해 열심히 투쟁해서 발달장애인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 환경과 복지제도를 구축해 놓을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부모 폐기 모건이 쓴 '장애자녀 평생설계' ©알라딘

자립생활 계획은 자녀 평생계획

최근 미국 장애인 부모 폐기 모건이 쓴 <부모가 알아야 할 장애자녀 평생설계>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다운증후군 청년의 양어머니인 모건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 하는 떨칠 수 없는 물음을 던지면서도 자녀의 장애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녀를 위한 평생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나가는 모범을 보여준다.

그는 자녀의 꿈에서 출발해서 아이에게 행복한 자립적인 생활 목표를 세우고, 직업, 주거, 룸메이트, 권리옹호, 재정신탁, 변호인, 지원그룹, 장애인 인권운동, 지역공동체 세우기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12살부터는 자립생활을 위한 이행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외로움(고립)이 진짜 장애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지지망과 자립적인 사회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해외 부모의 앞선 경험담을 읽으면서 장애인 자녀를 위해 한치 계획 세우기가 막막하기만 한 우리네 부모들의 현실을 돌아본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정에서부터 충실히 실천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네 부모들은 자녀의 자립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가?

자립생활의 반대말은 ‘학습된 무기력’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학습된 무기력’인데, 자립생활을 가로 막는 의존성 심화를 나타내는 말이다. 심리학자 쉐리만(Seligman)이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본질을 알려준다. 학습된 무기력은 어떤 상황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반복되는 실패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심리적 무력감을 말한다.

학습된 무기력은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른바 ‘시설병’이라고도 한다. 생활시설에서는 생활지도 교사의 통제 아래 단체 생활을 하게 되므로 동일한 일과시간을 강요하게 되어 본인의 욕구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잔소리와 체벌 등의 통제가 일상화되고, 밖에 나가면 길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외출을 제한하게 되고, 퇴소할 수 없는 처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하게 된다. 결국 자립생활을 선택할 가능성인 퇴소 의지마저 가로 막는다.

생활시설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성폭력, 감금, 약물중독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자립생활의 핵심이 자기결정(또는 자기선택)인데, 생활시설에서는 일상적인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시설에서 학습되는 무기력

그렇다고 학습된 무기력이 생활시설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공동 주거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도 가정과 같은 개인적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습된 무기력이 똑같이 나타난다. 교사의 통제, 공동생활 여건은 생활시설과 똑같기 때문이다.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에게서 학습된 무기력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신변 능력이 있는데도 세면대에서 손을 스스로 씻지 않고 교사가 비누를 묻혀 씻어 주기를 기다린다. 신발을 스스로 신지 않고 신겨 주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스스로 보행하려는 동기가 없어 교사가 등을 떠밀어야만 움직이는 아이들도 볼 수 있다.

공동생활 가정과 단기보호센터는 지역사회시설로 분류되지만, 자립생활 지원이 없는 단순 보호시설이다. 그래서 정부도 생활시설과 다를 바 없는 거주시설로 파악하고 생활시

설에 준하여 소규모 거주시설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학습되는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 가정에서도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부모들은 아주 적다. 발달장애인은 반복적인 실패 경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한 두려움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어 아동기부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가정 안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무엇보다도 장애인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늘 어린 아이로 취급하는 동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온다.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과잉보호’는 자녀의 자기결정 기회를 박탈하고 무기력한 의존성을 낳는다. 그리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이나 재활치료 때문에 오히려 실패 경험 만을 반복하게 되고 학습된 무기력을 가져오기도 한다.

게다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부모가 먼저 사람들을 회피할 때, 장애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잃고 만다. 개별적 지원이 부족하고 통제만 있는 학교환경을 바꿔내지 못할 때, 장애자녀에게 무기력을 학습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된 무기력을 없애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지 매일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자립생활’이란게 언젠가는 자녀를 집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제발 벗어나면 좋겠다.

3장. 자립을 위한 가족의 역할

1. 재활이냐? 자립생활이냐?

박인용(에이블뉴스 2010.8.23)

보통 발달장애는 의사에 의해 진단이 이뤄지고, 재활치료라는 이름으로 처방이 제시된다. 치료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의료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이른바 ‘장애에 대한 재활모델’은 발달장애 유아들을 위한 발달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료적인 관점에서 내놓은 진단과 처방은 장애의 사회적 배경을 간과하는 재활 중심의 철학에 기초한다.

재활모델은 한 마디로 장애에 대한 개별적이고 의료적인 지원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애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는 의지와 처방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개인이 가진 손상에 따른 문제로 인식하여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여 조기에 치료하면 정상에 가깝게 될 것이라는 장애극복의 환상을 갖게 한다. 장애는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인 편견을 가지고 극복해야하는 것으로만 바라본다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존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런 편견 때문에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역량강화 보다는 치료기관과 치료사에 대한 맹신을 가지기 쉽고, 마치 명의를 찾는 난치병 환자와 같이 유명한 치료사나 치료방법을 따라 우왕좌왕하며 유아기를 보내기 쉽다.

두 번째로 재활모델은 조기에 개별적인 재활치료에 집중하면 좀 더 빨리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발달장애를 소아기에 발생하여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재활모델은 장애의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고 개인적 문제, 장애인 개인의 능력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제도의 변화, 장애인식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 가능성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반면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주창된 자립생활 모델은 사회인식의 변화, 지원제도의 변화, 장애인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권익옹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에겐 재활이 전부라고 여기는 구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재활모델은 경쟁모델로 만들어진 주류사회가 장애인들에게 내놓은 능력모델과 다르지 않다. 발달장애인은 그저 가족과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온실에 갇혀 보호만 받아야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결국 재활에 성공하지 못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은 생활시설이라는 형태의 수용이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자립생활은 그저 상태가 좋은 장애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자녀들의 자립 능력을 과소평가 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 많다. 부모나 전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발달장애인들 스스로의 자기결정을 부정하고 억압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자립생활 능력에 맞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호의 대상 만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자립생활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박인용(에이블뉴스 2010.9.17)

2007년 방한한 미국의 탈시설 부모운동가 캐시(Cathy Ficker Terril)는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정부 운영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하자(Closure of Government Operated Institutions and Building Inclusive Community Supports)’는 강연을 하며 지역사회 거주의 당위성을 이렇게 강변했다.



▲보행과 언어가 안되는 아동에게 그림과 소리를 활용한 대체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장면. ©박인용

“시설은 곧 차별이다. 시설은 사람을 분리시킨다. 시설은 사람들을 그의 의지에 반해서 감금해 놓는다. 시설은 사회참여에 대한 장벽이다. 시설은 가정, 지역사회, 인간의 자유

에 대해 반대되는 것이다.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대다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적장애인들이 시설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고,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차별없이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립생활은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

부모들에게 발달장애인들도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이 가능할까요?”라고 되묻는 분들이 많다. 또는 “장애가 가벼워 뭐가 되는 이들은 가능하겠지만, 장애가 심한 이들은 안되겠지요”라며 자립생활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통속적인 홀로서기 능력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사회경제적 독립, 주거와 생활의 독립은 엄밀히 말하면, 자립생활이 아니라 자립능력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당신은 자립할 능력이 있느냐’고 능력을 따지는 ‘능력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가족에게서 독립하여 자기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성인기 비장애인들의 통속적인 자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립생활은 앞서 캐시가 역설한 대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권리 모델’이다. 그런데도 장애인 부모들 뿐만 아니라 복지활동가들조차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권리가 아니라 자립 능력의 문제로 자꾸 혼동한다. 이것은 서구에서 들여온 자립생활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인도 있지만, 기존의 재활모델에 오염된 사고들이 자꾸만 장애인의 자립을 능력과 기능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립생활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 가능성을 존중하고, 개인마다 가진 자립생활의 다양한 수준과 방식들에 맞게 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의 정도가 다르다고, 자립능력이 다르다고 자립생활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발달장애일자립생활의 원리 1 - 의존을 유발하지 않는 지원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인 미국 에드 로버트(Edward Roberts)는 자립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라고 정의했다. 미국자립생활협의회(NCIL)는 자립생활을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지역사회에서 시민권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자기결정권)를 가진다는 데서 출발한다. 근래 자립생활은 어떤 장애인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래의 장애인 운동의 이념이자,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패러다임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흔히 지원생활(Supported Living)을 의미하는데,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누구와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지지적인 환경 기반(소득, 주택, 개인돌보미, 후견인, 권리옹호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원 생활은 의존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 지원(Nondependency creating services)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지원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줄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지원서비스에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들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옹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하면 의존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발달장애일자립생활의 원리 2 - 권리옹호와 자기결정 지원

대체로 발달장애인들은 자기 통제와 자기선택 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더 자기결정 권리를 옹호하고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발달장애일자립생활에서는 권리옹호 제도(P&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라고 불리는 지지망이 필수적이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개인적인 옹호관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나아가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자기옹호운동(people first)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나 복지활동가들은 종종 “그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요!”

라며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무시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울거나 소리칠 때, 그 행동과 얼굴 표정을 보고 메시지를 해석하는 등 의사소통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시각적인 보조물 등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있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그림과 같은 상징이나 보조물, 전략과 기술들을 사용하는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방법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 사회는 가족과 시설 보호에만 익숙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 주거모델과 자립생활 지원제도가 취약해 지원생활을 시도하기가 아직도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의존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발달장애인자립생활 원리,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의사결정 및 의사표현 지원 원칙은 가족 내에서도 성인이 이전에도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아주 인간적인 요구들이다.

4장. 발달장애인 생애별 자립지원

자립생활 준비는 청소년기부터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성인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자립생활 준비와 성인기 이행에 대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그리고 가족 지원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욕구가 주로 성인기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연령과 비례하지 않는 발달상의 성취가 자립생활의 조건을 제공하고 서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발달과 교육이 이뤄지는 유아기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족의 절대적 보호에서 벗어나 성인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12~14세)부터는 자립생활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Peggy, 2010).

그밖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건강발달 지원, 가족지원 등 별도의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어느 국가든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재정지원을 받아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에 대해서는 1)자립생활 가정,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 등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 2)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도입 3)실효성있는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의한 소득보장 등 보다 장기적이고 커다란 부모운동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 행정국(발달장애인국 등)이 조직되었고, 이러한 행정국은 재활법이나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국가 재정을 지원하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활법에 근거한 자립생활센터(ILC)들은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를 위해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리옹호 등 필수적인 자립지원 서비스와 주택, 활동보조, 교육 등 다양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은 발달장애인 평생계획, 성인기 이행계획, 부모사후 준비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생애주기별로 전개되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와 실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과제

자립지원	주요 지원내용	시작 연령기
자기관리(Self Management) 지원	자기보호, 건강관리, 일상생활(ADL)능력, 이동능력, 활동지원	아동기
사회기술(Social skill) 지원	의사소통 능력, 대인기술, 지역사회이용, 자립생활 기술 등	아동기
자기옹호(Self-Advocacy)	자기결정, 자기권리 주장, 자조집단, 성적 결정권 지원	청소년기
여가문화, 직업능력, 성인교육 지원	여가능력, 문화창작, 성인교육 등 사례관리 지원	청소년기
주거 지원	자립주거 체험, 공동생활 지원	청년기
결혼, 육아 지원	결혼생활, 육아지원	청년기
직업재활, 고용연계 지원	직업능력지원, 고용지원	청, 장년기

1) 자기관리, 사회기술 능력과 학령기 교육

자기관리, 사회기술은 기본적인 신변과 안전, 일상생활 및 활동능력, 대인기술과 지역사회 이용기술에 대한 지원들이 포함되는데, 자립생활 측면에서 장애인 교육은 자기관리(Self Management)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령기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립기술 지원은 주로 학령기 특수교육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2008년 ‘장애인교육법’ 시행 이후에도 특수교사 증원 실패, 실생활이 아닌 교과 위주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편 답습, 지역사회 중심 특수교육 실천이 부실한 상태다.

2) 자기옹호 및 성(性)적 결정권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권익보호(self-advocacy)와 부모 등 가족도 옹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성적 결정능력에 있어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고 관리하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적절하게 이성 관계를 맺고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예술, 직업능력 등 성인교육 지원

문화예술 창작, 사회활동 능력도 발달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직업적 가치를 가진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화폐적 가치를 생산하는 임금노동, 생산노동 만이 직업적 가치라고 보는 것은 발달장애인에게는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자원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은 화폐적 가치로 환산되기 어려운 더욱 의미있는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역사무소에서 직업능력평가 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직업능력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청소년의 직업선택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학령기 이후의 성인기 교육(Adult Education)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제도적 지원(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사회 문화여가시설 이용, 자기주장, 권리옹호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연계 지원이 관건이다.

4) 결혼 및 육아 지원

우리나라는 아직도 발달장애인들의 성생활 가능성을 부정하고,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많은데, 발달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랑과 성에 대한 표현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생활 및 육아 지원 등이 필요한데, 생활시설 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제도가 빈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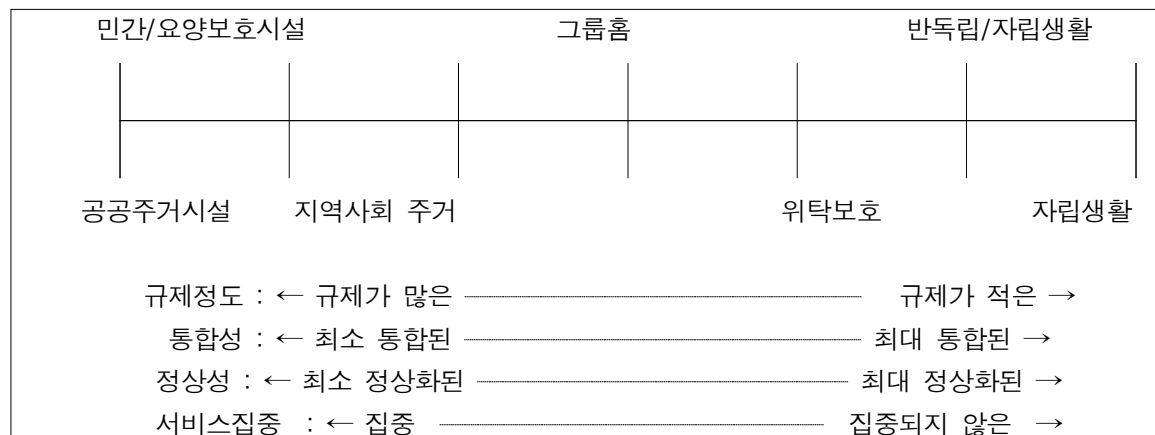
5) 주거 지원

장애인에게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독립과 지원이 중요하며, 정상화나 사회통합 원칙에 따라 다양한 주거 모형과 이에 따른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세대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주거모형은 그룹홈, 위탁가정이 전부인 것인 양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다.

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일환으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이내의 소규모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그룹홈, 케어홈, 단기케어홈(Respite Care Home) 등 거주홈으로 구분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홈을 지원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설보호주의를 폐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사회에 자립생활 기반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재의 생활시설과 다를 바 없으며,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고 지역사회 거주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가정, 체험 홈 등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다양한 주거모형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자립생활 가정 등 즉각적인 주거지원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미국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전환(transition)을 지원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김종인, 2004)

□ 미국 발달장애인의 주거 연계 모형



6) 직업 및 고용연계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은 일반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무지도원(job coach) 등 인적 지원을 통한 현장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지원고용(개별배치 모형, 이동작업대, 소그룹 취업 등) 모형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고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상담과 고용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정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7) 부모 사후 대책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가족역량(empowerment)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 기능의 강화와 강점을 살리는 가족중심 실천 모델에 기반하여, 특히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료상담, 자립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훈련, 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의 직업생활 지원 등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습] 자녀 평생설계, 자립생활계획 세우기

장애자녀 평생설계 - 미국 폐기 모건의 사례

- 26세 다운, 자폐청년 빌리의 양부모로서 2006년말 응급 입원을 계기로 이 책을 씀.
- 자녀의 꿈에서 출발해서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목표로 계획세울 것, 외로움(고립)이 진짜 장애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관계가 중요. 12살부터는 자립생활을 위한 이행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1. 이행설계서 만들기

- 자녀의 자립생활 가능성과 돌봄 정도에 따라
: 주거, 직업, 재정 등 3가지 목표 설정

2. 단기목표(자립생활 계획) 실행

1)직업목표

2)주거목표

- 혼자서 집안일과 자기일과를 할 수 있게(독립, 또는 ▲미국 부모 폐기 모건이 쓴 '장애자녀 평생설계' ©알라딘 준독립)

3)룸메이트 찾기

4)자기권리주장 훈련(피플 퍼스트 모임 참석)

3. 기타 준비사항

1)유언장과 신탁 : 대리인 지명(후견인, 재산관리인, 신탁관리인)

2)지지망 만들기 : 변호인, 지원그룹, 장애인 인권운동, 작은공동체 세우기 등

3)자녀 자료 : 사진앨범, 이야기, 그림일과표 작성(도우미용)

4)특별한 지지자 : (특별한 친구, 사후 돌보미)



() 평생설계(AP)

평생설계(성인기 이행계획)란?

- ▷ 성인기 자립이행을 위한 장기계획이다! (자녀나이 25~30세이후 성인기 이행 포함)
- ▷ 청소년기(12살~14살)부터는 자립생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 ▷ 자녀의 꿈에서 출발해서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주거, 직업(할거리,즐길거리), 재정 등 3가지는 꼭 넣어야 한다!

내 자녀의 꿈 & 행복을 한 줄로 써 봅니다~

()

	자립수준	비고
주거 목표	1. 완전독립(독립주택, 자립홈) 2. 반 독립(가족도움, 활동보조인 지원) 3. 지원주거(그룹홈, 부정기 교사) 4. 거주시설(그룹홈, 주중 단기보호)	주거재정 () 주거지 ()
직업 목표	1. 완전고용(농업,생산,서비스,문화창작,작업) 2. 지원고용(농업,생산,서비스,문화창작,작업) 1) 장애인 고용기업 2) 장애인 사회적기업 3) 가족기업 3. 보호고용 1) 장애인 사회적기업 2) 가족기업 3) 보호작업장 4. 평생교육(창작) 1) 지역기관 2) 가족내 5. 문화여가/자원봉사 1), 2)	1~3 세부 직종 () 4~5 특기나 취미 ()
재정	1. 정부지원 -국가:연금(10), 수급권(30), 고용장려금(40만원) -지자체(시청, 구청) : 2. 공적기금(지자체, 공익재단) : 3. 후원(친인척/지인/민간) : 4. 가족재산()	1()천만 2()천만 3()천만 4()천만

기타 준비사항

- 1)유언장과 신탁 : 대리인 지명(후견인, 재산관리인, 신탁관리인)
- 2)지지망 만들기 : 변호인, 지원그룹, 장애인 인권운동, 작은공동체 세우기 등
- 3)자녀 자료 : 사진앨범, 이야기, 그림일과표 작성(도우미용)
- 4)특별한 지지자 : (특별한 친구, 사후 돌보미)

() 자립생활계획(ILP)

단기목표(단기 자립생활 계획)

현재 자녀가 원하거나, 당장 꼭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표는?

(신체기능, 자기관리, 일상생활, 학교생활,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주장, 문화여가활동 등에서)

목표 : _____

자립생활 영역	주요 지원내용	시작 연령기
자기관리(Self Management) 지원	자기보호, 건강관리, 일상생활(ADL)능력, 이동능력, 활동지원	아동기
사회기술(Social skill) 지원	의사소통 능력, 대인기술, 지역사회이용, 자립생활 기술 등	아동기
자기옹호(Self-Advocacy)	자기결정, 자기권리 주장, 자조집단, 성적 결정권 지원	청소년기
여가문화, 직업능력, 성인교육 지원	여가능력, 문화창작, 성인교육 등 사례관리 지원	청소년기
주거 지원	자립주거 체험, 공동생활 지원	청년기
결혼, 육아 지원	결혼생활, 육아지원	청년기
직업재활, 고용연계 지원	직업능력지원, 고용지원	청, 장년기

1년 단기 목표 세우기

단기 목표	6개월후 목표	1년후 목표	훈련계획(ITP)		
			도구	지원자	지원방법
1.신체기능(이동)					
2.일상생활능력					
3.건강					
4.작업					
5.학습					
6.금전관리					
7.의사소통					
8.정신(독립심)					
9.사회생활					
10.간호					

매일매일 실행계획

1. _____
2. _____
3. _____

장애에 대한 대안적 사고

박인용

전통적 사고(개별적 모델, 사회적 비극이론)

“내 자녀가 가진 손상이 장애이다.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의 비극이 되었다.

손상을 치료하고 기능을 높이면 내 자녀도 비장애인처럼 대우받을 것이다”

다수 장애인 부모들이 동의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논리를 동원할 때가 많다. 의료 모델(또는 재활모델), 개인적 비극이론이라고 하는 오래된 논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장애개념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이고 주류적 논리로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결정해왔는데, 장애인과 가족의 권리를 위축시켜 왔다.

장애인을 환자와 같이 치료하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의료적인 접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능향상과 행동수정을 위한 치료나 교육, 훈련의 차원에서 접근방법이 모색된다.

문제는 장애인 개인, 즉 개별적 관점에 매몰되어 장애를 둘러싼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 환경 등 사회적인 요인들은 무시하고, 장애는 근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열등감과 동정적 근거를 심어준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이 의료 및 기타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억압적이고 편파적인 시각이 생겨난다.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 비극으로서 마치 ‘사회적 죽음’을 선고 받는 것과 같다(Finkelstein). 장애인 문제의 개인화, 정상성 강요(able-bodied normality), 의료화 이데올로기를 통해 장애인에게 억압적이고 통제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기준

개 념	의 미	차 원
건강상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정상성’이 발생하였다.	-
손 상 (impairments)	↓ 다른 사람이 어떤 개인의 ‘비정상성(질병)’을 인식하였다.	신체적 차원
기능제약 (disabilities)	↓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감소되었다.	개인적 차원
사회적 불리 (handicaps)	↓ 기능제약에 따라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 발생해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사회적 차원

국제장애분류기준은 장애를 가져오는 사회적인 원인은 무시하고, 개인이 운이 없어 갖게 된 손상 때문에 장애(disabilities)를 갖게 된다고 본다. 즉 장애는 개인에게 발생한 비극이자, 손상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로서 정상이 아니라는 열등감과 동정적 근거를 심어준다.

이는 장애인 자신의 눈이 아닌 치료자의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의사나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전제한다. 가장 큰 해악은 장애인에게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가져다 준다는 점인데, 장애를 치료의 문제로만 보려는 전문가주의에 매몰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부모들도 그런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 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한다. 이는 병리학적 관점에서 장애의 형성 요인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한 개별적인 생활제약 요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은 우리사회가 장애에 대한 개인적, 비극적인 정의를 공식화하고 있고, 그 사회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재활, 개인적 보상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도 치료와 기능적 적응의 문제로 바라보는 재활모델에 기초하는 기능주의 편향이 강하다. 장애학생의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기능적 적응만이 강조되어 학교현장에서 교육통합과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자신의 정체성 교육, 자기권리 옹호, 부모의 교육과정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적 사고(사회적 모델, 사회적 억압이론)

“내 자녀의 손상이 차별로 인해 장애가 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면 나와 가족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 장애인운동 진영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배제와 불리’라고 보면서,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 WHO의 장애 개념 대신에 사회적 모델(사회적 억압이론)로 알려진 장애 개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차별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UPIAS)’은 장애인 손상 위에 강요된 그 무엇이라고 보고,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소외되며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피억압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UPIAS의 장애 개념은 영국 장애학자 올리버(Oliver)에 의해 ‘사회적 장애’ 개념으로 정립되었는데, 사회적 장애 개념에 따르면 손상과 장애는 별개의 문제다. 장애는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로 만드는(disabling)’, 즉 불필요하게 사회활동 참여에서 소외시키거나 배제함으로써 손상에 덧붙여 부과되는 것이다. 장애학자 토마스는 심리적, 정서적 삶의 질까지 고려하여 장애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가장 훌륭한 정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UPIAS의 장애개념

손상 (impairment)	신체 전체나 일부가 없는 것, 또는 신체의 외형이나 기관, 기능이 결함을 가진 것
장애 (disability)	신체 손상을 가진 이들에 대해 사회조직이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사회 활동 참여가 배제되고, ‘사회적 불리와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

Tomas의 장애개념

장애 (disability)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사회적으로 부과한 활동의 제약과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삶의 질(well-being)을 훼손하게 만드는 사회적 작동을 포함한 ‘억압의 한 형태’
--------------------	--

장애를 사회적 억압, 차별로 정의하면 장애인은 개인적 비극이라기 보다는 무지한 사회에 의한 집단적 희생자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개인적 보상보다는 억압을 줄이는 사회정책을 추구하여 개인의 손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보다도 환경의 변화를 우선하게 된다.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는 기능 향상 보다도 자존감 및 정체성 강화, 자기권리 등 역량 강화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을 차별하는 비장애인 사회의 책무, 사회관계의 변화를 추구하여 진정한 장애인 운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의료적·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의 차이를 예로 들어보자. 아래는 영국의 인구조사국(OPCS)에서 실시한 연구 조사의 대면(face-to-face) 인터뷰

목록에 실린 질문 항목들인데, 너무나 명백하게도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그들 자신이 지닌 결함이나 기능상의 제약으로 단순화한다. 그러나 장애학자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가 구성한 대안적 질문을 통해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문제의 원인은 온전히 사회 내에 존재하게 된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질문조사 - OPCS, 1986

- 1.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 2.당신 신체의 어떤 결함이 물체는 붙잡고, 쥐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 3.청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지닙니까?
 - 4.당신은 일상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상처나, 결점, 또는 기형을 지니고 있습니까?
 - 5.당신은 장기간의 건강 문제나 장애 때문에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6.당신이 지닌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 때문에, 당신을 돌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다른 누군가와 살아야만 합니까?
 - 7.당신은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 때문에 여기에 왔나요?
 - 8.당신 쪽에서 가까운 이웃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 9.당신의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외출을 방해하나요?
 - 10.당신의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는 당신이 버스로 여행하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 11.당신의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는 현재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일에 지장을 초래하나요?
-

대안적인 질문들 - M. Olver

- 1.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 2.단지나 물병 그리고 강통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지니는 어떤 디자인상의 결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고, 쥐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 3.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 당신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지닙니까?
 - 4.당신이 지녔을지 모를 어떤 상처나, 결점, 또는 기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의 일상 활동에 제약을 가져옵니까?
 - 5.당신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를 지닌 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 때문에 당신은 그 곳에 다니고 있습니까?
 - 6.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열악해서, 당신은 활동 보조와 같은 권리를 대신해 줄 친척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까?
 - 7.당신 집의 어떤 부족함이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나요?
 - 8.당신이 가까운 이웃을 방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인 제약은 무엇인가요?
 - 9.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외출을 방해하는 어떤 교통수단이나 재정상의 문제가 있나요?
 - 10.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를 지닌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 11.물리적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나요?
-

그런데 사회적 장애 관점은 장애로 인한 억압을 인식할 수 있는 신체·감각 장애인의 경험에 치중하기 쉽고, 지적 장애인이 당하는 억압 차별이나 지적 장애인의 부모가 겪는 경험을 놓치기 쉽다. 특히 비장애인과 관계를 대립적으로 봄으로써 모든 것을 장애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극단적 논리로 가거나, 비장애인을 지원자로만 파악하여 억압 경험 이 전이되는 지적 장애인의 부모나 비장애인 운동가와의 동맹관계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장애에 대한 개념 비교 - M. Oliver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이론	개인적 비극이론	사회 억압이론
문제의식초점	장애인 개인문제	사회문제
문제해결	재활과 처방	사회적 집단행동
전문가(전문성)	중요	의존성 심화
소 외	선입관, 편견	집단적 차별
권 리	재활조치	서비스 통제권 확보
변 화	개인적 적응	사회의 변화

장애인 복지패러다임 - DeJong

항 목	재활 패러다임 (rehabilitation paradigm)	독립생활 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 직업기술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 의존
문제의 위치	개인에게	환경안에, 재활과정에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원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장애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누가 통제하는가	전문가	소비자
원하는 결과	최대한의 ADL(일상생활 훈련) 유급취업	독립적생활

사회통합(inclusion)

“지적 장애인은 가족이나 위탁부모와 동거하며, 각종 지역사회 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만일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은 통상적인(normal) 생활과 최대한 접근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유엔, 지적 장애인 권리선언 제 4조).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되어 사회적 통합주의가 형성되었는데, 정상화이론, 사회적 역할가치이론을 들 수 있다. 정상화(normalization)는 모든 지적 장애인의 생활방식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normal living condition)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다.

의료모델과 달리 장애인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조건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 보호에 반대하고 일상적인 생활 형태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설 보호에 반대하고 일상적인 생활 형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본주의와 이타적 가치를 강조한다. 비용측면을 강조한 ‘탈시설화’와는 조금 다르다.

정상화는 미국에서 올펜스버거의 ‘사회적 역할가치 이론(SRV : social role valorization)’으로 발전하였는데,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며 방어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상화 라고 보았다. 그래서 진정한 통합이란 ‘가치 부여된 사회적 참여’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적 서비스 제공, 낙인을 막는 사회적 역할 강화, 사회 통합, 교육의 통합 등 전통적인 의료모델과는 달리 하며, 정상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과 재정지출을 주장한다.

정상화 관점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적인 서비스 확대, 사회적 역할 강화, 사회 통합, 교육의 통합과 모방의 원리를 강조하여 더 많은 보상과 재정지출을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IDEA)에 규정된 ‘최소제한 환경의 원칙’에서 나온 ‘주류화 모형(Main stream, 또는 연계서비스 모형)’으로서 장애인교육의 주된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성 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여전히 장애인의 비정상성을 전제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서비스 전달의 형태 전환으로서 탈시설화만을 논의했을 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억압받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탈시설 운동의 결과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돌아갔지만,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로 이데올로기가 옮겨갔을 뿐, 사회적 억압 통제기제는 변함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도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란 어렵고, 사회적 억압 기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의 변화 없이는 전문가를 매개로 한 억압관계가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도 기득권층이 장애인계층에게 선물하는 복지상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무튼 지적 장애인 부모운동은 자녀를 위한 사회통합 가치(inclusion)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부모 자신도 자녀와 함께 함께 차별받고 억압받는 당사자로 인식할 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부모운동은 장애인 당사자의 정체성 찾기, 차별적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 약자인 자녀와 부모 자신의 해방이 중요하게 된다.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지적 장애인 부모 등 가족들은 자녀의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이거나 억압 차별을 경험하는 당사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 부모가 자신의 당사자성을 인식하더라도 장애인 자녀의 자기결정권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신체장애인과 유사하게 모든 것을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사회적 통합주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하겠다.

♣ 사회통합이란?

- 1) 소수자가 인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고 통합되는 것(가족, 지역사회, 학교, 국가)
- 2) 시설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거주(from institution to 'supported living'): 장애인들의 사회적 역할가치 강조
- 3)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being in the community): 집과 같은 지역사회 거주시설(최소제한 환경 원칙)
- 3) 지역사회 참여(being part of the community): 최대한의 자유선택과 자기결정가능성 제공, 시민권운동(inclusive community living)

♣ 통합과 포괄(inclusion)

통합 (integration)	통합 혹은 포괄 (inclusion)
학교에서 진단된 특수교육 욕구를 가진 아동 편입	학교 입학시부터 모든 또래 아동의 욕구를 공유
이분법 구분(장애-비장애) 유지	'다름'으로 이해
기관 중심(특수학교, 학급)	아동 중심(욕구를 가진)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한 교육계획	모든 아동을 위한 개별적 교육계획
특수아동을 위한 지원으로서 특수교사, 치료전문가 배치	교육기관 안에 특수교사, 치료전문가 배치
특수아동을 위한 예산사용	모든 아동(교육기관 전체)을 위한 예산사용
손상에 대응한 차별화된 교육체계	모든 아동을 위한 포괄된 교육체계
특수교육, 치료지원-일반교육업무와 협력 (cooperation)	특수교육, 치료지원-일반교육업무와 통합 (synthesis)

장애인 부모들의 인식

박인용, 한국사회 장애인부모운동 연구(2007)

장애의 원인, 장애인 대한 관점

장애의 원인	응답	장애인은 누구?	응답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요인	-	신체나 정신적 손상을 입은 이	11
장애를 가져온 환경요인	2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약 받는 이	13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	35	사회적으로 배제나 차별 받는 이	12
계	37	계	36

장애자녀와 양육의 느낌

장애자녀에 대한 느낌	응답	장애자녀 양육의 느낌	응답
불행하다	4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	34
불행하지만은 않다	25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다	2
오히려 행복의 계기이다	8	관계가 없다	1
계	37	계	37

자녀양육 어려움의 원인과 책임

장애자녀 양육고통의 원인	응답	장애 문제를 해결할 책임	응답
자녀가 나아지지 않아서	8	장애인 본인, 가족	-
가족의 능력이 부족해	4	지역사회, 시민사회	1
사회 편견이나 복지부실	25	국가, 지방자치단체	36
계	37	계	37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부모의 당사자성

장애자녀 양육 어려움	응답	부모의 당사자성	응답
사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14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
가족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	1	자녀를 대리하는 간접당사자	3
주변의 편견과 사회차별	16	자녀권리의 실현주체로서 직접당사자	13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부담	5	자녀이상으로 차별받는 직접당사자	19
계	36	계	35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의미

박숙경(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자기결정권의 의미

1) ‘자기결정권’의 과거 의미(자유론적 관점) : 의사·행위·책임 능력을 전제로 함

“타인에게 관계없는 사항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아래 행위 할 수 있다”는 자유론적 입장에서 이해됨. 이 같은 자유론적 자기결정권¹⁾은 ‘합리적 사고, 의사표현 능력과 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는 아동, 지적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결정권 제한을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 해왔음.

2) ‘자기결정권’의 최근 의미(관계론적 관점) : 의사·행위·책임 능력에 있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해야 할 사회(국가, 지자체, 관련 서비스 기관, 부모 등 가족)적 의무를 강조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율성(autonomy)과 관련한 ‘의존’과 ‘자기결정권 존중’간의 딜레마는 인지와 합리적 능력을 전제로 하는 자유론적관점에 따른 것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보다 ‘실용적, 상호소통적, 관계적’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함(Sole외, 1997)

① 실용적 자율성 : 선택이 가능하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 좋게 느끼고, 그들이 존재하는 방법과 환경에 만족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누군가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적절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② 상호소통적 자율성 : 당사자의 결정을 최종적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 하나의 과

1) 자기결정권은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에서 기원했다.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문명화된 사회에 있어서 인류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사회 일원에 대해서 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에 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뿐이다”로 정의(백승흠, 1997)하여 자기결정의 제한을 자기보존을 위한 경우로 제한했다. 여기서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의 의미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이 같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지적장애인과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정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며 이를 존중해야 함.

③ 관계적 자율성 : 사람들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서로 의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른 ‘보호’와 ‘의존’ 역시 관계적 자율성의 하나로 이해해야 함.

2. 지적장애인과 자기결정

1) 자기결정 지원 방식

① 심리교육적 관점 : 개인의 자기결정 기술을 중시함.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와 교육을 강조함.

② 생태학적 관점 : 일상에서의 개인적 통제를 실제로 행사하는데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중시함.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최선의 보호가 아닌 지적장애인 자신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강조함.

③ 정치사회적 관점(권리적 관점) : 기존의 서비스 체계, 사회구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통제권 획득을 중시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력 강화’를 강조함.

(예: 장애인당사자주의)

2) 환경과 자기결정

① 학교환경 : 자기결정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운영방침에 자기결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개발하는 경우 자기결정 정도가 높음.

② 고용환경 : 보다 개별화된 형태의 고용인 경우에 자기결정수준이 높음.

③ 후견인 제도 : 보다 덜 규제적인 후견인제 하에 있는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 능력이 더 잘 발달됨(Stancliffe, 2001)

④ 주거환경 : 시설이나 요양원에 사는 경우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는 경우, 주거형태가 보다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경우 자기결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됨

* Wehmyer(1999)는 장애수준을 통제한 후 독립거주, 가족과 동거, 소규모 집합 주거, 대규모 집합 주거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선택기회, 자기옹호, 목표수립 등의 행동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독립적으로 사는 장애인들이 가장 자기결정수준이 높고, 대규모 집합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의 차이 2)

거주유형별 자기결정 경험의 차이	주제별 차이	차이
생활시설 : 가족에 의해 버려짐, 입소절차를 모름, 본인의 의사 묻지 않음, 퇴소의 의미와 절차를 모름, 선생님(시설)이 결정함, 가족이 결정함 그룹홈 : 서비스기관에 의한 의뢰, 잘해서 뽐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 생활시설에서 전원된 경우 시설의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음, 원 가정에서 입소한 경우 가족의 결정으로 이해함, 입·퇴소 절차에 대한 이해가 약함 자립홈 : 가족과 상의하여 입주, 서비스제공 기관소개로 입주, 의사가 일부 반영되고 협의·계약과정을 거침, 입·퇴소절차를 알고 있음, 입·퇴소가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함, 시범 입주를 통해 결정함.	○ 시설유형별로 입·퇴소 과정에서 자기결정경험이 다름 · 자립홈은 입·퇴소 자기결정권이 절차적으로 보장됨. · 그룹홈은 거주인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생활시설의 경우 자기결정권 보장이 되지 않음	시설유형별 자기결정 존중정도가 다름
생활시설 :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고 획일적·반복적인 일과가 이루어짐, 의식주 선택권이 없음, 개인공간이 없으며 집단생활에 의해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함, 재산관리 등이 선생님의 의해 이루어지며 거주인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음 그룹홈 : 자율성이 주어지지만 선생님의 규제가 있음(제한된 자율성), 규제의 정도는 기관선생님·거주인의 적응성과 자기주장 정도에 따라 다름, 일과가 다양해짐, 재산관리 등에서 의견이 존중되지만 선생님의 개입이 이루어짐, 회의·의견을 묻는 등 거주인의 의견이 반영됨,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화재, 갈 찾기 등)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짐 자립홈 : 일과를 스스로 결정함, 의식주를 스스로 선택함, 필요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조정함(재산관리, 귀가시간, 친구초대 등), 가사 일을 스스로 담당함	○ 시설유형별로 시설생활 과정에서 자기결정경험이 다름 · 자율성의 정도가 다름 · 의식주 선택권 정도가 다름 · 사생활 존중 정도가 다름 · 의견존중 정도가 다름 ·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정도가 다름	
생활시설에서만 거주한 경우 · 거주시설 유형별 차이를 말하지 못함 생활시설과 그룹·자립홈의 차이 · 일과의 자율성 정도 · 집단생활 정도 · 한방을 사용하는 인원수 · 사생활 보장정도(내방, 개인물건 소지) · 선택권 존중 정도(의식주, 퇴소권) 그룹홈과 자립홈의 차이 · 선생님이 없는 삶 ·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가 다름 · 자유로운 삶(스스로 일과를 정함) · 가사활동을 직접 함(요리, 장보기, 빨래, 청소 등), · 입주절차가 다름(살아보고 결정, 계약서 작성) · 비용부담이 다름(그룹홈이 자립홈보다 개인 부담이 많음, 수시로 요구되는 비용부담이 있음)	○ 여러 거주시설을 경험할수록 거주시설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함 ○ 자기결정 보장 정도를 중요한 차이로 표현함	시설유형별 차이에 대한 인식이 다름

2) 대규모시설, 그룹홈, 자립홈에 거주하고 있는 9명의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유형별 자기결정경험을 비교한 결과 자립홈>그룹홈>대규모시설 순으로 자기결정보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결정경험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응능력, 타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득·박숙경, 2007).

3. 자기결정의 의미

1) ‘지적장애인’이 느끼는 자기결정에 대한 기대(Grossmann, 1995, p. 176)

“자기 집 같은 마음 편한 주거구역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통제를 덜 받고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상이라고 느끼며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회적 배려가 좀 더 높으면 좋을 텐데...”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주로 보조인에 대한 언급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신의 가구를 갖고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스스로 집안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 자기결정 구성요소 : 자율, 사생활보호, 자기실현(꿈과 욕구 실현), 상호소통과 관계 맺음 등

* 거주시설에서의 자기결정의 의미 : 자율성(자기 규율화), 의식주 선택권, 사생활 존중(개인 공간, 개인 소지품, 사적 관계, 개인 정보 등 존중), 참여와 협의를 통한 존중(장애 당사자와 관련된 논의와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장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가사활동과 위험관리

3) 자기결정경험의 의미

① 심리적 변화

- 두려움과 착한 아이 콤플렉스 벗어나기
- 선택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함
- 자율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주장함
- 현실에 대한 이해(장애수용)와 타인(가족 등)에 대한 수용감 증가
- 자율적 규제와 책임감 증가
- 자립의지 증가 및 동기화
- 자립준비 단계

② 사회적응능력 변화

- 자기결정 경험과 부딪히기를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
- 위험대처 능력 향상(위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위험을 대처하기도 어렵다!)
- 가사활동 능력 증가(보호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장애당사자로서의 책임 분담과 생존본능에 의함)
- 거주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짐(경험을 통한 비교와 선택이 가능해짐)

【사례 : 미국 일리노이 피플퍼스트】

지적장애인 자조단체인 ‘피플퍼스트’의 지적장애인 활동가들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 및 참여 강화’를 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법(DDA) 개정 운동 진행

③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자기결정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사례 1 : 거주시설 유형별 지적장애인 자기결정 경험 분석 결과】

－ 자립홈 거주중인 지적 장애인

Q: 살면서:: 음:: 00씨랑 관련된 어떤 거를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A: 선생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Q: 00씨하고 관련된 어떤 일들은: 프로그램 같은 거를::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A: =아니요! 본인이 해요. 제가. ↑제가 참가하고 싶을 때 참가를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물어봐요. 선생님이::

* 표정, 반복, 크게 말하기, 형용사와 부사를 통한 꾸밈, 문장 앞에 배치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표현함

【사례 2 : 지적장애인 인권교육 참가자 후기】

“의사소통하기 배웠다. 폭력을 당했을 때 자기를 지키는 것도 배웠다.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해하게 되었다. 모르던 것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좋다. 말 하는 게 힘들었다. 공부하면서 부모님과 많이 가까웠다. 성폭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임00)”

“인권에 대해서 배웠다. 여기 매일 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다.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여러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생활보호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도 배웠다. 나가서 발표도 하기도 하였다. 남 앞에서 말을 크게 해야 하는 것도 배웠다. 나 자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노00)”

4.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과제

1) ‘장애인에 대한 타자화’ 넘어서기

【사례 : 나와 타인을 분리하기(타자화)를 통한 이중적 기준 적용】

언젠가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시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데 그날 조사단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한 사법연수생이 ‘생각보다 시설의 물리적 환경도 좋고 분위기도 좋다며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을 해왔다. 당시 그 시설은 5~6명이 1방을 사용하며 외부 출입도 자유롭지 않은 전형적인 집단적 생활시설이었다. 심지어 시설 입구에 설치된 커다란 게시판에는 시설생활인의 사진들과 함께 ‘착하지만 거짓말을 잘함’과 같은 성격의 장단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붙여놓고 있었다. 외부 방문객이 방문을 할 경우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되었다. 정부의 기금지원을 받아 신축공사를 한 터라 갖 지은 콘크리트 건물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다. 필자는 길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해서 질문을 던진 사법연수생에게 “당신은 이 시설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거꾸로 던졌다. 질문을 받은 사법연수생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충격을 받은 듯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그 사법연수생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해 놀랍고 충격적이다. 큰 깨달음을 얻었고 매우 부끄럽다.”고 말했다.

2) 상대방을 배려한 의사소통

지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 : 빠른 대화 속도, 어려운 전문 용어 또는 축약어의 사용, 문자 중심의 대화(그림과 사진, 몸짓과 표정, 침묵 역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임), 불충분한 정보 제공, 해석과 대신 말하기 등(가급적 본인이 쉽고 충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절차화·습관화 해야 함)

□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에서 고려할 사항

고려해야 할 사항	피해야 할 사항
* 부담 없고 쉬운 질문으로 시작하라! *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라! * 명확한 방법으로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져라! * 가능한 개방형으로 질문하라! * 개방형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형 질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라! * 인터뷰를 즐겨라! * 선물은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주는 것이 좋다!	* 길게 질문하지 말고 짧고 명확하게 질문하라! * 다양한 축을 가진 질문들을 피하라! (예: 최근의 팝뮤직에 대해 5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 과거에 대한 질문들을 피하라!(기억력과 과거 시간 구성 어려움, 과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면 피곤해하고 자신감이 위축됨/ 필요시 동의를 구하고 추후 보완하라.) * 전문용어를 포함한 질문들을 피하라!

* 쉬운 용어를 사용하라! * 1회 인터뷰는 20분 이내로 하고 심을 가져라. 실 때 가벼운 간식거리를 준비하여 나눠 먹으면 더 좋다! *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라(이야기의 구성순서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 선입견을 가진 질문들을 피하라!(선생님은 00씨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말씀은 잘 들어야죠~ 등) * 가급적 답변에 대한 해석과 수정을 피하라! * 식사 후나 일과 후 피곤한 시간을 피하라! *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라!
---	--

- * 말하기보다 듣기, ‘기다림’이 중요함 : 대화시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주지 못하거나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주지 못한 경우가 많음
- *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야기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자신의 경험(사실)에 대한 이야기인 내러티브(narrative-사실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 논내러티브(non narrative 꿈과 환상과 같은 이야기)도 중요함(예: 00이 가게에 가서 껌 샀어요. 00이 집에 가요.)

3) ‘위험을 감수할 권리’ 존중

‘생활시설에 사는 D씨(지적장애2급)의 부모님은 D씨가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어려울 것 이란 생각으로 그룹홈 이전을 반대함. D씨는 이를 알지 못하지만 지역사회로 나가고 싶어함. 뇌병변 장애가 있는 P씨, Y씨의 자립을 반대하는 가족들’

4) 장애인을 차별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함

장애인 차별은 표면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이로 인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발생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효율과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기주의와 능력주의로부터 발생함. 장애차별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체계와 의도를 가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임. 이러한 한계와 자신에 대한 직면이 필요함.

5) 또 다른 실천 과제 찾기

※ 참고문헌

- 박숙경. 2007. “거주지원서비스 유형별 성인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에 관한 연구”. 《2007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학술자료집》.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김용득,박숙경.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 79-103.
- Stancliffe, R. J. 2001. “Living with support in the community: predictors of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Research Review*. 7: 91-98.
- Wehmeyer, M. L. 1999. "A functional model of self-determination: describing development and implementing instruction".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y* 14(1): 53-61.
- Jos Van Loon & Greet Van Hove. (2001). *Eman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Down-sizing Institutional Care. *Disabilities & Society*. 16(2)
: 233–254.

발달장애인 옹호기구-영국 체인지 피플

이현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방문기관 : CHANGE PEOPLE CHANGE Unit 4I Shine Harehills Road Leeds LS8 5HS / http://www.changepeople.co.uk / T. 0113-388-0011 / info@change-people.co.uk
---	---

Change people

런던에서 리즈로 거처를 옮기고 들쭉날 Change people을 방문했다.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Change people은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 가장 밝은 모습으로 환영해주는 실무자들의 모습에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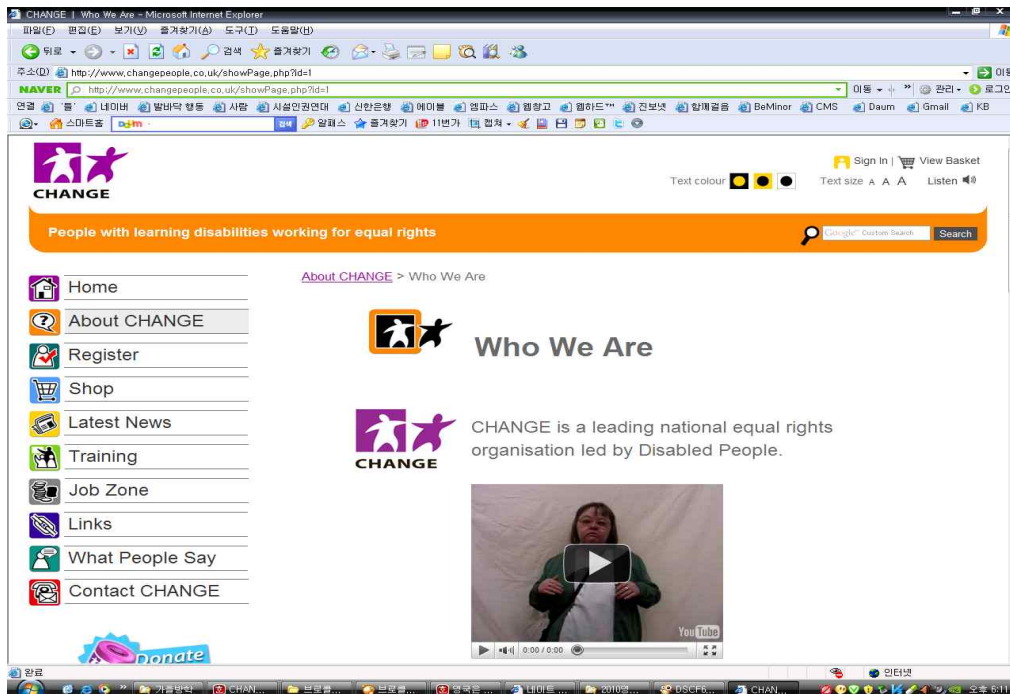
Change people은 1993년 런던지역에서 시작됐다. 총 16명이 일하고 있으며, 유급 자원 봉사자로 12명이 함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내 동등한 삶을 고민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Change people은 지적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활동한다. 특히, 정보접근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위해 그림과 쉬운 단어로 구성된 안내서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다.

Change people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단순한 디자인과 쉬운 단어를 사용해 지적장애인이 접근을 쉽게 하고 있다. 또한 문자를 통해 접근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Change people에서는 크게 암 (cancer), 지적장애부모 사업 (fighting for children), 직업알선 사업 (jobs worth doing), 부모네트워크, 성(sexuality)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암 (cancer)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발병률이 높은 병이 암 (cancer)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암에 걸



▲ 홈페이지는 그림과 단순한 단어, 큰 글씨 그리고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이를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국 의료기관에서는 무료로 암 (cancer)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지적장애인에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암 (cancer)에 걸렸거나 혹은 의심되더라도 검진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방 없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오랜기간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특정 암 (cancer)에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 Change people에서는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보고 지난 2002년부터 암 (cancer)검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총 3권으로 구성된 책을 제작하고 있다.

첫 번째 책에서는 어떻게 검진을 받는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몸에 좋은 음식 설명과 섹스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과 어떻게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암 (cancer)의 증상과 검진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책에서는 암 (cancer)에 걸렸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 진단할 것인지에 대해 각각 증상에 따른 진단방법과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을 모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용어사전도 정리되어 있다.

세 번째 책에서는 암 (cancer)을 치료하고 난 뒤 재발하거나, 암 (cancer) 말기에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적게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죽음에 대한 준비와 말기암 환자의 경우 가까운 친지, 가족 등이 느끼는 정보에 대한 기록, 그리고 어떤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

지적장애인 부모 사업 (fighting for children)

지적장애부모 사업 (fighting for children)으로는 <부모되기 프로젝트>와 지적장애아동을 입양해 키우는 <Shared life 프로젝트>가 있다.

<부모되기 프로젝트>는 지적장애인이 부모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들과 함께 작업하며, 임신에서부터 아이양육의 과정을 쉬운 단어와 그림으로 구성된 책을 만들었다. 책은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는 <나의 임신이 나의 선택이다 - My Pregnancy My Choice>와 아이가 태어나서 1세까지 양육하는 법을 담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 0-1세 - You and your Baby>, 그리고 1세에서 5세까지의 과정을 담은 <Play and Learn 1-5세>로 구성되어있다. 각 책들은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아이양육의 과정을 정리해놓았다. 쉬운 단어와 그림으로 이뤄졌으며 각 장마다 놀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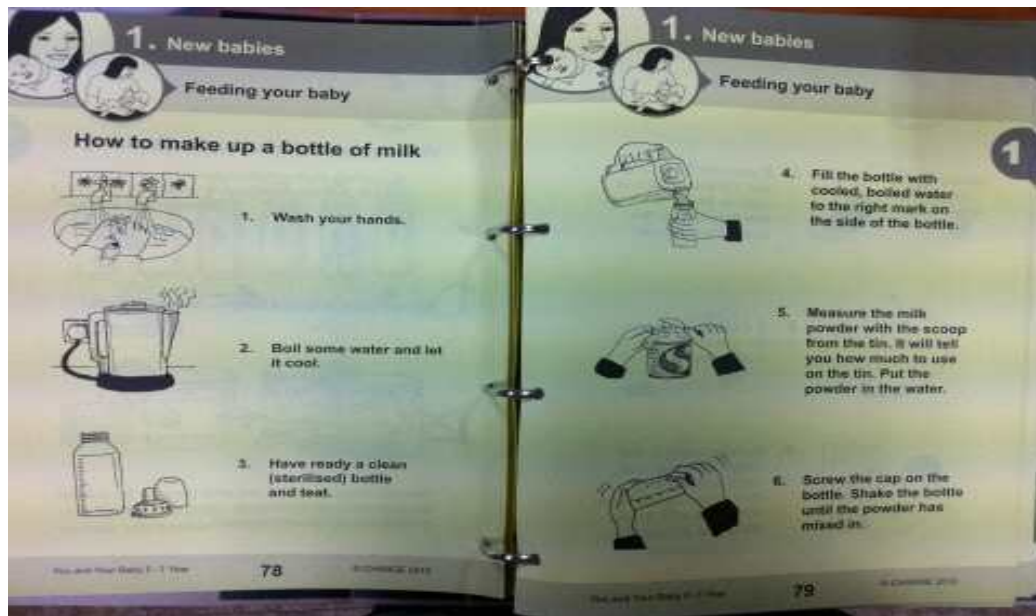
배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뿐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모임은 한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1년에 2회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및 지적장애인의 부모되는 과정을 정리한 책을 만들어 내는데 정부에서는 <Good Practice Guidance>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직업알선 사업 (jobs worth d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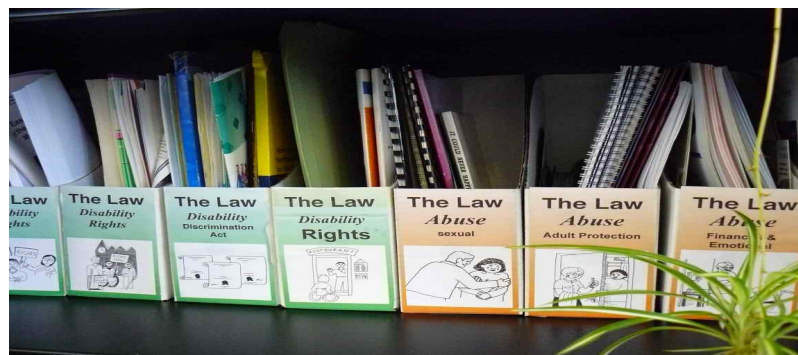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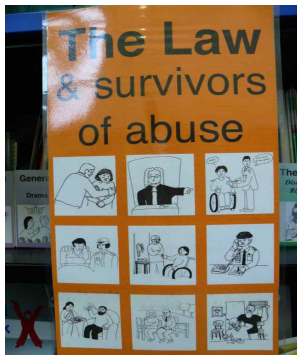
Change people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도 자신에게 맞는 일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아래 <The Co-working Model of Employment>를 만들었다. 이 모델은 지적장애인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직업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hange people에서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같은 일을 같은 시간 동안 수행하고 동등한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은 최저 임금수준이 아닌,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living wage-생존임금' 으로 지급된다. 또한 'Accessible Work Place-지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의 일들을 수행함에



▲분유 타는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있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파일을 정리함에 있어도 그림이나 짧고 쉬운 단어를 활용한 설명을 붙여놓음으로써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만들었다.



▲파일 별 큰 그룹으로 분류 한 뒤 그 안에서 분류된 파일그룹을 그림으로 정리해 한 눈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파일들 또한 큰 그룹 속 그림들을 중심으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Change people에서는 'New Guide by CHANGE-고용주를 위한 안내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The Co-working Model of Employment>를 설명하며 직원을 고용할 때 지적장애인의 모집에서부터 접근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The Co-working Model of Employment>의 성공적인 사례를 DVD에 담아 함께 배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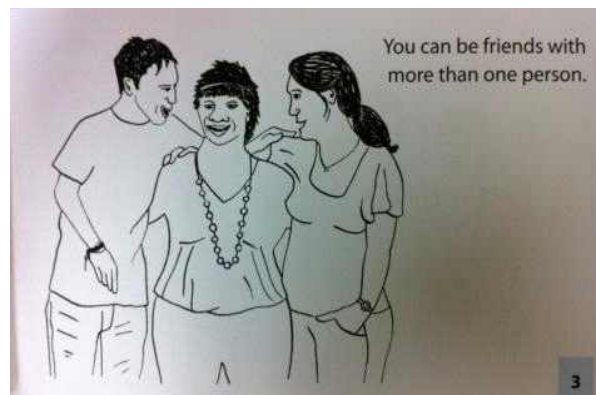
부모네트워크

전국적인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모임이 조직되며 그 안에서 연락망을 형성해 문제 혹은

고민이 있을 때 서로 연락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답을 찾아간다. 또한 한달에 두 번 전국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관계망을 넓혀간다.

성(sexuality)

리즈대학교와 협력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Sex and Relationships'을 발간했다. 이 책은 'Friendships and relationships-친구 및 (인간)관계', 'Safe sex and contraception-피임',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Sexual abuse-성적 학대', 'Sex and masturbation-성과 자위'로 나뉜다. 성교육을 위한 자료도 함께 발간하고 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연극을 제작해 여러 곳에서 공연제의를 받고 있다. 발간한 성교육 자료를 가지고 직접 성교육을 나가기도 한다.



▲'Friendships and relationships-친구 및 (인간)관계' 라는 책 표지와 안의 내용이다. 책은 큰 그림과 쉬운 단어로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기타 혐오범죄(Hate Crime project), 안전하게살기(Living Our Lives in Safety) 진행

<Hate Crime project>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욕설에 대해 거부하는 프로젝트이다.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를 'Hate Crime(혐오범죄)'라 한다. 영국의 한 지역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과 어머니가 지역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혐오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혐오범죄가 잘못되었으며 비장애인에게 이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혐오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Equity Commission(장애, 인종, 동성애, 여성, 노인 등의 차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1년간 <Living Our Lives in Safety>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Living Our Lives in Safety>는 혐오범죄의 경험자들이 다른 혐오범죄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두단계의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hate crime을 배우는 단계'가 있다. hate crime에 대해 알고, hate crime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운다. 두 번째로 '트레이닝을 배우는 단계'가 있다. 전 단계에서 hate crime에 대해 알았다면 이번에는 hate crime관련 교육에 나가 직접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우는 단계이다. 외부에서 교육할 때 hate crime을 이야기하는 방법과 드라마를 통해 hate crime을 실현해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는지 등의 방법을 배워 이후 외부교육 의뢰가 들어왔을 때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강사가 되어 hate crime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올해 목표는 ①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이 자신감있게 트레이닝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② 게임, 핸드아웃 등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③ 참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가며...

Change people을 방문하며 지적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있어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얼마든지 쉬운 단어를 활용해 지적장애인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인 정보제공으로 지적장애인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웬지 그동안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민 없이 지적장애인과 함께함이 어렵다 투덜거렸던 내가 부끄러웠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어 간다면(물론 지적장애인과 함께 준비해서) 지적장애인이 시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Change people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기관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속에서도 Change people에서 활동하는 지적장애인이 앞에 나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은 함께 활동하는 것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에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뤄지길 바라며 Change people의 모습은 나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었다.



▲커다란 화이트 보드 안에 그림과 '간단한 단어로 한달 일정을 정리해놓았다. 오른쪽 사진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외근 나가거나 휴가 중인 사람을 사진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출근할 때 자신의 사진을 In의 위치에 붙여 사무실에 자신이 있음을 표시한다.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제도가 최선인가?

전현일(국제발달장애인재단.IFDD) / 에이블뉴스 2010.11.20

최근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후견인 제도를 위한 입법 추진 운동에 관해서 미국에 사는 발달장애 자식의 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성년 자식을 가진 부모는 부모 사후에 그 자식에게 남겨준 유산으로써 계속 그의 생애가 재정적인 면과 신상에 큰 지장 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후견인제도가 과연 우리 발달장애 자식에게 최선의 방법일까를 고민해 보고,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사후를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자식이 18세가 되면 독립적인 시민으로 간주됩니다. 부모도 법원으로부터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되어야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은, 발달장애가 있는 자식이 정부로부터의 공적 지원에 대한 수혜자격을 심사하는데 부모의 재산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백만장자라도 자식은 그의 재산이 \$2,000 미만이고 연간 수입이 최저 생활권 이하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은 물론 재산면에서 이런 수혜자격을 만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달장애 자식이 상당한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경우 그가 과거에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부에 반환해야 하며, 재산이 \$2,000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가 받고 있는 공적 서비스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부모들이 사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의 후견인법상 후견인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신상감호 후견인, 재산 후견인, 그리고 신상과 재산 후견인입니다.

그런데 재산에 관한 후견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별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유산으로 그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결국 정부로 거의 다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특수욕구신탁(Special Needs Trust)이라는 제도를 입법화 했습니다.

이 신탁은 부모가 설정하지만 그에 들어간 재산의 법적 소유주는 신탁(Trust)이기 때문에 발달장애 자식이 갑작스러운 재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에 넣을 수 있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등 모든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며, 부모 생전에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든지 그 발달장애 식구를 위해서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대개 은행이 맡게 되고, 그의 운영은 신탁운영위원회가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부모가 간여합니다. 부모가 이러한 신탁을 설정할 때, 돈의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짜 놓습니다. 용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의 서비스에 중복되는 용도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가지 법에 걸맞도록 꾸며져야 하기 때문에 대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흔히 쓰이는 후견인은 신상감호 후견인이어서 재산 이외의 그 신변에 관한 것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 후견인제도는 근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때문에 법정에서 설정 시 될 수 있는 한 제한적으로 합니다.

미국에서는 후견인제도를 만들 때에 예상치 못하던 병폐가 종종 발생해서 발달장애 부모연합회(ARC)가 후견 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일이 수차 있었고, 현재의 후견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도의 이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의 사항에 대한 후견을 하도록 되어있고, 될 수 있으면 후견인 제도 이외의 다른 방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 지원체제, 사회 체제, 관습에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회의 체제 중 장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맞게 만들 수 있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당한 불미스러운 경험이 우리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신탁제도를 도입해서 한국 실정에 맞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발달장애 자식을 둔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해결됨은 물론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기위한 국고가 절약되리라 믿습니다.

2013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남동발간 2013- 11호

- 발행일 : 2013년 12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정 은 지
- 주 소 : (405-8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